

2013년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지원연구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시사점 탐색 연구

연구책임자 · 정 제 영 (이화여자대학교)
공동연구진 · 강 태 훈 (성신여자대학교)
· 김 갑 성 (한국교원대학교)
· 류 성 창 (국민대학교)
· 윤 홍 주 (춘천교육대학교)
연구보조원 · 선 미 숙 (이화여자대학교)

이 보고서는 연구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본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Ⅰ 연구요약 Ⅰ

-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적용한 교육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학교의 평가는 학생들이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에 관한 것이었음.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전통적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의 엄청난 발전, 지식기반의 글로벌 경제의 도래 등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고,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지기를 바라는 역량에 대한 새로운 기대도 커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교육 전망 및 비전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문헌 분석 및 주요 교육 선진국의 정책 사례와 교육 동향을 분석하여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함.
- 또한 미래의 인재상, 미래의 학교상, 미래의 교사상에 대한 다각적 측면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전문가 15인, 현장교사 3인, 정부기관 전문가 2인, 민간기업 전문가 2인, 현직 검사 1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3인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을 재정립하고, 미래의 학교상 및 미래의 교사상을 도출함.
-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학교시설’, ‘교육행정지원체제’ 측면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미래 학교상에 적합한 미래의 교사상에 대해서는 미래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 측면에 대하여 의견을 구함.

- 델파이 조사 결과,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기존 문헌에서 제안된 10개 역량을 5개의 역량군으로 묶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역량명을 구성함. 본 연구에서 도출된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은 ‘시민의식’, ‘창의적 혁신력’, ‘실제 문제 해결력’, ‘대인관계능력’, ‘인내심’으로 나타남.
- 즉 미래의 인재상을 정리하면 “현실적인 한계상황이나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견하고 창의·혁신적인 안목으로 인내심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타인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시민으로서 큰 안목에 따라 설득과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라 할 수 있음.
-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델파이 조사에서 OECD 산하의 CERI(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가 제시한 미래의 학교교육 시나리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 재구조화 방향으로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가 4.43점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탈학교로서의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이 3.74점, 재구조화 방향으로 ‘사회 센터로서의 학교’가 3.57점의 동의를 받았음.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는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학습이 촉진되는 상황을 의미함. 현재 갖고 있는 학교교육의 문제를 뛰어 넘는 형태로 모든 구성원이 학습자로서 성장을 추구함을 의미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 결과를 중심으로 제안한 미래의 학교상은 학생의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학교라고 할 수 있음. 미래의 학교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 등 핵심적인 교육활동의 측면과 학교시설, 교육행정지원체제 등 여건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

고, 미래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과 팀학습 및 협력학습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음. 교육평가의 관점에서는 수행평가 방식의 문제해결과정을 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음.

- 미래 교육의 전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교원에 대한 것이며, 교원의 양성, 임용, 인사, 전문성 계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변화가 요구됨.
- 미래 교육과 교사 역량은 학습공동체와 전문적 수행기준 설정에 있음. 미래 교육에서도 여전히 교사의 질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자격, 시험 성적 등과 같은 요소로 평가 측정이 어려운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 분석 및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미래 교사의 역량은 크게 이해, 수행, 협동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이해(understandings) 역량은 교과 및 교육과정, 학습자의 학습과 발달, 학습운영, 교육시스템, 학생문화, 교육환경, 지역사회, 교육평가 등에 대해 이해하는 역량을 의미함. 수행(performances) 역량은 수업설계, 수업관찰, 수업분석 능력 및 학생지도 능력, 교과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콘텐츠 개발 능력,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등을 포함함. 마지막으로 협동(collaborations) 역량은 관계형성능력, 의사소통능력, 공동작업능력, 갈등관리능력 등 학생-교사 간, 교사-교사 간, 학부모-교사 간의 관계를 포괄하는 역량이라 할 수 있음.
-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핵심역량을 계발하고,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국제적인 교육 개혁 동향에 비추어 OECD 교원 정책의 흐름과 우리나라 교원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교원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인재가 교직으로 몰린다는 강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강점은 살리고 학교의 자율성 부족 등 약점은 극복하는 방안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우선 교원양성교육 및 임용 체제가 미래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미래형 학교에 적합한 교원양성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점검하는 기제로서 교원양성기관평가가 활용될 필요가 있음.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한 교사임용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수습교사제(인턴교사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교원임용고사 합격자들이 학교로의 발령 이전에 교직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하고 미처 준비되지 못한 교사로서의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용 단계에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미래 교사상에 맞는 교원 전문성 계발 체제 구축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교사로의 입직 이후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급격하는 교육환경에 학교가 적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 교사들의 변화와 전문성 계발이라고 할 수 있음. 기존의 전문성 강화 연수와 함께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교육의 문제, 생활지도의 문제 등에 대한 연수와 함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연수도 강화되어야 할 부분임.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임. 과거나 현재의 성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함께 우수 교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2011년에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석

교사제는 우수교사의 인정 및 유지에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음. 수석교사가 학교 내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는 권한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공이 필요함. 특히 수석교사가 미래 지향적으로 학교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신입 교원에 대한 멘토링 역할을 통해 현장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현직 교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원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교무행정지원인력을 확대·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교사로서의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차 례

I. 서 론_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방법	5
4. 기대효과	6

II. 이론적 배경_09

1. 국제 교육정책 변화 동향	11
2. 인성 중심의 핵심역량 강조	14
3. 학교체제의 변화 요구와 교원정책의 방향 설정	17
4. 미래의 인재상, 학교상, 교사상 관련 선행연구	19

III.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_83

1. 델파이 조사 개요	85
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86
3. 2차 및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97

IV. 미래의 인재상, 학교상 및 교사상_111

1. 미래의 인재상	113
2. 미래의 학교상	119
3. 미래의 교사상	125

V.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방향_129

1. OECD 교원정책의 흐름 131
2. 우리나라 교원 및 교직의 현황 분석 136
3. 미래 교원정책의 방향 탐색 144

참고문헌_153

부 록_163

- [부록 1]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165
- [부록 2]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173
- [부록 3]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185

| 표 차례 |

<표 II-1>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	16
<표 II-2> 초등학교 교육수요 전망	22
<표 II-3> 중등학교 교육수요 전망	22
<표 II-4> 고등교육 교육수요 전망	23
<표 II-5> 연령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23
<표 II-6>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24
<표 II-7> 청년(15~29세) 실업자 수 및 청년실업률	25
<표 II-8> 후기중등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재학생 분포	26
<표 II-9> 시험 준비 위주 수업에 대한 의견	26
<표 II-10> 공부하는 이유	26
<표 II-11>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	29
<표 II-12> 연도별 학업중단률 변화 추이	36
<표 II-13> CERI에서 구상한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	39
<표 II-14> PISA 문제해결력 영역의 발전경위	53
<표 II-15> PISA 2015 협동 문제 해결 능력 행렬	56
<표 II-16> 뉴질랜드 미래역량의 의미	63
<표 II-17> 뉴질랜드 초등학교의 교과과정과 핵심역량 통합 과정 예시	63
<표 II-18> 교사 직무 규정 관련 법령	69
<표 II-19> 역량에 대한 정의	73
<표 II-20> 초등교사의 역할별 핵심역량	75
<표 II-21> 영국의 교사 전문성 표준	76
<표 II-22> 교사 역량의 정의	79

<표 III-1> 핵심 개념 간 평균 거리	87
<표 III-2> 군집화 일정표	88
<표 III-3> 핵심역량 분류 결과: 4군집 혹은 5군집	90
<표 III-4> 5군집의 핵심역량 델파이 최종 결과	97
<표 III-5> CERI에서 구상한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에 동의하는 정도	98
<표 III-6>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상	99
<표 III-7>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상	100
<표 III-8> 교육평가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상	102
<표 III-9> 학교시설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상	104
<표 III-10> 교육행정지원체제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상	105
<표 III-11>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Knowledge)	107
<표 III-12>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Skill)	108
<표 III-13>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Attitude)	110
<표 IV-1> 인지적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의 변화	126
<표 IV-2> 범사회적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의 변화	126
<표 IV-3> 미래 교원의 역량	127

Ⅱ 그림 차례

[그림 II-1] 공동체로서 학교의 생태적 모형	18
[그림 II-2] 출산률 국제 비교	21
[그림 II-3] 학령 인구 감소	22
[그림 II-4] 숙련 유형에 따른 주요 과업 구분	25
[그림 II-5] 한국의 세계화 지수 추이	27
[그림 II-6] 외국인 주민 자녀수	28
[그림 II-7] PISA 2015 ‘협력적 문제해결력’ 요인과 과정	54
[그림 II-8] PISA 2015 ‘협동 문제 해결력’ 문항 예시	55
[그림 II-9] ATC21S ‘협력적 문제해결력’ 세부 영역	57
[그림 II-10] ATC21S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예시	60
[그림 II-11] ATC21S의 Rubrics 예시: Social Skills 영역	61
[그림 II-12] ATC21S의 Rubrics 예시: Cognitive Skills 영역	62
[그림 II-13] 온라인 평가 문제은행(ARBs)의 문항 예 - 과학교과	64
 [그림 III-1]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 덴드로그램	89
 [그림 IV-1] 미래의 인재상	118
[그림 IV-2] 교원의 전문성에 기반한 학교의 학습조직화를 위한 체제	121
[그림 IV-3] 미래의 학교상	123
[그림 IV-4] 미래의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128
 [그림 V-1] OECD 회원국의 교원 관련 우선 추진 정책 과제	131
[그림 V-2] TALIS 5대 조사 영역	132
[그림 V-3] 교원 양성 및 임용 현황	137

[그림 V-4] 교사 임용 및 봉급의 학교자율성 정도	138
[그림 V-5]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국가별 평균	140
[그림 V-6] 중학교 교사의 전문성 계발 참여 기간의 국가별 평균 및 사분위수 범위	142
[그림 V-7] OECD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 교원 관련 과제의 강·약점	143



I

서론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 미래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학령인구는 2010년 737만 명에서 2030년 532만 명, 2050년 402만 명으로 추정됨. 또한 학교를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밖 청소년은 약 278,2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교육부 외, 2013). 이러한 학령인구의 급감과 학교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우리 교육체제가 다양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OECD 산하의 교육연구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CERI)에서는 현 학교 체도를 둘러싼 여러 문제나 조짐 등을 토대로 학교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음. 미래 학교교육의 6가지 시나리오는 현 체제 유지를 전망하는 시나리오(견고한 관료제적 학교 체제, 시장경제 원리 적용 모델 확대), 재구조화 시나리오(사회 센터로서의 학교,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탈학교 시나리오(학습자 네트워크 형성, 학교붕괴)로 구성되어 있음(류방란, 2004).
-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미래 학교교육의 시나리오들 중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예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학교체제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변화가 필요

함. 이는 기존 공교육 체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의 증가 등 공교육의 위기라 비판받는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임.

- 미래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소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적성·희망·진로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습 경험의 내용과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설계가 요구됨.
- 미래 교육의 전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교원에 대한 것이며, 교원의 양성, 임용, 인사, 전문성 계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변화가 요구됨. 미래 교육 전망을 바탕으로 교원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2. 연구 내용

- 교육 내·외부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학교상과 교사상이 새롭게 재정립 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 사회양극화에 따른 복지적 관점, 평생학습사회 고도화 등 미래 사회 변화 예측
 - 미래 사회의 변화 전망을 바탕으로 교육환경 및 학교체제 변화 전망
- 외국의 미래 교육 대비 정책 사례 분석
 - 외국의 미래 사회 변화 전망 분석
 - 미래 지향적 학교교육 정책 사례 분석

- 사회 변화를 반영한 미래형 학교 모델 설정
 - 미래 사회에 적합한 핵심역량과 인재상 정립
 -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체제 도출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직 발전 정책과 제도상 시사점 도출
 - 미래 교육 전망을 바탕으로 교원의 생애 주기별 정책 시사점 도출
 - 교직 직무역량 개발과 연계하여 동기 제고 방안 검토

3. 연구 방법

가.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

- 미래 교육 전망 및 비전과 관련된 연구 내용을 토대로 문헌 분석
- 미래 교육 전망을 위해 교육부의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
- 미래 교육 정책 마련 및 평가 관련 저서, 논문 등의 선행연구 분석
- 미래 사회 변화 전망과 관련된 주요 연구기관의 보고서 분석
- 주요 교육선진국의 미래 교육 정책 사례 및 동향 분석

나.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

- 미래의 인재상, 미래의 학교상, 미래의 교사상에 대한 다각적 측면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전문가 및 현장 교사, 민간기업 전문가, 현직 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 실시
- 기존에 도출된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간 관계 분석을 통한 핵심역량군 도출 및 핵심역량 재정립

-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미래의 학교상 및 미래의 교사상에 대한 의견 수렴

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 focus group interview)

-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미래 교육의 전망, 학교교육의 문제, 학교 중심의 미래 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실시
- 교육정책 전문가, 미래 사회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서로 다른 시각에서 미래 교육의 변화 방향을 진단
- 미래 사회 전망을 바탕으로 교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발굴

라.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협의회 실시

- 교원양성기관 및 교육정책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 정기적 전문가 협의회 실시를 통한 연구방향 논의 및 검토

4. 기대효과

- 본 연구의 결과물인 학교 중심의 미래 지향적 교육체제 전망은 앞으로의 교원정책 운영의 방향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학교에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 운영 방안 등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학교교육 체제 및 현황을 분석·연구하여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의 토대를 마련함.

- 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미래 비전을 확립하고 학교교육의 시스템 발전과 더불어 기존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 할 수 있음.
- 사범대학을 비롯한 교원 양성교육 체제와 교직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II

이론적 배경

II

이론적 배경

1. 국제 교육정책 변화 동향

○ 미국에서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교육정책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기초학력보장 정책으로, 부시(Bush) 정부에서 시작된 No Child Left Behind(이하 NCLB)임. 이후 오바마 정부는 2009년 미국 경기 부양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이하 'ARRA')을 통과시켜 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의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위한 대규모의 연방자금을 조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0년 9월 30일에는 연방 교육부가 9백7십4억 달러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음(최상덕 외, 2012). ARRA의 16개 프로그램 중 학교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의 9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를 향한 도약(Race to the Top), 최고를 향한 도약 평가 프로그램(Race to the Top Assessment Program), 주정부의 학교혁신 프로그램(Investing in Innovation), 교사 인센티브 기금(Teacher Incentive Fund), 교사 질 향상 파트너십 프로그램(Teacher Quality Partnership Program), 주정부 종단 데이터 시스템(State Longitudinal Data Systems), 인종 및 빈곤 학생 집중 학교 지원 프로그램(Title I School Improvement Grants), 공립학교와 일부 대학의 시설 개선 및 확충 프로그램(State Educational Technology Grants, School Modernization) 등 임.

○ Race to the Top 지원금은 그 정책의 방향과 맞고 달성이 가능한 ‘목표’와 일관적이고 혁신적이며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한 주에 지원됨. Race to the Top 정책은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교육개혁을 개척해 갈 수 있게 도우며 또한 지역의 주정부나 교육구에 좋은 모범사례를 제공하여 전반적인 미국 학교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Race to the Top의 기본적인 지원 방향은 다음의 네 가지임.

- 1) 학습개선: 학생들이 장차 글로벌 경제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학습기준과 평가 체제를 개혁하는 것
- 2) 교육평가와 교육정보력 개선: 학생의 학업성장과 성공을 정확히 측정하고 교사 및 교장이 학생의 학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시스템 구축
- 3) 교원개선: 유능한 교사와 교장의 채용, 연수, 보상 및 유지. 특히 보다 유능한 교사가 필요로 하는 곳에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체제 마련
- 4) 기초학력개선: 기초학력 미달 학교의 체질 개선

○ 핀란드의 교육은 PISA, TIMSS 등 여러 국제시험의 결과로도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핀란드 국내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열쇠로 인식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음(최상덕 외, 2012). 핀란드 정부는 교육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핀란드는 2011년 12월 15일에 교육과 연구 5개년 계획 2011~2016(Education and Research 2011~2016)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핀란드 정부는 1998년 ‘교육과 대학연구 개발계획에 관한 법령(Decree on the Development Plan for Education and University Research)’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은 수상의 임기기간에 맞추어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에서 수행할 과제들을 5년 단위로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하여 1년의 도입기간, 4년간의 실행기간, 그리고 5년째에 5개년 계획을 평가하는 교육과 연구 5개년 계획 2011~2016

을 세워 현재 그 도입기를 지나가고 있음(Finn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2011).

○ 영국은 2010년 5월 데이비드 카메론(David Cameron) 총리 정부가 입각한 이래로 최근 다소 보수적인 방향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음(최상덕 외, 2012). 마이클 고브(Michael Gove) 교육부 장관은 카메론 총리와 뜻을 같이 하여 진보주의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교육에서 보다 교과학습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영국 교육의 전반적인 학업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내용의 심화와 엄격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curriculum based on academic rigor)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심지어 가장 최근에는 고브 장관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암기를 통한 시(詩) 학습을 포함할 것을 발표한다고 하여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음. 이러한 보수적인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통하여 실행되고 있음.

- 1) 학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좋지 않은 학교들(the worst schools)을 가려내어 성공사례를 보여준 학교행정가들에게 넘겨주고 실패한 교사와 학교행정가들은 해고
- 2) 교권 강화: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학생들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제재할 수 있는 교사 및 교장의 권한 강화
- 3) 학교생활지도 강화: 폭력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방출된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법령 제정
- 4) 학업능력 제고: 학습의 심화와 엄정성(academic rigor)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 영국 교육 개혁의 또 다른 축은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우선 교사 양성 단계부터 개선하고 있음. 초기 교사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영국은 교사 양성학교 500개를 할당하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편 및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음.

또한 우수한 교사 양성을 위해 장학금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음. 교사들의 급여와 조건 역시 개선하고 있고, 교사 평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능력 위주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게 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채용,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시도들을 통하여 교사 및 학교에서 일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 하고 있음.

2. 인성 중심의 핵심역량 강조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는 말이 이미 진부한 이야기가 될 정도로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 사회적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교육이 잘 변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교조직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음(Glickman, Gordon, & Ross-Gordon, 2010: 31; 정제영, 2004: 5).
-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식위주의 교육, 소위 ‘입시위주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교육의 목적을 지(知), 덕(德), 체(體)를 기르는 전인교육(全人教育)으로 생각해 왔음. 하지만 근대 학교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특히 지식위주의 교육을 강조해 온 측면이 있음. 사회적으로 학력중심의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한 공정한 선발이 강조된 측면이 반영된 것임.
- 현대사회는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과거에 비해 많은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사회 병리적 문제들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해 있기도 함.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부정부패, 사회 폭력, 범죄는 단지 성인에게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쳐 ‘교실붕괴’, ‘학교붕괴’, ‘학교폭력’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양상해내고 있음. 일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20명 중 2명의 학생이 경험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폭력의 양상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집단화·조직화·저연령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박효정·정미경·박종효·한세리, 2006).

- 이처럼 학교폭력이 점차 심각해지고 많은 위기학생이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이 미흡하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음. 우리나라는 높은 학업 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여성가족부, 2010).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학생들을 끊임없이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삶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거나 공감이나 소통, 더불어 사는 능력을 학습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였던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 OECD와 밀접히 관련되어 교육평가개혁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Assessment and Teaching of the 21st Century Skills(ATC21S)는 OECD 등에서 강조해 왔던 역량중심 교육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 시대적인 중요성이 있음. 특히 교육평가의 개선을 통해 학교교육을 개혁하려는 전략은 기존의 교육과정 개선 중심의 교수학습 변화 시도와는 크게 차별화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적용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Griffin, McGaw and Care, 2012: 301; OECD, 2005; 류성창 외, 2011). ATC21S의 Griffin 등(2012)은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생각의 방식, 일하는 방식, 일하는 기술, 사회생활의 방식’ 등 4가지 범주로 나누고, 10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

〈표 II-1〉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

<i>Ways of Thinking</i> 생각의 방식 1. Creativity and innovation 창의성과 혁신 2.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능력 3. Learning to learn, Meta-cognition 학습역량, 상위 인지능력
<i>Ways of Working</i> 일하는 방식 1. Communication 의사소통능력 2. Collaboration (teamwork) 협업능력
<i>Tools for Working</i> 일하는 기술 1. Information literacy 정보문해력 2. ICT literacy 정보통신기술
<i>Living in the world</i> 사회생활의 방식 1. Citizenship 시민의식 2. Life and career 삶과 경력 관리 3.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including cultural awareness and competence 개인적 사회적 책무성(문화적 인식과 역량 포함)

자료 : Griffin et al.(2012), p. 36.

○ 10가지의 미래 역량은 또 다시 세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ATC21S는 이러한 차원을 KSAVE 모델이라 부름. 그 세 차원은 미래 역량이 각각 다루어져야 할 차원들을 의미함. 즉,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가치·윤리(Attitudes, Values, and Ethics)의 3차원에 따라 10가지 역량이 세분화 되어 새로운 평가의 구성요소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ATC21S은 이러한 미래 역량의 도출을 위하여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미래역량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역적이고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을 취하였음.

○ ATC21S가 지향하는 평가는 사실상 형성평가임. 평가 방법의 개발자인 그리핀 교수가 강조하듯이 평가는 교수학습 현실에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교수자가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개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함. 따라서 평가의 결과는 보다 세부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수·학습의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rubrics)이 평가나 교수·학습 이전에 교수자 및 학습자에게 공개되어 모든 교수·학습의 활동이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목표된 역량을 제대로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ATC21S은 주장함. 현재 개발된 인터넷 및 컴퓨터 기반 평가 도구는 세 가지의 평가 영역을 주로 평가하는데 문제해결 협동력, 해당 문제의 인지적 사고력,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활용력을 주로 평가함.

3. 학교체제의 변화 요구와 교원정책의 방향 설정

- 학교교육 체제가 점차 확대되고, 교육재정의 소요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관리 체제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음(Friedman, 1955; Carnoy & Levin, 1985).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거대한 학교 및 학급 규모, 표준화 등은 학교교육의 효율성과 책무성, 변화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responsiveness)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Chubb & Moe, 1990; Meier, 1995).
- 20세기 후반부터는 교육체제에서 단위학교가 행정, 재정, 책무성의 기본적인 단위가 되고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화, 지역의 참여 확대,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교육개혁 정책들이 제안되어 왔음(이종재 외, 2003; Hill, Pierce, & Guthrie, 1997; Fiske, 1996).
- 공공선택론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보다는 완전한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임.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학교교육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학교에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업 성취에 대한 책무성까지 명확하게 학교에 두자는 것임(Hanushek & Raymond, 2002: 76). 학교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학생들 간 경쟁체제를 완화하고 학교 간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는 사회적 자본론(social capital theory)에 입각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Coleman & Hoffer, 1987; Furman, 2002). Sergiovani(1994)는 학교에 대한 비유가 조직(organization)에서 공동체(community)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기하였음. Sergiovani는 ‘공동체의 구축은 학교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Sergiovani, 1994: xi)’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음.
- Furman(2002)은 공동체로서 학교에 관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그림 II-1]과 같은 ‘생태적 학교 모형’을 만들었음.



[그림 II-1] 공동체로서 학교의 생태적 모형

자료: Furman, G. (2002). school as community: From promise to practice. p.9.

-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미래 학교교육의 시나리오들 중에서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예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학교체제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변화가 필요함. 이는 기존 공교육 체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의 증가 등 공교육의 위기라 비판받는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임.
- 미래 교육의 전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교원에 대한 정책임. 미래 교육 변화에 따라 학교체제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생애 주기에 따라 교원의 양성, 임용, 인사, 전문성 계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변화가 요구됨.

4. 미래의 인재상, 학교상, 교사상 관련 선행연구

가. 미래의 인재상

-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 역시 변화하고 있음. 그에 따라 교육의 기능과 방향도 재설정되어야 함. 현재로부터 30~50년 후 시점에 예상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교육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미래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미래의 인재상을 도출해 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함.
- 최근 들어 교육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가깝거나 먼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에 대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음. 특히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인 교육 분야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 따라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예측되는 문제 상황에 대한 교육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한국교육학회 외,

2006). 많은 연구물들이 예측하는 미래사회상은 어느 정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음. 지식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한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교육이 대응해야 할 필요를 지적하기도 하고(유현숙 외, 2011; 박재운 외, 2010; 유키노 이노우에 외, 2010; 강영혜 외, 2009; 임용경, 2007), 글로벌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교육적 대응이 요청되기도 함(이혜영 외, 2011; 김정자, 2010; 곽병선, 2009a; 박재운 외, 2008). 동시에 여러 연구물에서 미래 교육의 핵심으로 리더십을 위한 교육개편이 종종 언급되기도 함(이혜영 외, 2011; 곽병선, 2009b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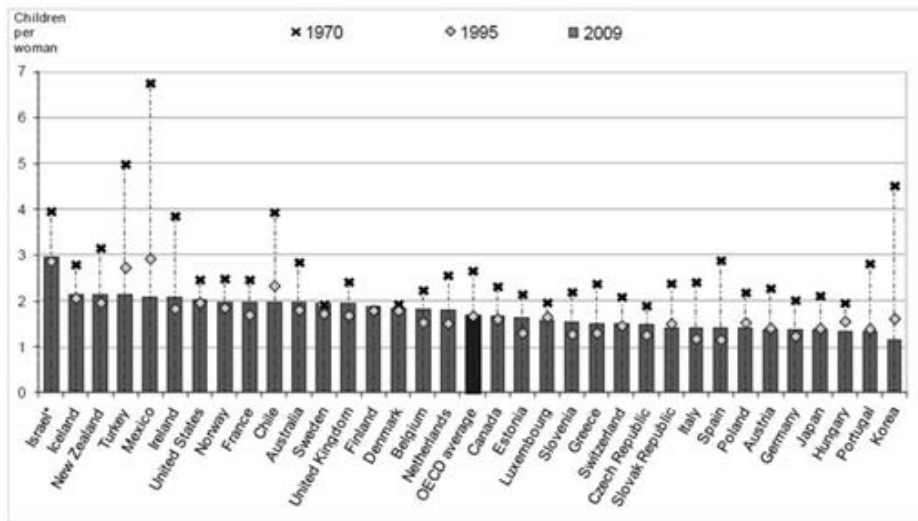
○ 이와 같은 미래 사회의 예측에 따른 교육적 대응에 대한 제안도 연구물들마다 조금씩 다른 강조점을 보이고 있으나, 대략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제안을 하고 있음. 첫째 유형은 교육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제언들임. 학제개편 방안(박세일 외 2010, 최정재, 2008; 박재운 외, 2007; 한국교육개발원 2006; 김영철 외, 2006)이나 학교급별 중점사항에 대한 제안(류청산, 2011; 유현숙 외, 2011; 박재운 외 2010; 이혜영 외, 2007), 혹은 미래 교육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제시(김명신, 2010; 정재걸, 2010; 도종환, 2004) 등이 이에 해당함.

○ 동시에 많은 연구물들이 제안하는 방안의 두 번째 유형은 미래의 인재를 효과적으로 길러내기 위해 교육이 중점을 두어야 할 역량 항목의 제시임(이혜영 외, 2011; 김승보, 2010; 채정현 외, 2010; 강명희, 2009; 강영혜 외, 2009; 곽병선, 2009b; 김대현, 2009; 이혜영, 2008; 한만길, 2008; 이종태, 2007; 최돈형, 2005). 역량 제시 중심으로 제안하는 미래 교육 연구물들의 특징은 주로 미래의 변화에 요구되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 교육이 더욱 중요시해야 할 교육내용이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개선에 대하여 제안을 하는 특징을 보임(강성국 외, 2008). 반면 과거 및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항존적으로 중요시 될 교육적 가치 및 내용을 중요시 하는 연구물(이혜영 외, 2008; 윤현진, 2008)은 빈약한 편임.

○ 이러한 미래 교육 연구 동향에 기반하여 기존 연구물의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미래 사회에 예견되는 문제 상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교육구조의 개편과 역량제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본 절의 주제인 미래에 필요로 하는 역량 중심으로 미래 인재상을 그려보는 작업은 시대적 타당성을 가짐.

1) 미래 인재상 설정의 근거: 네 가지 주요 변화¹⁾

가) 저출산 및 고령화



Notes: 2007 for Belgium and Canada; 2008 for Australia, Germany, Greece, and Ice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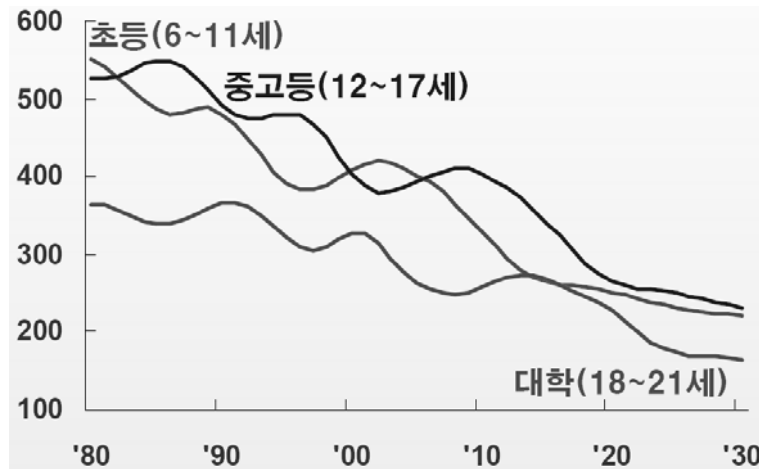
Sourc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2010, and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2010 from OECD Family database, January 2011.

[그림 11-2] 출산률 국제 비교

○ 다가올 미래 사회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인력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저출산 경향을 기반으로 한 예측 자료들에 따르면, 2050년의 학령인구는 2005년의 43.1%, 2030년의 교육수요는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2006

1) 본 절의 내용은 류성창 외(2011)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년의 대략 50~60%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종합적으로 2030년의 학령 인구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며, 이는 매우 심각한 교육환경의 변화 및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그림 II-3] 학령 인구 감소

자료: 통계청(2009).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표 II-2〉 초등학교 교육수요 전망

초등학교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학령인구(명)	3,922,772	3,296,917	2,655,506	2,510,024	2,315,890	2,209,392
학생수(명)	3,922,772	3,296,917	2,655,506	2,510,024	2,315,890	2,209,392
(증감지수)	100	84.05	67.69	63.99	59.04	56.32

자료: 이해영 외, 2007

〈표 II-3〉 중등학교 교육수요 전망

중학교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학령인구(명)	2,093,196	1,961,501	1,572,802	1,291,222	1,230,942	1,130,837
학생수(명)	2,093,196	1,961,501	1,572,802	1,291,222	1,230,942	1,130,837
(증감지수)	100	93.71	75.14	61.69	58.81	54.02

자료: 이해영 외, 2007

〈표 II-4〉 고등교육 교육수요 전망

고등교육 기관	2006	2010	2015	2020	2025	2030
해당인구(18-21)	2,541,134	2,573,569	2,676,030	2,268,912	1,730,808	1,647,712
구성비(3-65세 중 비율)	5.94	6.04	6.35	6.54	4.22	4.51
재학생수(명)	2,135,960	2,163,223	2,249,347	1,907,143	1,454,837	1,384,991
(증감지수)	100	101.28	105.31	89.29	68.11	64.84

자료: 이혜영 외, 2007

〈표 II-5〉 연령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총 인구	48,294	49,220	49,956	49,329	46,743	42,348
영아인구(0-2세)	1,436	1,384	1,135	1,064	824	695
학령인구(3-21세)	12,259	11,262	8,785	7,406	6,421	5,285
(증가지수)	(100.0)	(91.9)	(71.7)	(60.4)	(52.3)	(43.1)
경제활동인구(22-64세)	30,216	31,219	32,215	28,961	24,557	20,575
고령인구(65세이상)	4,383	5,354	7,821	11,899	14,941	15,793
구성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영아인구(0-2세)	2.97	2.81	2.27	2.16	1.76	1.64
학령인구(3-21세)	25.38	22.88	17.59	15.01	13.74	12.48
경제활동인구(22-64세)	62.57	63.43	64.49	58.71	52.54	48.59
고령인구(65세이상)	9.08	10.88	15.66	24.12	31.96	37.29

자료: 통계청, 2005. 1. 장래인구추계

나) 사회적 양극화

- 현재까지 진행된 양극화 현상은 특별한 사회정책적인 대응이 가해지지 않는 한 가까운 미래에 계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1990년과 2010의 지니계수, 5분위배율(상위20%의 소득/하위 20%의 소득),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절반보다 낮은 소득을 버는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지난 20여 년간 사회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심화현상은 계속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음.

〈표 II-6〉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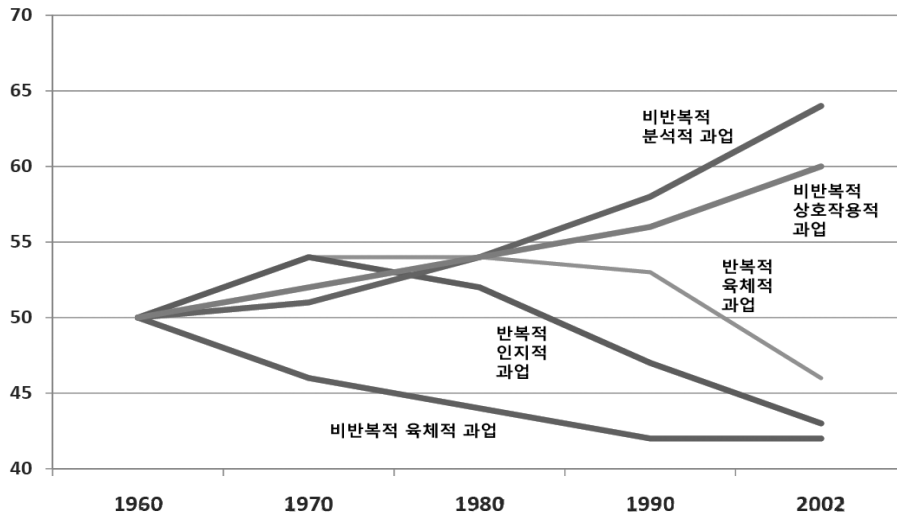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니계수	0,256	0,251	0,266	0,277	0,279	0,270	0,277	0,281	0,285	0,292	0,294	0,295	0,289
5분위배율	3.72	3.68	4.05	4.29	4.34	4.22	4.41	4.55	4.62	4.84	4.88	4.97	4.82
상대적 빈곤율	7.1	7.7	9.2	10.1	10.0	10.6	11.4	11.9	11.9	12.6	12.5	13.1	12.5

* 도시 2인 이상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다) 경제구조 및 인력 유형 변화

- 미래 사회에는 지금보다 경제 및 산업구조가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함. 사람이 자연과 사람을 사용하여 경제생활을 하였던 농업경제와, 사람이 기계를 사용한 산업경제에서, 사람이 지식을 사용하는 지식경제 및 기계가 기계를 사용하는 쿼텟경제에 이르기까지 경제 및 산업 구조는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각 경제유형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변화되고 그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의 변화 역시 요청됨. 특히 교육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경향을 비추어 보았을 때, 미래에는 ‘비반복적 분석 과업 및 상호적 과업’ 중심으로 산업 인력의 역할이 변화될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과 비교하여 발전된 국가의 경우 비정형·비반복적인 창의 지식 중심의 인력이 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II-4] 숙련 유형에 따른 주요 과업 구분

자료: Levy & Murnane (2005); King(2010)에서 재인용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적인 경제인력이 배출되지 않고 있는데, 1991년 대비 2010년의 청년 실업률은 5.4%에서 8.0%로 증가하여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교육제도에서 양성하는 인력과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간의 수급이 맞지 않는 데에서 비롯하는데, 한국의 경우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표 II-7〉 청년(15~29세) 실업자 수 및 청년실업률

(단위: 만명,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실업자	45.4	46.1	49.0	57.1	50.4	43.0	43.5	56.8	149.0	137.4	91.3	89.9	75.2	81.8	86.0	88.7	82.7	78.3	76.9	88.9	92.0
실업률	2.4	2.4	2.5	2.9	2.5	2.1	2.0	2.6	7.0	6.3	4.1	4.0	3.3	3.6	3.7	3.7	3.5	3.2	3.2	3.6	3.7
청년실업자	-	31.4	33.3	38.3	32.4	26.3	26.4	32.2	65.5	57.4	40.2	41.3	36.1	40.1	41.2	38.7	36.4	32.8	31.5	34.7	34.0
청년실업률	-	5.4	5.8	6.8	5.7	4.6	4.6	5.7	12.2	10.9	7.6	7.9	7.0	8.0	8.3	8.0	7.9	7.2	7.2	8.1	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첫째, 한국의 후기중등수준에서의 직업교육 비율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고, 둘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와 학습의 실체가 설문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시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능력있는 인력의 효과적인 배출이 어려운 실정임.

〈표 II-8〉 후기중등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재학생 분포(2002)

구분	프로그램 유형별 재학생 구성			
	일반계	준직업계	직업계	산학협동
한국	67.9	—	32.1	—
OECD 평균	50.6	4.0	45.5	14.7

자료: OECD (2004)

〈표 II-9〉 시험 준비 위주 수업에 대한 의견

(중학교: 3,117명, 고등학교 3,070명)

응답자 유형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다
		n(%)	n(%)	n(%)	n(%)	n(%)	n(%)
중학생	학교에서는 시험 준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16(3.7)	919(29.7)	1,557(50.3)	504(16.3)	1,035(33.4)	2,061(66.6)
고등학생	학교에서는 시험 준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02(3.3)	819(26.8)	1,685(55.2)	447(14.6)	921(30.2)	2,132(69.8)

자료: 이혜영 외(2008)

〈표 II-10〉 공부하는 이유

(중학교: 3,117명, 고등학교 3,070명)

응답자 유형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다
		n(%)	n(%)	n(%)	n(%)	n(%)	n(%)
중학생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이다.	267(8.6)	733(23.7)	1,336(43.1)	763(24.6)	1,000(32.3)	2,099(67.7)
고등학생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이다.	208(6.8)	545(17.9)	1,437(47.1)	863(28.3)	753(24.7)	2,300(75.3)

자료: 이혜영 외(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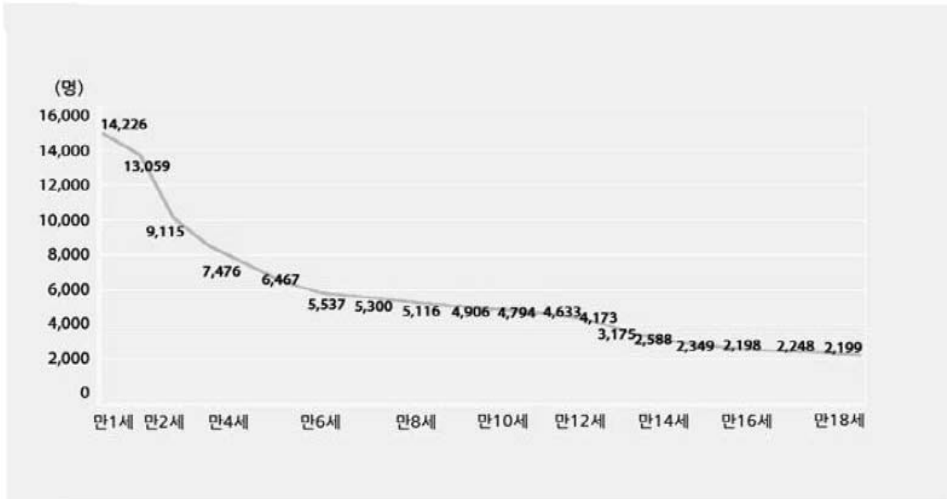
라) 글로벌, 다문화, 통일대비의 필요성 증대

- 한국사회는 점점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음. 다만 2007년 세계화 지수 순위에서 38위에 해당했던 한국이 2011년에는 54위로 내려 앉아, 시간이 흐를수록 글로벌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5] 한국의 세계화 지수 추이(2007~2011)

- 또한 한국의 다문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09년 18세 이상의 외국인자녀 수가 2,000여명인 것에 비하여 만1세 자녀의 수가 14,000명에 달해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교육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남과 북의 문화적·언어적 차이를 감안하면, 통일 이후 교육적 대응은 글로벌 및 다문화적인 교육전략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림 II-6] 외국인 주민 자녀수(2009년 조사 시점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2) 핵심역량 도출을 통한 미래 인재상 설정 사례: 2003년 이후

- 위와 같은 한국 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교육이 길러야 할 인재의 종류는 변화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실행된 바 있음. 특히 미래 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들은 아래와 같이 미래에 요구되는 새로운 종류의 역량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된 바 있음. 본 절에서는 OECD, P21, ATC21S, 정범모,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한 바 있는 역량의 종류를 소개함.

〈표 II-11〉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역량: ① 큰 맥락에서 행동, ② 인생 계획과 과업을 구상 및 실행, ③ 자신의 권리·관심·한계·필요를 옹호하고 주장 ▪ 대인 역량: ① 타인과 관계를 잘 함, ② 협동, ③ 갈등 관리 ▪ 기술 역량: ① 언어·상징·텍스트를 상호적으로 활용, ②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활용, ③ 새로운 기술 활용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P21),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역량 ①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 ② 대화 및 정보매체 활용, ③ 협력, 팀워크 및 리더십, ④ 창의력과 혁신, ⑤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 ⑥ 진로와 학습 관리, ⑦ 범문화적 이해
Assessment and Teaching for 21st Century Skills (국제평가개혁연구단체; ATC21S),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군 10개 역량 ▪ 사고력: ① 창의력, ② 비판적 사고, ③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및 학습력 ▪ 업무능력: ④ 대화능력, ⑤ 협동력 ▪ 기술사용: ⑥ 정보통신 활용력, ⑦ 정보통신 문해력 ▪ 사회와 삶 관련: ⑧ 시민성, ⑨ 인생 및 진로 진행력, ⑩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감
정범모, 『내일의 한국인』,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가지 유형의 미래 한국인: 전인, 공인, 생산인, 자율인, 내재가치, 역사적 현재, 보편과 특수, 자연과의 조화
스마트 세대의 교육비전, KEDI,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 Local: 글로벌과 국가(지역)의식 ▪ Perpetual & Contextual: 영속적이고 맥락적인 역량 ▪ Leadership & Followership: 리더와 팔로워로서의 역량 ▪ Innovative & Inclusive: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역량
국가별 역량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질랜드: 사고하기, 언어·상징·텍스트 활용, 자기관리, 타인과 관계 맺기, 참여와 공헌 ▪ 캐나다 퀘벡 주: 인지적 역량(정보활용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판단력, 창의력), 방법론적 역량(효과적인 방법의 활용,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개인적·사회적 역량(자아정체성 형성, 타인과의 협동), 의사소통 관련 역량(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 대만: 자기이해와 잠재 능력의 추구, 감상과 표현, 창의력, 진로개발과 평생학습, 의사표현, 소통과 공유, 존중, 배려, 팀 작업, 문화적 소양과 국제이해, 기획, 조직, 실천, 정보기술의 활용, 적극적 탐구와 공부, 독립적 사고와 문제해결 ▪ 한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학술지 논문 다수

3) 최근의 관련 연구 동향

가) 기존 역량 관련 연구의 문제점 지적

- 세부 역량 항목 간 개념의 불균형(류성창 외, 2011: 4): 각종 연구물이 제시하는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들은 그 개념에 있어서 함의하는 바의 영역이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그 위계적 수준이 다른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개념 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이 발견됨. 예를 들어, ‘삶의 진로’와 관련된 자기개발 역량의 경우, 삶의 전반에 걸쳐 발휘될 수 있으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역량의 경우 특정 업무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역의 범위가 다름. 또한 삶의 진로 관련 역량은 사회성 관련 역량이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역량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개념의 위계적 수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음. 또한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은 그 개념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는데, 두 역량은 서로 맞물려서 발휘되는 것이지 그 중 하나의 역량만 구분하여 학습하거나 발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역량 제시만으로는 현실적인 의미가 약함(류성창 외, 2012: 66): 기존의 역량 관련 연구들의 경우 역량을 제시하는 데에 많은 논의를 할애하는 경향이 있음. 본 장 서두에서 정리하였던 것과 비슷한 유형으로 미래 사회에 예측되는 변화를 종합 및 서술하는 내용 역시 다양한 역량 제시의 근거로 논의됨. 그러나 이러한 역량 도출 연구의 경우 실제로 어떻게 이러한 역량을 기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부분은 다소 약함. 흔히 구성주의적 협동 및 탐구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이 길러질 것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러한 학습이 실제로 미래의 핵심역량을 제고한다는 연구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 따라서 미래 인재상에 관한 탐구에 있어서, 역량의 제시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역량의 질적(정성적) 평가를 학교단위 학생 평가(내신평가)에

반영하여 실제적으로 역량 중심의 교수학습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ATC21S의 구체적인 방안과 같이 이제는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미래 인재상 혹은 미래의 역량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많은 경우 나열되는 미래의 역량이나 인재의 특성이 10개 내외로 많음: 대다수의 연구물들은 대략적으로 9~10개의 역량을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나열함. 이러한 역량들은 전술된 바와 같은 개념상의 문제 뿐 아니라 그 개수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미래 인재상에 요구되는 역량을 어떻게 교육현장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실적 처방이 내려져야 하겠지만, 10여개에 달하는 역량을 반영하여 기존의 교과 수업이나 학교 활동을 재구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 특히 역량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하자는 많은 연구물들은 기존의 지적 능력 중심의 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역량 중심 교육을 하자고 주장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인지적 교육의 보완을 위해서 역량 중심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라서, 기존의 지적 내용의 교과수업이나 학교활동 이외에 10여 안팎의 역량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재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특히 뉴질랜드와 같은 몇몇 해외사례에서는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는 역량의 개수를 5개 내외로 줄이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고(4학기제에서 매 학기에 1개 역량을 집중적으로 교수 및 학습하고 1개 역량은 1년간 강조하는 방식), PISA 2015나 ATC21S,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주 단위 평가 개발 협력체에서 개발하는 새로운 종류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협동력(Collaboration)’에 강조점을 두어 개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10개 안팎의 역량보다는 1~5개의 개수 사이에서 현실에 반영 가능한 역량을 선별 및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류성창 외, 2012: 66-67).

나) 역량의 단순화 동향

- 위와 같은 현실 인식과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역량교육 관련 연구 동향에 새로운 방향을 가능케 하고 있음. 전술된 바와 같이 개념적이고 현실적인 역량 나열식의 연구에서 이제는 보다 현실 적용력이 높은 종류의 역량 리스트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임. 그러한 움직임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역량군’으로 유목화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 한 두 가지의 역량에 집중하여 새로운 교육의 방향으로 삼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1) 3개 정도의 ‘역량군’으로 유목화

- ‘역량군(Skill Groups)’으로 유목화하는 경우는 전술된 바와 같은 개념상의 수평적 구분이나 수직적 위계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많은 개수의 역량 나열을 극복하고자 추진되고 있음. 예를 들어, 2012~2013년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되는 정책연구의 주안점은 바로 기존에 나열되었던 역량들을 3개의 군(Groups)으로 묶어 제시하는 것임. 또한 관련된 학술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예: 곽영순, 2013).

- 이와 같은 연구에서 제시되는 구체적인 역량군은 주로 인성, 지성, 사회성으로 구성됨. 이러한 연구 동향에서는 기존의 교육이 ‘지성’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지성을 위한 교육에 개인적 인성과 대인적 사회성을 추가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육으로 가야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음.

(2) 1~2개의 세부역량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방안

- 이 방안은 기존 연구 과정에서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하여 개별 의견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연구의 결과로는 제시된 사례가 적음. 그러나 역량군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전히 개념적으로 넓은 단위를 제시하는 측면이 있어, 현실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교육현장에서 교사나 학교 운영자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부 역량의

선정과 집중이 중요한데, 경험적 연구방법으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 역량의 선정 기준이나 선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나. 미래의 학교상

1) 환경의 변화와 학교교육의 문제

가) 교육환경의 변화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는 말이 이미 진부한 이야기가 될 정도로 과학기술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 사회적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학교 교육은 잘 변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교조직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음(Glickman, Gordon, & Ross-Gordon, 2010: 31).
-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식위주의 교육, 소위 ‘입시위주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교육의 목적을 지(知), 덕(德), 체(體)를 기르는 전인교육(全人教育)으로 생각해 왔음. 하지만 근대 학교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는 특히 지식위주의 교육을 강조해 온 측면이 있음. 사회적으로 학력중심의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반영한 공정한 선발이 강조된 측면이 반영된 것임.
- 미래 사회는 학교교육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음. 산업화 시대에 우수한 인재라고 평가 받았던 학교교육의 성과는 미래 사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최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역량의 논의는 학교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인 교육과정, 교수 학습 활동, 교육평가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나) 학교교육의 문제

- 학교는 오랫동안 독점적인 지위에서 교육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 21세기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였고, 학교 체제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사회를 미개한 사회인 것으로 여겨왔음.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스마트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삶의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 일상의 상당한 시간을 스마트 폰에 할애하고 있으며, 인간관계의 유지와 관리도 스마트 폰과 SNS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반면에 학교의 모습과 역할을 살펴보면 학교 밖의 변화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 마치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그것도 소수의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강박중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임.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교육에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 여기서 학교교육의 성공은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함. 학교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성적 경쟁을 위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음. 학교교육의 주인공은 결국 소수의 학업성적 우수자가 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소외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게 됨.
- 학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학교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하는 것임. ‘똑똑하고 의욕적인 많은 아이들이 교육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푸대접을 받고 있으며,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다’는 문제는 학교교육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음. 학교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성공하는 경험, 행복한 경험, 즐거운 미래’를 안겨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상당수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하고 있으며, 학교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교과 지식의 체계적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최근 교육부(2013)는 학교밖 청소년 중에서도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2012학년도(‘12.3.1~’13.2.28)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학업중단학생은 총 68,188명이며, 재적학생 수 기준 학업중단율은 1.01%로 나타나 미국 7.4%(‘10년)이나 독일 6.5%(‘10년), 일본 1.3%(‘11년)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학업중단비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은 16,828명(0.57%), 중학교는 16,426명(0.89%), 고등학교는 34,934명(1.82%)로서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학업중단 이유는 학교급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의 학업중단 사유는 해외출국(45.38%), 미인정 유학·유예(38.64%), 가사·품행·부적응 등의 유예자(9.85%), 장기결석유예(3.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경우에는 미인정 유학·유예(31.69%), 장기결석·유예(30.35%) 등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경우, 총 34,934명 중 자퇴(96.0%)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그 외 퇴학(2.99%)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예(0.92%) 등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된 자퇴 사유에는 학교 부적응(49.96%)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 외에도 조기진학 및 종교 등으로 인한 자발적 학업중단(22.81%), 해외출국(12.53%), 경제사정 및 가정불화와 같은 가사(6.66%), 질병(4.09%) 등의 원인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자퇴자 중에서 학교 부적응 사유는 학업 관련(28.30%), 학교규칙(2.92%), 대인관계(1.39%), 기타 부적응(17.35%)이었으며, 퇴학 사유는 학칙위반(2.63%), 학교폭력(0.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업중단의 계열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성화고가 11,238명(3.40%)으로 가장 높은 학업중단율을 나타내었으며, 특수목적고(1,114명, 1.73%), 일반고(20,772명, 1.50%), 자율고(1,810명, 1.26%) 순으로 학업중단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업중단비율이 최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시계열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교육부에서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 100명 중 1.01명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2010년 이후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 잠시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변화 추이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음.

〈표 II-12〉 연도별 학업중단을 변화 추이('09~'13)

단위: 명(%)

구분		2013	2012	2011	2010	2009
초등 학교	재적학생수	2,951,995	3,132,477	3,299,094	3,474,395	3,672,207
	학업중단자	16,828 (9,192)	19,163 (10,771)	18,836 (10,404)	11,634	17,644
	학업중단율	0.57% (0.31%)	0.61% (0.34%)	0.57% (0.32%)	0.33%	0.48%
중학교	재적학생수	1,849,094	1,910,572	1,974,798	2,006,972	2,038,611
	학업중단자	16,426 (14,231)	17,811 (15,337)	18,866 (16,509)	15,736	19,675
	학업중단율	0.89% (0.77%)	0.93% (0.80%)	0.96% (0.84%)	0.78%	0.97%
고등 학교	재적학생수	1,920,087	1,943,798	1,962,356	1,965,792	1,906,978
	학업중단자	34,934 (30,558)	37,391 (33,057)	38,887 (34,091)	34,540	34,450
	학업중단율	1.82% (1.59%)	1.92% (1.70%)	1.98% (1.74%)	1.76%	1.81%
전체	재적학생수	6,721,176	6,986,847	7,236,248	7,447,159	7,617,796
	학업중단자	68,188 (53,981)	74,365 (59,165)	76,589 (61,004)	61,910	71,769
	학업중단율	1.01% (0.80%)	1.06% (0.85%)	1.06% (0.84%)	0.83%	0.94%

- 주 : 1)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 연도는 조사년도임(2013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2. 3. 1~2013. 2. 28 기준이며 재적학생수는 2012. 4. 1 기준임)
 3) 2011년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1~2012년의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 이민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3.9.4.),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발표.

○ 아직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나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경우는 ‘학교중단의 가능성’이라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함. 한유경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 28.8%, 중학생 40.9%, 고등학생 48.6% 등 초·중·고생 전체의 40.3%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에 노출된 정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음. 학교에 다니기 싫은 이유는 학업성적, 재미없는 학교생활, 친구관계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교육의 문제가 8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단순히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만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움.

○ 학업중단의 주요 사유가 학교부적응인 것을 고려할 때,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위기행동을 하거나 위기상황에 노출된 위기학생의 비율을 고려해보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음. 이러한 연구로는 윤철경 외(2013)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전체 학생 가운데 위기학생은 전체 재학생 중 23.9%로서, 고위기학생은 4.5%(335,122명)이었으며, 잠재위기학생으로서 준위기학생은 전체 학생의 19.4% (1,444,749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집단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고위기학생은 남학생(5.1%)이 여학생(3.6%)에 비해 많고, 초등학생(2.3%)에서 중학교(6.4%)로 넘어가는 시기에 급격하게 많아지며, 일반계열(4.8%)보다는 직업계열(9.5%)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적 특성을 보았을 때 읍면지역(5.2%)과 대도시(4.2%)가 중소도시(4.5%)에 비해 많고, 가정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한부모가정(9.6%)과 재혼가정(11.6%)의 학생이 친부모가정(3.8%)의 학생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본드 및 가스 흡입, 성병 및 임신성매매, 성폭력과 같은 고위험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위기학생의 위험행동을 제어시키는 보호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학교의 긍정적 경험’으로 나타

난 것을 고려할 때, 학교 차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보호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의 인재를 기르는 핵심적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의미함.

2) 미래의 학교상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학교의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기 보다는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몰되어 있는 상황임. 끊임없이 나오는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문제와 개선,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 교과서의 문제, 고등학교 유형과 체제의 문제, 특성화 중학교의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학교 관련 사건과 사고의 해결에 힘을 쏟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사회와 학생의 변화속도에 학교조직과 교육이 지체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학교체제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변화가 필요함. 이는 기존 공교육 체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의 증가 등 공교육의 위기라 비판받는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최근 행복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학생들이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기존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일정 부분 포기하도록 요구받아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음.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임.

- OECD산하의 CERI(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는 2000년에 소수 전문가 집단의 모임, 대규모 세미나, 11월에 로테르담에서 열린 국제회의 등 일련의 학술행사들을 통해 20년 정도를 내다보는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 시나리오를 3개의 방향, 6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였음.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 중에서 세 가지 방향은 ‘현 체제 유지’, ‘재구조화’, ‘탈학교 지향’으로 설정하였고, 방향별로 2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²⁾.

〈표 II-13〉 CERI에서 구상한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

현 체제 유지 (status quo)	재구조화 (restructure)	탈학교 지향 (Destructure)
시나리오 1 견고한 관료제적 학교체제 강화	시나리오 3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5 학습자 네트워크
시나리오 2 시장경제 모델의 적용 확대	시나리오 4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6 교사의 탈출, 학교붕괴

자료: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CERI)(2001).
Educational policy analysis 2001, OECD, p. 121.

- 첫째, 현 체제 유지의 방향은 학교의 운영 원리가 그다지 변화하지 않은 채 현재와 같은 학교 제도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음. 둘째, 재구조화 방향은 학교교육이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새로운 기능과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음. 셋째, 탈학교 시나리오는 학교 제도가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고 학교체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약간의 암울한 방향임.

가) 현 체제 유지 방향

- 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나리오는 견고한 관료제적 학교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와 시장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보는

2) 이 부분은 류방란(2004).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CERI의 미래 학교 전망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계 리더들의 인식. 한국교육, 31(1), 21-45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시나리오가 있음.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의 기본 틀, 즉 학급 조직, 학교 졸업장의 가치 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1) 시나리오 1 : 견고한 관료제적 학교체제 강화

- 학교의 관료체제 유지 시나리오에서 체제 운영 방식은 하향식(top-down)의 경향이 뚜렷함. 따라서 학교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교의 혁신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학생과 학부모, 언론 등을 통한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음. 학력이 학생들의 진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학생들이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은 계속 길어지게 됨. 이런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은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학교교육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지만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근대적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혁신이 불가능하게 됨.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나라의 학교들은 여전히 산업화시대의 산물인 근대적 학교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2) 시나리오 2 : ‘시장경제 모델의 확대’를 통한 현 체제 개선

- 시장 모델은 관료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체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계적으로 상당히 적용되고 있는 상황임. 기본적으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개선해 나가려 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학교체제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음. 경직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교육을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학교의 설립, 조직 운영 방식, 교육활동과 평가, 학교제도의 변화, 학교의 폐쇄가 더 유연하게 이루어지게 됨.
-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시장적 접근은 획일적 공교육 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이 시장원리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학교 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존 체제의 비효율성과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정부는 재정적 지원 축소, 자발성 촉진, 탈규제화, 잠재 시장의 개방 등을 통하여 교육의 다양화와 새로운 교육공급자들의 등장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학교체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음. 이러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과 규제는 약화되고 학습자와 교육 공급자 간의 새로운 지표, 척도, 인증이 확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운영의 '효율성'과 과정과 결과의 '질'이 중요한 기준이 됨.

- 학교체제의 다양화, 학교의 민영화, 교육선택권 확대(바우처 시스템 등) 등 다양한 경영 체제가 일반화되고 홈스쿨링이 확산됨. 고용 및 교육을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에 경쟁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대되면서, 불평등과 소외가 실질적으로 용인되거나 공교육 체제가 격하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교사 집단의 특수성이 완화되고, 다양한 경력을 지닌 전문직업인들이 정규직·시간임시직 형태로 교수 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교수의 질이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나) 재구조화 방향

- 학교 재구조화의 방향은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함. 학교가 가지는 견고한 경계, 학교의 교육독점권에 대한 도전, 사회의 다른 부문과의 연계가 강조됨.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타 영역과의 연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음. 학교는 사회 센터로서 타 영역과의 연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모습을 지니거나, 혹은 다양한 방식의 학습이 가능한 학습 조직으로 탈바꿈될 수도 있음.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는 시장 모델과 유사한 면모가 있으나 재구조화 시나리오에 학교교육이 실현하여야 하는 공공선에 대한 합의를 매우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학교 졸업장이 지녀왔던 독점적 권한은 여전히 상당 정도의 가치는 유지되나 현 체제 유지 시나리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됨.

(1) 시나리오 3 : 학교가 핵심적인 사회센터로의 구조화

○ 이 시나리오에서 학교는 가치관의 위기를 겪는 사회 속에서 공통된 가치를 전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루로 인정받게 됨. 개인의 학습을 개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동체를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약화될 수 있으며, 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우선순위가 주어짐.

○ 학교는 평생학습을 통해 형성할 지식, 기술, 태도, 가치에 대한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을 쌓는데 집중하게 됨. 정규 교육기간의 표준이 바뀔 수 있으며, 모든 연령 학습자의 참여에 대한 실험이 증대할 것임.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목적 및 전문성에 대해 관련 집단들 간에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지역사회에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재정이 필요하고, 학교가 학력주의에서 해방되기 위해 계속교육의 기회 확대와 능력 인정이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교원의 지위는 높지만 평생 직업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와 지역 사회의 책무가 결합되면서 그 역할이 복잡해질 수 있음. 교원의 다양화에 따라 교원의 자격과 지위, 계약 종류와 조건이 다양해지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 지역사회 활동가, 학부모 등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음.

(2) 시나리오 4 : 지역의 핵심적인 학습조직으로 재구조화

○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학습조직에서는 학문적, 예술적, 능력 개발을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으며, 교육과정과 평가 형태에 있어서 실험과 혁신이 일반화됨. 교사 및 전문가들이 대체로 고도로 동기화되어 있고, 학습 집단은 소규모이며, 개별활동, 집단활동, 네트워킹을 통해 구성원 모두 전문적으로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활동함.

○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는 고도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교육

을 상정할 수 있음. 모두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화, 다양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육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체제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는 평등 이념에 기초하여 구성원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주도하는 수평적·팀 지향적 조직으로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고부담의 업무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음. 교원들은 사회 센터로서의 학교 시나리오에서보다 더 전문적이고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나 교원으로서만 활동하지는 않으며 다른 직업군과의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

다) 탈학교 방향

- 탈학교 방향은 근대적 학교체제의 소멸을 의미함. 특히 학습자 네트워크 시나리오는 일찍이 일리치가 예언하였던 것과 흡사하게,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학습이 누구와 어디에서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임. 일리치가 탈학교 사회라는 저서를 발간하였을 때보다 정보화 인프라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오늘날 그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있음. 한편 학교 붕괴 시나리오는 교사 부족이라는 미국과 유럽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교원이 우대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다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

(1) 시나리오 5 : 학습자 네트워크가 학교를 대신함

- 이 시나리오에서는 근대적 학교제도가 불평등과 사회·문화적 재생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봄. 인터넷을 비롯하여 값싸고 강력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안적 학습의 가능성들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학교는 교육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잃게 되고 점점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임.

- 학습자들의 학습은 '학교'라는 특별한 장소나 '교사'라는 특정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개별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학습자, 부모,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임. 이러한 변화는 ICT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정규교육과 사회교육 간의 경계도 상당히 모호해짐. 교사와 학생, 부모와 교사, 교육과 지역사회 간의 구분은 희석되거나 없어지고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집단을 연결함. 새로운 학습 전문가가 등장하고 이들은 유선을 통한 도움 제공(예: 전화를 통한 학습관리), 가정 방문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함.

(2) 시나리오 6 : 교사부족, 충원 위기로 인한 학교 붕괴

- 이 시나리오는 실제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확산되고 가속화될 것임을 예상하는 것임. 사회적 발달로 인해 학교교육에 요구하는 기대는 점점 커지고,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는데 반하여 교사에게 주어지는 보수는 많지 않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교사가 부족할 경우 기존의 교육과정 구조는 심각한 압력을 받게 됨. 교사 부족에 대한 대응은 성취 기준 저하에 대한 공공의 압력을 가하거나 학급을 대규모화 하는 등 전통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중등 이후 수준의 교육에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하고 강의, 학생 집단 구성, 가정 학습, ICT 등을 여러 방식으로 혼합하는 등 혁신적·조직적 대응일 수도 있음.
- 결과적으로 교원의 보수를 높이게 될 수 있지만, 한정된 교육재정 아래 교사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교육 여건의 악화와 교사 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교사의 직업적 매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 해외에서 교사를 충원하거나 은퇴 교사 등 노련한 교사들을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지만 교사 부족이 심각하거나 학교 사회의 갈등이 심한 곳에서는 더욱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없음. 교원 노조나 단체의 역할

이 증가할 수 있고, 학교의 수업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준 전문적인 아동 관리직이 등장하며 대안적 교육이 발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교는 소멸하게 된다는 것임.

3) 미래 학교의 교육평가

가) 새로운 교육평가의 필요성

- 국내 사회구조 및 경제유형 그리고 국제 협력체제에 있어서의 변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됨에 따라, 다가오는 시대의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유능하게 경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함. 특히 한국교육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시대 사회적인 과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며 표현하게 하고, 함께 협력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각자가 지닌 소질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임.
- 이러한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풀이 위주,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서 폭넓은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적절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함. 또한 수업 방식은 ‘지식전달형’에서 ‘협력학습형’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에 대한 평가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인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도우며 학습하는 과정과 결과를 함께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여러 선진 국가들에서도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선정하고 이에 맞추어 새로운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즉 핵심역량 위주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종류의 교육을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동시에 교육과정의 변화가 교육 현실 개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 및 기법이 개발되어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흔히 ‘평가개선 우선의 전략’이라고 부름(류성창 외, 2012).

- 이에 따라 많은 국제기구와 교육연구기관들은 21세기 역량의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있음. 예를 들어, OECD의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는 2015년부터 미래역량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시스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후원하는 ATC21S(Assessment &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연구 프로젝트 또한 역량 중심의 평가 개발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고 있음. 또한 미국, 영국,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여러 선진 국가들에서도 미래역량을 교과서와 교육평가에 반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이혜영, 2011).

- 본 절에서는 시대적인 흐름과 요청 속에서, ‘평가개선 우선 전략’에 따라 미래 학교의 교육평가가 지향해야 할 바를 탐색하고자 함. 즉,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생들이 단순 암기 및 수동적 교수·학습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폭넓은 사고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인지적·비인지적 역량을 아우를 수 있도록 21세기 핵심역량을 실질적으로 측정·평가하면서 동시에 학습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함.

- 이러한 미래 학교에서의 교육평가는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1) 개별 학생의 필요와 흥미를 파악하고 각자의 소질과 잠재력에 맞는 학습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며 2) 학습과정을 중시하여 각 학생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면서 변화 정도를 측정하고 3) 학습목표의 달성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피드백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미래 교육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 성태제(2006)는 미래 학교에서의 교육평가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 1) 상대비교평가에서 성장참조평가로: 한 학생의 성취를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진행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를 의미함.
- 2) 지필검사에서 컴퓨터화 능력적응검사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학생의 능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실시함. 이러한 방안은 IT 및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을 기술적 근거로 실현될 수 있음.
- 3) 선다형 검사에서 수행평가로: 선다형 문항은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제해결과정을 측정할 수 없고 개인들의 복합적 정신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각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문제해결의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질적 평가가 요구됨.
- 4) 검사에서 총평으로: 총평(assessment)이란 가능한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러한 다양한 증거에 기반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을 의미함.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의 능력 자체가 단편적이기보다는 여러 핵심역량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 평가체제인 총평의 도입이 바람직함.
- 5) 일회적 평가에서 지속적 평가로: 학생에 대한 평가가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체계화하고 평가 주기를 정례화하여 개인의 변화정도와 성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6) 고전검사이론에서 문항반응이론으로: 문항반응이론은 고전검사이론과 달리 피험자 집단의 속성에 좌우되지 않는 문항 고유의 속성을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떤 검사가 피험자 능력 수준에 따라서 측정의 정확도가 다른 정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컴퓨터 능력적응검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님. 따라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 체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 허경철(2013)은 미래 교육평가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서 평가의 목적, 평가의 대상(내용), 평가의 주체, 그리고 평가의 방법이라는 네 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음.

- 평가의 목적

- 1)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기여: 미래의 학교교육 평가는 선발이나 관리라는 사회적 목적보다는 교수와 학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 즉 선발을 위한 평가가 전혀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학교에서는 평가의 최우선 순위를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두어야 함.
- 2) 학습효과의 극대화 수단: 미래 학교에서의 평가는 학습에서 분리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학습의,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서의 과정으로 보아야 함. 즉 학습의 효과를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대상(내용)

- 3) 지식의 창의적 활용과 실천적 수행 능력 강조: 21세기 미래의 학교교육 평가에서는 기억하고 있는 지식의 양보다는 그러한 지식을 새로운 문제나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이 평가의 주안점이 되어야 함. 즉 내용적 지식(content knowledge)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보다,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통합, 적용,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함.
- 4) 전인적 평가: 지적영역뿐 아니라 정의적 및 심동적 영역 등 학생 성장과 발달의 전 영역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 21세기 사회에서의 성공적 삶은 지적 고등사고능력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정의적·심동적 역량을 요구함.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개인보다는 팀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빈번한 미래에서는 타인과 협동하여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감성 능력이 매우 중요함.
- 5) 다양한 대상에 대한 평가: 학생뿐 아니라 학생의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관련 모든 요소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

교사의 수업 활동,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 학교의 운영, 학교의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 등 모든 교육관련 요소들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주체

- 6) 평가 주체로서의 학생의 역할 강조: 미래의 교육평가에서는 평가의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학생은 평가의 주체로서 자신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밖에도 동료 학우들에 대한 평가, 교사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7) 교사별 질적 평가 확대를 위한 전문성 및 평가권 강화: 교수, 학습 및 평가가 하나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가 교사의 개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도 교사의 개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미래의 교육평가에서는 교사별 평가가 더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사의 평가전문성 및 학생에 대한 평가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평가의 방법

- 8) 형성평가에 대한 강조: 학습과 교수에 기여하는 결정적 장치로서 형성평가가 미래의 교육평가에서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효율적·효과적 형성평가 방안을 학교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9) 수행평가의 강화: 미래의 평가에서는 수행평가 특히 포트폴리오 방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의 사용능력 자체가 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수행평가와 같이 '지적 수행의 구체적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강화되어야 함. 특히 포트폴리오 방식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료들을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작성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능동성이 보장됨.

- 10) 능력참조평가 혹은 성장참조평가의 도입: 능력참조평가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 혹은 잠재성에 비추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두는 평가이며, 성장참조평가는 교육의 진행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성장하였느냐에 관심을 두는 평가임.
- 11)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평가: 미래의 평가에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기기가 보다 다양하고 광범하게 활용되어야 함.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검사(tailored testing)는 미래지향적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담은 문항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컴퓨터를 통한 가상현실 속에서 수행평가를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12) 인지주의 학습이론 및 사회적 상황주의 학습이론에 입각한 평가: 이는 평가의 핵심이 개인의 복잡한 인지 과정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공동체에서의 참여능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을 의미함.

○ 류성창 외(2012)는 역량 중심 대입제도 도입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을 논의하고 있음. 학교에서의 학생에 대한 평가가 대입과 전혀 무관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논의는 미래지향적 평가를 지향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음.

- 질적 평가의 공식 대신 평가화: 교사의 직접적 관찰과 판단에 의한 질적 평가는 그 신뢰도 측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연수와 공정하고 타당한 질적 평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높은 수준의 양호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하여, 교사가 직접 학생들을 질적으로 평가하여 학생부에 기록한 내용이 내신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서 다음 7가지를 들 수 있음.

- 1) 교사의 질적 평가 전문성의 제고: 현직 교사에 대한 치밀하고 철저한 연수를 통한 평가 전문성 향상, 그리고 예비 교사를 위한 질적 평가 관련 과목과 실습 기회 확대가 필요함.
- 2) 업무 재구조화를 통한 교사의 평가환경 개선: 잡무로 표현되는 교사의 행정관련 업무 등과 같이 교육활동 자체에 지장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여, 각 교사가 교수학습 활동이나 학생평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교육과정의 학습 난도와 양의 적정화: 현재 교육과정의 난도와 양은 지나치게 높고 많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초·중·등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교육과정의 난도와 양에 대한 재정립 등 개선이 필요함.
- 4) 질적 평가의 중요성과 현실성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설득: 질적 평가를 실제 적용해 보면 학생의 반응의 질적 차이가 생각보다 가시적이며 따라서 충분한 관심과 여건이 주어진다면 평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 5) 수능시험의 과목 수 축소와 기초능력 난이도 수준으로의 조정: 질적 내용의 교수학습과 평가는 학생들과 교사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준의 수능을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수능의 과목 수를 3과목 정도로 대폭 축소하고 난이도 역시 기초능력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 6) 내신 평가에 있어서 단순 양적평가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 학교의 내신 평가를 문제풀이 위주로 실행하는 나라는 실제 그렇게 많지 않음. 초·중·등학교 수준뿐만 아니라 중등교육에서도 점차 모든 내신 평가를 수행평가와 관찰평가 기반의 질적 평가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등교육으로 갈수록 교과내용의 심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양적 평가가 측정하고 선도할 종류의 교육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함.
- 7) 질적 평가의 내용과 공적 기준 확립: 질적 평가는 그 평가의 기준(rubrics)이 명확해야 현실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음. 이러한 평가 기준 제작의 역할을 교사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심

도 있고 전문성 있는 연구를 통하여 평가의 내용, 기준을 확립하고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공학을 활용한 새로운 교육평가 도구의 개발: 컴퓨터 프로그램과 인터넷 접속을 기반으로 하는 질적 평가 위주의 교육평가가 요구되고 있음. 수행평가를 개별 학교에서 알아서 시행하라는 현재의 방식은 개정되어야 하며, 수행평가와 같은 질적 측정의 평가 도구, 기준, 점수 배분 등이 명확히 제시된 도구를 패키지 형식으로 현장 교사에게 배포해야 함.
- 입학사정관 제도의 확대와 개선: 현재 입학사정관 운영은 여전히 학생의 성적 수준이나 성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본 글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경우, 미래역량이 측정이 가능하며 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그러한 평가 자료를 입학사정의 중심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입학사정관 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다) 선진 외국의 교육평가 동향

- 교육실제의 개선을 위한 ‘평가개선 우선 전략’하에서 새로운 평가 방법 및 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다시 말하여, 교육평가 개혁을 통해 교육 현실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는 국외 사례로는 PISA 및 ATC21S의 경우를 들 수 있음. 또한 국가 수준의 구체적 사례로는 뉴질랜드와 미국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음.
- OECD 산하 교육국(Early Childhood and Schools, ECS)에서 운영하고 있는 PISA는 2012년 현재 6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OECD, 2012), 대부분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평가 주기는 3년으로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 최근 2012년도에 실시되었고, 이후 2015년도에 실시될 예정임. 평가 영역은 읽기, 수학, 과학이며 2015년부터는 문제해결력 영역이 도입되며 ‘협동 문제 해

결(컴퓨터 기반)’과 관련된 문항들이 개발 중에 있음. 이는 개인보다는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크고 이러한 특성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윤샘이나, 2012)과 협동능력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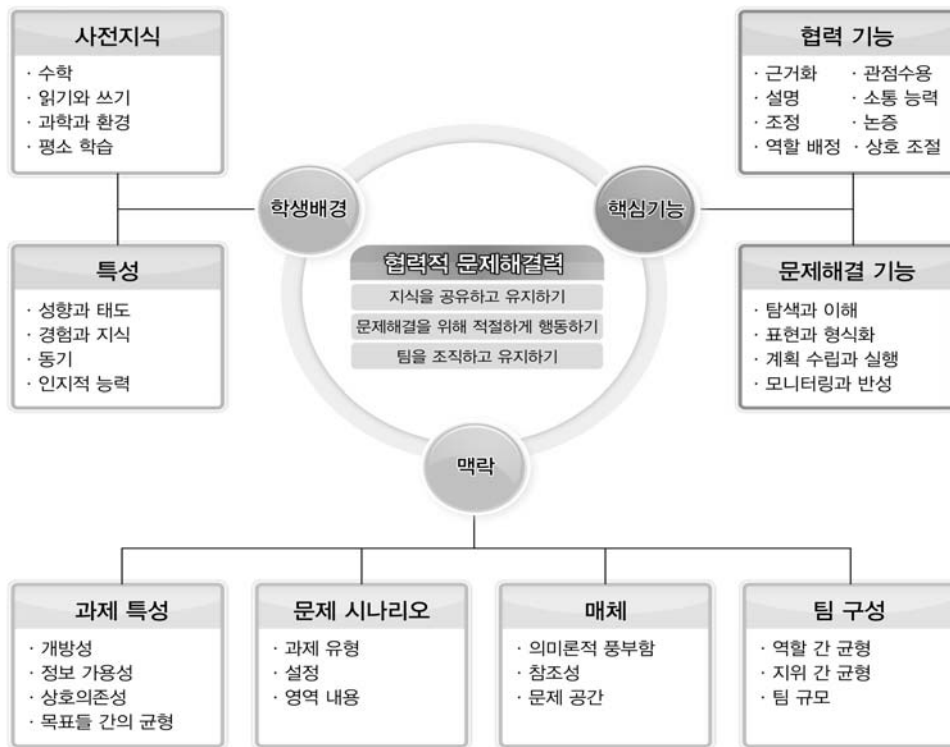
- PISA 2012에서는 문제해결력 영역이 본시험 중 하나의 영역으로 포함되지 않고 또 다른 형태의 시험으로 시행됨. 2003년에 추가되었다가 이후 누락된 바 있는 문제해결력 영역은 PISA 2015에서 다시 본시험의 영역으로의 채택이 추진 중임(정환보, 2012). 문제해결력 영역에 대한 발전경위를 살펴보면 <표 II-14>와 같음.

<표 II-14> PISA 문제해결력 영역의 발전경위

관련 시험	내용
PISA 2003	문제해결 (시험지)
PIAAC	ICT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컴퓨터 기반)
PISA 2012	역동적인 문제 해결 (컴퓨터 기반)
PISA 2015	협동 문제 해결 (컴퓨터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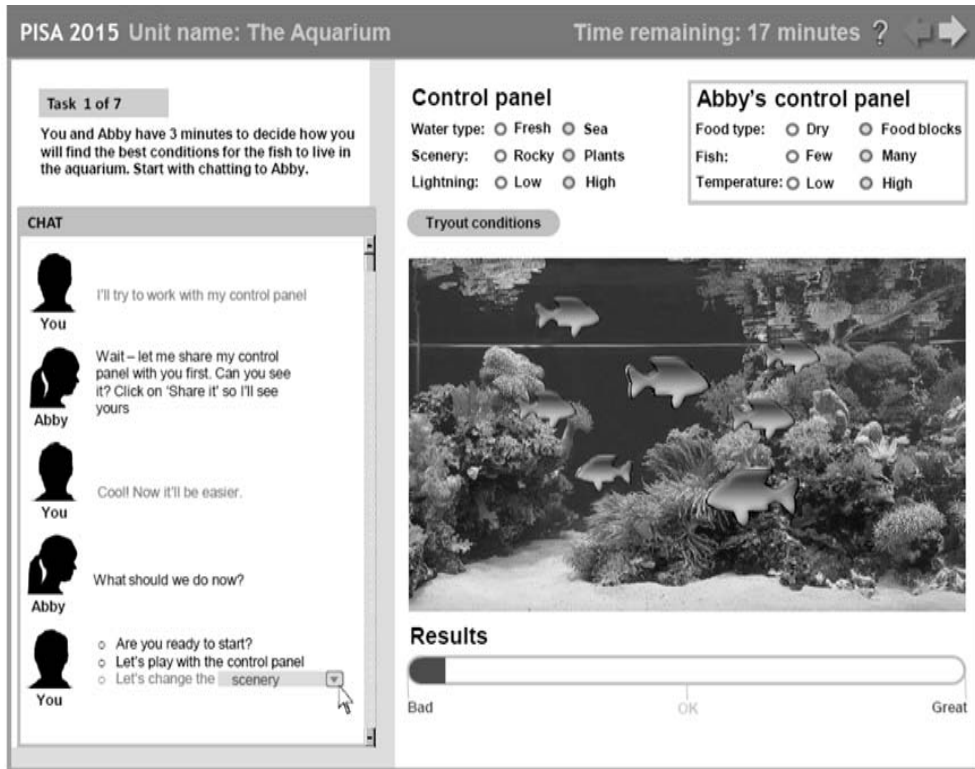
자료: Davidson (2012).

- 융합형 평가에서는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되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닌 개인들이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PISA 2015에서는 ‘협동문제해결’을 둘 이상의 개인들이 해결책을 얻기 위해 각자 이해한 바를 공유하고 노력하며 지식과 기술을 모으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PISA 2015 평가들에 나타난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의 요소와 과정은 다음 [그림 II-7]과 같음.



[그림 II-7] PISA 2015 ‘협력적 문제해결력’ 요인과 과정 (OECD, 2013)

- [그림 II-8]의 예시 문항에서 볼 수 있듯이 PISA 2015의 협동 문제 해결 평가에서 피평가자들에게는 개인별로 서로 다른 정보가 주어지고, 피평가자들은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서로 공유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함. 예를 들어 물고기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지닌 수족관 만들기라는 과제에서 피평가자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정보를 공유하며 수족관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변화시켜나가야 함. 이 과제는 수행 결과뿐만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도 여러 평가 요소들을 이용한 평가가 이루어짐.



[그림 II-8] PISA 2015 '협동 문제 해결력' 문항 예시

- 다음 <표 II-15>는 PISA 2015의 협동 문제 해결에서 평가하는 12개의 능력을 행렬의 형태로 제시한 것임.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A1부터 D3까지 12개의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이분 또는 다분 문항으로 활용함으로써 협동 문제 해결 과제에 참여하는 개인의 역량을 측정하게 됨. 즉, 올바른 해결책에 도달했는지 여부보다는 개인들이 참여한 협동적 행동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평가하는 방식이며 인지적인 능력과 함께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사회적 능력이 함께 평가됨. 또한 함께 협동해야 할 팀의 구성원에 따라 개인의 역량이 다르게 발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컴퓨터 기반의 대화 에이전트(computer-based conversational agents)를 활용하여 같은 팀 구성원의 역량이 통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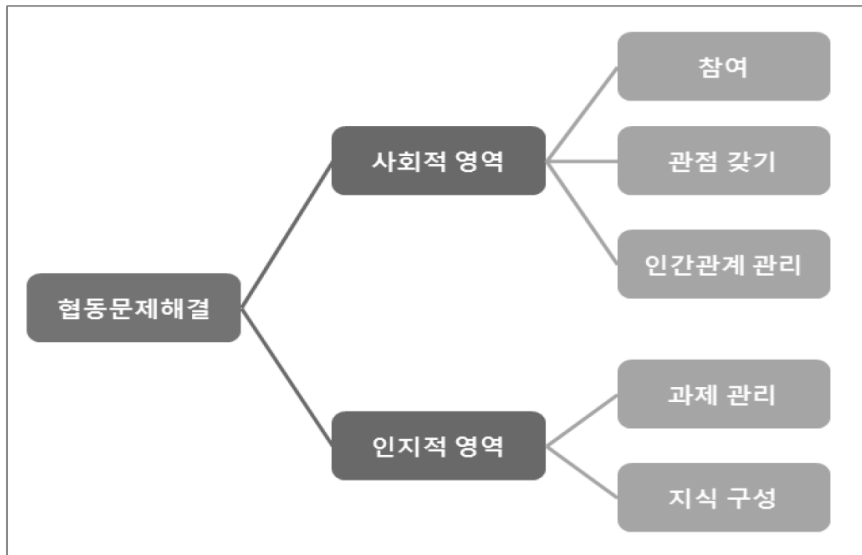
〈표 II-15〉 PISA 2015 협동 문제 해결 능력 행렬

	(1) 각자 이해한 바를 공유하고 유지하기	(2)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행동 취하기	(3) 팀을 조직하고 유지하기
(A) 탐구하고 이해하기	(A1) 팀 구성원의 관점과 능력을 발견하기	(A2) 목표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적 상호작용의 종류를 찾아내기	(A3) 문제 해결에 있어 역할을 이해하기
(B) 대표하고 공식화하기	(B1) 각자 대표하는 바를 공유하고 문제의 의미를 협상하기(공동 기반)	(B2) 완수해야 할 과업을 찾아내고 묘사하기	(B3) 역할과 팀의 조직을 묘사하기(의사소통 규약/참여 규칙)
(C) 계획하고 실행하기	(C1) 취해야 할, 또는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팀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기	(C2) 계획을 실행하기	(C3) 참여 규칙을 따르기 (예: 다른 팀 구성원들이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촉발하기)
(D) 감시하고 반영하기	(D1) 공유한 이해 내용을 감시하고 바로 잡음	(D2) 행동의 결과를 감시하고 문제 해결의 성공을 평가하기	(D3) 감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팀의 조직과 역할을 조정하기

○ ATC21S는 현재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개선하려는 국제동향을 이끌고 있는 학술단체로서 지필고사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교육 전문가 250여 명이 참여하여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만들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주로 만 11세에서 만 15세 사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협동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며(남윤서, 2012), 2009~2012년 동안 평가 도구 개발을 완료하여 2012년 말에 시범국가를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2013년 초에 자료를 공개하여 모든 국가,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ATC21S의 특징은 학생들의 협력적 문제해결력(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skills, [그림 II-9] 참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적절한

학습 개입 및 중재를 하도록 하며, 또한 질적 평가를 통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점임(ATC21S 웹사이트, 2013).



[그림 II-9] ATC21S '협력적 문제해결력' 세부 영역

- ATC21S 프로젝트에서는 10가지 역량들을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가르치고 평가해야 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평가의 원리를 12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음(Binkley et als.2012; 허경철, 2013에서 재인용).

- 1) 평가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습의 성격(본질)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그러한 지식이나 기술이 어떻게 초보자 수준에서부터 전문가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가는가에 대하여 명시할 수 있어야 함.
- 2) 평가의 대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adaptability)이 포함되어야 함. 21세기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므로, 이전의 행위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고,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후의 행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함.

- 3) 평가는 주로 수행기반이어야 함. 21세기에 필요한 기술의 핵심은 새로운 상황에서 내용적 지식(content knowledge)을 통합, 종합, 적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는 내용적 지식을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그리고 분석적 과제에 적용하는 수행적 능력을 주 대상으로 하여야 함. 내용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수행 능력이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러한 능력들을 잘 길러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4) 평가의 과정 자체 내에 학습의 기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평가에 포함되는 과제나 문항을 잘 선정하고 구성한다면 학생들은 그러한 평가문항에 반응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평가는 평가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과 교수의 효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함.
- 5) 평가는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하는 지식이나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이 사고하는 과정과 특징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그 결과는 학생들의 발달을 위한 교수와 학습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음.
- 6) 평가는 공정해야 함(Be fair). 평가는 모든 학생이 자신이 아는 바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하며, 평가에서 재고자 하는 능력을 제대로 측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가능한 한 제거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7) 평가는 심리측정학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함. 평가의 전 과정은 의사결정을 타당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산출할 수 있도록 심리측정학적으로 양호해야 함.
- 8) 평가는 평가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만약 평가의 목

적이,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21세기 기술들을 얼마나 잘 습득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평가는 수업/교수의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함.

- 9) 평가는 평가의 결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함. 평가의 결과는 보다 좋은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학교행정가, 정책결정자, 그리고 교사들에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10) 평가의 결과는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만약 교사, 행정가, 학생, 부모 및 기타 사람들이 평가의 결과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며, 이해할 만하고, 사용할 만한 평가의 결과물을 산출하고, 이러한 산출물에 접할 수 있게 준비될 필요가 있음.
 - 11) 평가는 학생들과 교육자들의 학습과 교수의 역량을 높여줄 수 있어야 함. 평가의 결과는 학생, 교사, 행정가, 기타 교육관계 인사들에게 학생들의 '교육성취의 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잘 밝혀줄 수 있어야 함.
 - 12) 평가는 교육의 여러 중요 요소들이 잘 통합된 종합적인 체계 내의 한 부분으로서 시행되어야 함. 여러 수준의 단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육의 위계 체계 내의 일부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든 학생의 학습의 개선이나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 시행되어야 함.
- ATC21S에서 개발하는 평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화 평가 방법 (Computer-Assisted Testing, CAT)을 사용하며 Web 3.0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학생 개개인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예를 들어, 교사가 협동 과제를 제공하면 학생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얻고 과제를 해결해 나감. 사이트에는 학생들이 언

제 접속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비롯한 과정 데이터가 남게 되며, 교사는 이를 검토하여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우수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를 평가하게 됨. 이 결과는 이후 교사가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남윤서, 2012). 특기할 만한 사항은, 비록 CAT 방식에 기반하여 평가 과정이 이루어짐에도 ATC21S에서는 학생에 대한 평가는 결국 인간평가자에 의한 질적 평가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임 (Griffin et al., 2012: 91-95).

- ATC21S에서 개발한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문항의 예로서 [그림 II-10]에서 제시된 'Webspiration' 문항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 문항은 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함께 시를 읽고 협력적으로 해석 및 분석을 시도하도록 함. 협력적 문제해결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팀 구성원들 간의 역할 분담이며, 문항 제시 이전에 각자의 역할을 정하게 됨.



[그림 II-10] ATC21S의 협력적 문제해결력 평가 예시(Griffin, 2012)

- [그림 II-9]에서 언급된 사회적 영역(Social Skills)과 인지적 영역(Cognitive Skills)을 평가하기 위한 채점기준표(Rubrics)는 다음 [그림 II-11]과 [그림 II-1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음. 교사들은 학생의 수행 기록에 기초하여 각각의 기능 영역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바에 따라 Low, Middle, High 중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lement	Indicator	Low	Middle	High
Participation				
1.Action	Activity within environment	No or very little activity	Activity in familiar contexts	Activity in familiar and unfamiliar contexts
2.Interaction	Interacting with, prompting and responding to the contributions of others	Acknowledges communication	Responds to cues in communication	Initiates and promotes interaction or activity
3.Task completion	Undertaking and completing a task or part of a task individually	Maintains presence only	Identifies and attempts the task	Perseveres in task as indicated by repeated attempts or multiple strategies
Perspective taking				
4. Adaptive responsiveness	Ignoring, accepting or adapting contributions of others	Contributions or prompts from others are taken into account	Contributions or prompts of others are adapted and incorporated.	Contributions or prompts of others are used to suggest possible solution paths
5.Audience awareness (Mutual modelling)	Awareness of how to adapt behaviour to increase suitability for others	Contributions are not tailored to participants	Contributions are modified for recipient understanding in the light of deliberate feedback	Contributions are tailored to recipients based on interpretation of recipients' understanding
Social regulation				
6.Negotiation	Achieving a resolution or reaching compromise	Comments on differences	Attempts to reach a common understanding	Achieves resolution of differences
7. Self evaluation (Metamemory)	Recognising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Notes own performance	Comments on own performance in terms of appropriateness or adequacy	Infers a level of capability based on own performance
8.Transactive memory	Recognising strengths and weaknesses of others	Notes performance of others	Comments on performance of others in terms of appropriateness or adequacy	Comments on expertise available based on performance history
9.Responsibility initiative	Assuming responsibility for ensuring parts of task are completed by the group	Undertakes activities largely independently of others	Completes activities and reports to others	Assumes group responsibility as indicated by use of second person plural

[그림 II-11] ATC21S의 Rubrics 예시: Social Skills 영역(Griffin, 2012)

Element	Indicator	Low	Middle	High
Task regulation				
11. Resource management	Manages resources or people to complete a task	Uses /Identifies resources (or directs people) without consultation	Allocates people or resources to a task	Suggests that people or resources be used
15. Collects elements information	Explores and understands elements of the task	Identifies the need for information related to immediate activity	Aggregates information	Organises information
13. Systematicity	Implements possible solutions to a problem and monitors progress	Trial and error actions	Purposeful sequence of actions	Systematically exhausts possible solutions
17. Tolerance for ambiguity/tension	Accepts ambiguous situations	Inaction in ambiguous situations	Notes ambiguity and suggests options	Explores options
14. Organises (Problem analysis)	Analyses and describes a problem in familiar language	Problem is stated as presented	Problem is divided into subtasks	Identifies necessary sequence of subtasks
10. Set goals	Sets a clear goal for a task	Sets general goal such as task completion	Sets goals for subtasks	Sets goals that recognise relationships between subtasks
Knowledge Building				
20. Knowledge acquisition	Follows path to gain knowledge	Accepts information as given	Searches for and interrogates information	Creates and evaluates information Tests generalisations of information
19. Relationships (Represents and formulates)	Identifies connections and patterns between and among elements of knowledge	Focused on isolated pieces of information	Links elements of information	Formulates patterns among multiple pieces of information
12. Rules "if...then" (Planning and executing)	Uses understanding of cause and effect to develop a plan	Activity is undertaken with little or no understanding of consequence of action	Identifies short sequences of cause and eff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s understanding of cause and effect to plan or execute a sequence of actions • Plans a strategy based on a generalised understanding of cause and effect
18. Hypothesis "what if..." (Reflects and monitors)	Adapts reasoning or course of action as information or circumstances change	Maintains a single line of approach	Tries additional options in light of new information or lack of progress	Reconstructs and reorganizes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in search of new solutions

[그림 II-12] ATC21S의 Rubrics 예시: Cognitive Skills 영역(Griffin, 2012)

- 뉴질랜드는 2007년 교육과정(The New Zealand Curriculum)을 통하여, 5가지 핵심역량(사고하기, 언어·상징·텍스트 활용하기, 자기 관리하기, 대인 관계 맺기, 참여와 공헌하기; <표 II-16> 참고)을 도입하고 있으며(Hipkins, 2006), 이는 OECD가 제시하는 미래역량(양방향적으로 도구를 활용하기,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다양한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기)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음.
- <표 II-17>은 6년제 초등학교의 교과과정 중 한 학년도(4학기제)에 대한 예시로서, 핵심역량이 교과내용에 통합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16> 뉴질랜드 미래역량의 의미

핵심역량	의 미
사고하기 (Thinking)	정보, 경험, 아이디어들을 구성하고 조직하기 위해 창조적, 비판적, 메타인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
언어·상징·텍스트 활용하기 (Using Languages, symbols, and texts)	지식이 표현된 양식을 이해하는 것 맥락에 따른 개념, 숫자, 이미지, 동작, 비유, 은유, 테크닉 등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
자기 관리하기 (Managing self)	‘할 수 있다’는 태도 스스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진취적이며 지력이 있고 믿음직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
대인 관계 맺기 (Relating to others)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하는 것
참여와 공헌하기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공동체(가족, 학교, 지역, 동호회 등)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표 II-17> 뉴질랜드 초등학교의 교과과정과 핵심역량 통합 과정 예시

구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주제	과학과 환경	연극 무대에 서기	시간, 지속성, 변화	음식과 영양
학습영역 (필수교과영역)	과학과 환경	예술 (고학년-연극시연, 저학년-대본작성)	사회, 수학 (고학년-빛, 저학년-이동)	건강과 체육교육, 기술
주요 미래역량	참여와 공헌	자기 관리하기	사고하기	대인 관계
	언어·상징·텍스트 사용하기			

- 이러한 핵심역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뉴질랜드는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 및 질적 수준의 담보를 위하여 다양한 평가 사이트와 평가를 위한 자료를 교육부에서 보급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초등학교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제정한 교과과정은 있지만 공식적인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수업 내용과 평가는 교사 재량에 맡김. 중학교(7~10학년) 수준의 경우, 교사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평가 도구(Assessment tools)를 사용하여 시험 문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상세한 해설 자료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준비에 대한 큰 부담 없이 평가 시행이 가능함. 평가 문제은행(Assessment Resource Banks; ARBs)에서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한 문항의 예시는 [그림 II-13]과 같음.

<p>과학 과제(과학 작업) (MY5359)</p> <h3>설탕 용해</h3> <p>설탕이 용해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일해보자.</p> <p>조와 재키는 어머니를 위해 아침에 커피 한잔을 탔다.</p> <div data-bbox="244 1044 705 1260"> </div> <p>만약에 커피에 설탕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p> <p>위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u>그림으로 그리고</u>, 다른 사람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도록 <u>설명(레이블)</u>을 추가하십시오.</p> <div data-bbox="244 1377 709 1597"> </div>	<div data-bbox="782 872 1163 1097"> </div> <p>핵심역량: 이 활동은 핵심역량 중 언어·상징·텍스트 활용하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된 그림은 학생들이 용해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복잡한 과학적 아이디어들을 전달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사용한 규칙으로 "그림"이란 기법을 이해하고, 그림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 학생들이 입자에 대해 알고 설명(레이블)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단서와 확대 해석이 가능한 자료를 제공한다. - 이 과제를 기획할 때, '궁금증과 호기심'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한다.
-------------------------------------------------------------------------------------------------------------------------------------------------------------------------------------------------------------------------------------------------------------------------------------------------------------------------------------------------------------	---------------------------------------------------------------------------------------------------------------------------------------------------------------------------------------------------------------------------------------------------------------------------------------------------------------------------------------------------------------------------------------------------------------------------------------

[그림 II-13] 온라인 평가 문제은행(ARBs)의 문항 예 - 과학교과

- 2013년 현재 미국은 이전 Bush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No Child Left Behind정책이 Obama 정부에 이어져서 주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개별 학교의 책무성 확인과 지역 교육구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다만 2002년부터 10여 년간 시행되어 온 NCLB는 ‘시험점수를 기반으로 한 책무성 제고 정책’에 대한 현장의 깊은 불만과 불신이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주 단위 시험들이 대개 선다형 문항 위주의 검사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진정한 능력을 측정하기보다는 피상적인 문제풀이 능력만 측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음.
- 즉,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사고와 토론, 프로젝트와 글쓰기 위주의 초중고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NCLB적 평가가 학생들에게 진정한 지식과 기술(real student knowledge and skills)을 가르칠 수 없게 한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교육과정 기준(The Common Core State Standards, 이하 CCSS)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평가하여 학급에서 가르치는 교사에게 적절한 정보를 주고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 교육부는 Race to the Top Assessment라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 단위 시험 개선에 나서는 주에게 특정 정책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참여한 주들은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묶여서 각각에 맞는 평가방법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음: 한 그룹은 26개 주가 참여하고 1억8천6백만 달러를 받아 새로운 평가를 개발하고 있는 The 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이며, 다른 그룹은 31개 주가 참여하고 1억6천만 달러를 받은 The SMARTER Balanced Assessment Consortium(SBAC)임.
- 두 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새로운 평가방식의 특징은 첫째, 총괄평가뿐만 아니라 형성평가도 포함하여 개발한다는 점, 둘째, 컴퓨터를 통

한 평가방법을 강조한다는 점, 셋째, 질적 평가를 강조하여 평가기준(rubric)의 개발과 인간채점자 훈련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 넷째, CCSS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대학과 직업(College and Career)에서 성공적으로 학업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역량의 성취를 돕는 평가를 지향한다는 점 등 임.

다. 미래의 교사상

1) 교사의 역할과 직무³⁾

가) 교사의 역할

- 역할은 사회에서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그 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인정받고 있는 포괄적인 행동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김기태 외, 2003: 99).
-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에 비추어볼 때, 교사의 역할은 교직의 사회적 위 상에 기초한 개념으로 교직과 타 직종과의 비교를 통해 교직의 특성을 드러내는 사회학적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몇 가지 유형으로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왔음(김이경 외, 2005: 18-20).
- 교사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역할, 학생과의 관계, 학교조직에서 기 대되는 역할 등을 기준으로 교사의 역할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주로 교사의 역할을 학급에서의 역할, 학교조 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사회적 측면에서의 역할 등 포괄적으로 제 시하고, 교사의 역할인식에 따라 역할이 다양하고 다면적이라는 점을 강조함(김기태 외, 2003; 박덕규 외, 2003).
 - 교사의 역할을 분석한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학교조직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일차적으로 교과지도

3) 이 부분은 김이경 외(2005), 정미경 외(2010) 등을 주로 참고하였음.

자로서의 역할, 생활 및 특별활동 지도자, 학급경영관리자, 연구 및 연수자, 행정사무관리자, 학부모 및 지역사회관계자로서의 역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전제상, 2000: 10-11).

○ 한편, 교사의 역할을 시대, 사회 변화와 관련지어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이 있음.

- 교사의 역할이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이에 따라 요구되는 교사의 주요 자질, 능력은 환경 변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해가는 것으로 이해됨.

-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 등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 능력을 제시한 OECD 보고서(1998, 2001)가 대표적임.

1) 전문적 능력(professional competence): 훌륭한 교사가 갖추고 있는 전통적인 특성으로 교과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말함. 교사의 전문적 능력은 지식과 이해의 중요한 원천으로 직전교육보다는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 갱신되어야 함

2) 교수법상의 노하우(pedagogical know-how): 평생학습 맥락에서 교사들은 정보의 기억, 시험성적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 학습동기화, 창의성, 협동을 포함한 고도의 기술을 전수하는 능력을 가져야 함.

3) 기술의 이해(understanding of technology): 교사 전문성의 새로운 핵심 특성으로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교수법상 잠재력을 이해하고 각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별개로 이용하도록 방치하기보다는 이를 교수전략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요구됨.

4) 조직에서의 능력과 협력(organizational competence and collaboration): 교사의 전문성은 개별적 능력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학습조직의 일부로서 기능하도록 개인별 능력을 통합해야 함. 교사 상호간의 학습의지와 학습 능력이 가장 중요함.

- 5) 융통성(flexibility): 교사 전문성에 대한 전통적 개념과 가장 직접적으로 갈등을 보일 수 있는 속성으로,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능력은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수용하여야 함. 교사의 전문성은 변화에 저항하는 변명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됨.
- 6) 이동성(mobility): 교사로서의 능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직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직이동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
- 7) 개방성(openness): 개방성은 교사들이 학습해야 하는 기술로서, 교사가 학부모, 또는 다른 성인과 교사의 전문적 역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동하는 속성으로 가장 도전적 과제중 하나임.

나) 교사의 직무

- 일반적으로 교사의 직무는 교사에게 기대되는 역할, 책임 등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 과업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최근 교사의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육을 보다 내실화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체계적으로 전개되어왔음(박영숙 외, 1999; 김이경 외, 2005; 정미경 외, 2010).
 - OECD 교원정책 검토단에서 우리나라 교원의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교원을 위한 직무수행 기준 설정을 권고한 바 있음(김이경, 2004).
 - 교사의 직무 수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 자체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피드백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교육의 질,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가 됨.
-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의 직무는 법령이나 자율적 민간 조직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교사자격기준 국가위원회(NBPTS)라는 자율적 전문 위원회의 강령 및 규정의 형식으로 교사직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정부와 교원노조간의 협약 문서, 프랑스, 일본, 호주는 법령에 근거하여 교사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교육관련 법규에 교사직무가 직·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박영숙 외, 1999; 박덕규 외, 2003; 김이경 외, 2005).

〈표 II-18〉 교사 직무 규정 관련 법령

영역	하위영역	내용	관련규정
학생 교육	교육과정 및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교육과정을 반영하며, 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매체, 교외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수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학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 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훈육과 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자치 활동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건강증진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와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하며, 체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보건법 제7조, 제9조, ■학교신체검사 규칙 제2조
전문성 신장	자질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제1항
복무	이행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공무원법 제56-61조, 제63-66조
	금지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실적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교육연구 및 담당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6조
대외 관계	전문/교원단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은 상호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

다) 교사의 직무영역을 분석한 선행연구

○ 주삼환 등(1996)은 학교업무를 학무업무(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일과 관계되는 일)와 관리업무(학생교육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교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업무는 교육과정 운영(학생 지도), 학사관리, 연구·연수활동, 사무관리, 시설관리, 기타(경영 업무)로 구분하였음. 이에 따른 교사의 직무 영역은 ① 학습지도, ② 생활지도, ③ 학급경영 및 특별활동, ④ 행정관리, ⑤ 대외관계, ⑥ 연구 및 연수, ⑦ 기타 등 7가지로 구분됨.

○ 박영숙 등(1999: 250)은 교육조직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중심으로 교사의 직무 영역을 구분하였는데, 이를 위해 교사들이 스스로 수행한 직무를 1일 근무일지로 작성토록 하게 한 후 이를 학교급별로 분석함. 이 연구에서 제시된 교사의 직무 영역은 ① 수업지도, ② 학생지도, ③ 학급경영, ④ 연수활동, ⑤ 학교교육과정 운영, ⑥ 지역사회 및 대외 관계 협력, ⑦ 행정사무, ⑧ 전문적 책임 수행 등 8가지임.

○ 정수현(2000)은 새빛학원 인사체제 개발을 위해 교직생활과 관련된 교사 직무영역을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교사의 개인적 특성은 교사의 직무 영역이라기보다 교사평가의 한 영역이라고 볼 때, 총 직무영역은 ① 학교경영 참여, ② 교과지도, ③ 특별활동지도, ④ 생활지도, ⑤ 학급경영, ⑥ 신교육 실천(새빛학원의 교육목적, 이념), ⑦ 인간관계, ⑧ 학부모와의 관계, ⑨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박영숙 등(1999)은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에 대한 합리적 운영방안, 적정 수업시수 설정을 위한 연구에서 교사 직무 영역을 간접적으로 규정함. 이에 의하면, 교사의 적정 수업시수는 교사의 근무여건, 교사의 직무를 고려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교사의 주요 직무는 ① 교육과정

운영, ② 학생 생활지도, ③ 학교 행사 주관, ④ 기타 행정 업무 등 4가지로 구분하였음. 여기서 교육과정 운영은 다시 수업자료 제작을 포함한 교재연구, 실제 수업, 수행평가를 포함한 학생 평가, 기타 특기 적성 교육으로 구분됨.

○ 박덕규 등(2000)은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사평가를 위한 교사 직무 영역을 ① 교육과정 편성, ② 교과지도, ③ 교과 외 활동지도, ④ 학생 생활지도, ⑤ 학교·학급경영, ⑥ 연구, 연수, 연찬, ⑦ 대외관계 및 기타 영역 등으로 구분함. 이후 다시 박덕규 등(2003)은 교사 직무를 교육청 수준, 학교수준에서의 직무로 구분하고, ① 수업운영, ② 생활지도, ③ 학생평가, ④ 자기연찬, ⑤ 학교행사 참여, ⑥ 학급경영, ⑦ 학교행정, ⑧ 가정, 사회협력 및 사회활동 영역 등 8개로 교사 직무 영역을 제시하였음.

○ 김이경 등(2005)은 우리나라 교사 직무 영역 분석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교사의 직무영역을 크게 7가지로 ① 수업 지도 영역, ②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생지도 영역, ③ 학급경영 영역, ④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영역, ⑤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영역, ⑥ 학교경영에의 참여 영역, ⑦ 전문성 신장 활동 영역 등으로 구분함.

○ 권혁운(2010)은 초등교사의 직무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교사직무 기준을 ① 교과지도, ② 학생지도, ③ 전문성신장, ④ 학교경영참여 등으로 구분하였음. 교과지도는 교과지도계획 수립, 수업운영, 학습평가의 내용을 포함하며, 학생지도는 생활지도, 특별·재량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급경영의 내용을 포함함. 전문성신장은 연구와 연수의 내용을 포함하며, 학교경영참여는 학교교육활동 지원과 협력관계 구축의 직무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정미경 등(2010)은 ① 교과지도, ② 교과 외 활동지도, ③ 생활지도, ④ 학급경영 및 학교경영 지원, ⑤ 학부모 및 대외관계, ⑥ 전문성 신장 등으로 교사의 직무를 제시함.

2) 교사의 역량

가) 역량

- 역량이란 조직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특성으로 20세기 초반부터 경영학, 심리학 등 주요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정치, 교육분야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현대적인 역량의 개념은 하버드의 심리학자 McClelland에서부터 시작됨. McClelland는 기존의 업무 성과나 직업에서의 성공을 예측하는 준거로서 활용되던 학업 적성 검사 혹은 성취도 검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서 실제의 성과로 나타나는 역량평가의 의미를 강조함(McClelland, 1993).
- 역량은 연구하는 분야에 따라 행동특성이나(Boyatzis, 1982), 내적 특성으로 정의되기도 하며(Spencer & Spencer, 1993), 성과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Holmes, 1995) 등 다양하게 정의됨. 역량을 보는 관점의 다양성은 다음 <표 II-19>와 같음.

〈표 II-19〉 역량에 대한 정의

학자	역량의 정의
Klemp(1980)	업무에서 우수한 수행을 하거나 뛰어난 결과를 내는 사람의 특성
McLagan(1982)	직무나 역할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특성
Fletcher(1991)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무활동을 수행하는능력
Corbin(1993)	바람직한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알아야 하는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능력
Dubois(1993)	역량은 삶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용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
Spencer & Spencer(1993)	직무나 상황에서 뛰어난 수행이나 준거 관련 효과와 연관된 개인의 특성
Strebler & Bevans(1996)	업무영역에서 새로운 상황에 지식과 기술을 전이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Schippmann (1999)	측정가능하고, 업무와 관련되고, 개인의 행동적 특징에 기초한 특성 또는 능력
Green PC.(1999)	직무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되는 측정가능한 업무습관 및 개인적 기술에 대한 증거자료

자료: 이흥민(2009). 역량평가. pp.37-38.

○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의 핵심역량이란 삶의 다양한 분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수단이며, 개인의 성공적인 삶과 잘 기능하는 사회를 이끄는 데 공헌하고, 모든 개인에게 필요한 성격으로서 지식과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태도, 감정, 가치, 동기 등과 같은 요소가 함께 기능하여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함(Rychen, 2003).

○ 호주 Melbourne 대학은 21세기에 요구되는 기술을 위한 교수의 평가(Assessment of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라는 프로젝트에서 삶을 위한 기술, 사고하고 일하는 방법, 도구 활용 차원 등을 21세기 능력을 규정함. 보다 구체적으로 ① 사고하는 방법: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과 학습, ② 일하는 방법: 소통과 협력, ③ 일하는 도

구: ICT와 정보에 대한 문해능력, ④ 세계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기술: 시민의식, 개인적·사회적 책임, 삶과 직업 등을 주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역량을 소경희(2007)는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김진모(2001)는 조직 환경 속에서 탁월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특성으로 정의함. 홍순정 등(2004)은 핵심역량을 개인이나 조직이 우수한 결과를 산출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는 관찰 가능한 수행이나 행동의 준거로 정의함. 김정원 등(2011)은 역량을 “직무나 역할 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으로 규정한 Mclagan(1982)의 개념을 활용하되 역량을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습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적인 직무수행으로 구현되는 학습 가능한 능력 특성’으로 정의함.

나) 교사의 역량

- 교사 전문성, 자질, 역량 등은 경우에 따라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이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교사가 교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 및 기술 등을 포괄하는 전문적 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정미경, 2010: 58-59).
- 교사전문성은 ‘교사에게 주어진 업무상황에서 필요한 능력, 자질, 성향, 가치, 기술, 행동양식 등과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총합’(한명희, 1997), ‘사회발전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훌륭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능력’(OECD, 1998), 혹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의 의미를 자기의 활동에서 구현할 수 있고, 학생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교육적 필요를 충족해 교육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종재, 2004)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음.

- 역량 개념 활용의 다양성만큼 교사 역량과 관련한 논의도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 한편에서는 역량의 수행(performance) 지향적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수행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지식, 기술, 신념 등을 교사역량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으로서 역량을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함(김정원 외, 2011).
- 국내의 여러 연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 역량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경진 외, 2009; 최진영 외, 2009; 조대연, 2009 등) 영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자질을 갖춘 교사의 전문성 표준(professional standards)도 이와 같은 틀에 기초함.
- 최진영 등(2009)은 초등교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역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역할별 핵심역량을 제시함.

〈표 II-20〉 초등교사의 역할별 핵심역량

역할	역량군	핵심역량
교수	지식	교과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교과서에 관한 지식/ 교수에 관한지식/학습자의 학습 및 발달에 관한 지식
	수행	학습요구 진단 능력/ 목표 설정 능력/ 내용선정 및 재구성 능력/ 다양한 수업방법 활용능력/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및 활용 능력/ 학습동기 유발 능력/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태도	책무성/ 성실성/ 학생에 대한 존중과 관심/ 사명감
평가	지식	평가 관련 이론 및 방법에 관한 지식/ 교과에 관한 지식/ 교육과정·교과서에 관한 지식/ 학습자의 학습 및 발달에 관한 지식
	수행	평가 목표 및 내용 설정 능력/ 평가방법 선택 및 활용 능력/ 평가도구의 개발 및 활용능력/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능력
	태도	학생에 대한 존중 및 이해심/ 공정성 및 공정성/ 신뢰성/ 성실성
생활 지도	지식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에 관한 이론 지식/ 학습자의 심리 및 발달에 관한 지식/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지식
	수행	학습자의 인성 및 생활태도 진단 및 적절한 지도 능력/ 상담기술 적용 능력/ 학생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능력
	태도	인내심/ 공감적 이해/ 학생에 대한 애정 및 존중/ 공정성/ 일관성

역할	역량군	핵심역량
학급 경영	지식	학급 경영 관련 이론 및 방법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수행	학급규칙 및 절차 실행 능력/ 민주적이고 신뢰받는 교실분위기 조성 능력/ 학생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능력
	태도	학생에 대한 애정 및 존중/ 공정성/ 일관성/ 성실성
전문성개발	지식	전문성 개발을 위한 이론 및 방법에 관한 지식/ 교육공동체 간의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지식
	수행	자기반성과 지속적 학습능력/ 교육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및 협력 능력/ 전문성개발을 통한 교육실제 개선 능력
	태도	교육적 사명감과 헌신/ 책임감과 성실성/ 교사로서 자부심과 자긍심/ 자기개발 및 교육실제 개선을 위한 의지

자료: 최진영(2009). p.122.

- 조대연(2009)은 교사의 직무역량 요소를 수업계획 및 준비, 수업실시, 학습평가, 생활지도, 학급, 학교경영지원 및 태도 등 6개 역량군으로 분류하여, 교사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직무역량의 차이를 살펴봄. 모든 단계에서 고려할 직무역량으로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이해, 상황에 따른 교수전략 실천과 상담이론을 도출함.

〈표 II-21〉 영국의 교사 전문성 표준

구분	영역	자질 기준
태도	아동·청소년과의 관계	상호 존중하는 관계형성 및 잠재성을 일깨워주려 노력하는 태도
		긍정적 가치,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양식 제시, 설정 가능
	기본틀	(a) 학교현장이해 및 책무성 인식, (b) 교육정책 이해 및 학교와 책임공유
	타인과 협력과 소통	아동·청소년·동료·부모와의 효과적 소통
		학생 성취수준 향상을 위한 동료·부모의 중요성 존중태도
		그룹 활동과 협동학습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
	개인 전문성 개발	(a) 자신 수업 성찰 및 전문성을 위한 책임감, (b) 전문성 개발에 우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비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충고와 피드백을 수용, 코칭과 멘토링에 대한 열린 자세

구분	영역	자질 기준
전문 지식과 이해	교수학급	교수학습의 원리를 이해, 학생 행동관리(생활 관리)에 대한 지식
	평가와 모니터링	교과평가요건 이해
		형성평가 및 각종 평가접근 이해
		관련 통계정보 활용
	교과와 교육과정	교과와 교육과정 이해 및 다양한 학습자 대상 수업
		명시적, 잠재적 교육과정과 교육체제의 상관성 이해
	독해력, 수리계산능력, ICT	관련 전문 능력 평가 인증
		관련 능력의 유용성 이해
기술	성취와 다양성	발달수준 이해, 언어·문화·인종·종교·사회적 수준과 발달단계 수준의 학습자에 대한 영향력 이해
		개별화된 교육 제공 능력, 동료교사의 역할 중요성 이해
		개별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 이해
	건강과 행복한 삶	(a) 아동·청소년 보호정책 이해, (b) 아동·청소년 정체성 확보 지원을 위한 태도와 능력
	계획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계획, 효과적인 학습방법 및 모형 설계
		학습자의 독해력, 수리계산능력, ICT기술 발전 기회 계획
		학습자 발전 유지·확장·통합 가능한 과제와 활동 계획
	교수	(a) 다양한 교수 전략과 자료 사용, (b) 학습자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 입문 지원 및 적용유도 능력, (c) 학습자 수준에서의 전달능력, 설명·질문·토의·회의 등의 방법 활용 수업, (d) 전체학급, 소그룹, 개인에 따른 학습 관리 능력
	평가, 모니터링, 피드백	(a) 평가·모니터링·기록 전략의 효과적 활용, (b) 학습자 학습욕구 평가
		학습자의 성취·발전·변화에 대한 정확하고 건설적 피드백 제공
		학습자의 자기 학습 성찰 방향 제시, 학습자의 진보 명료화 및 학습동기 유도
	교수학습에 대한 성찰	모든 학습자 변화에 근거한 교육 효과 평가 및 이에 기초한 수업 계획 변경
	학습환경	교육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학습자 생활 관리 및 자기통제와 독립성 함양을 위한 학급규율 체계 구축
	그룹 활동과 협력	동료와의 협력 태도 및 효과적인 수업 방법 공유
		협동학습 유용성 강조 태도 및 그룹 활동 내 역할에 대한 책임 강조

자료: http://www.rbkc.gov.uk/pdf/standards_core.pdf; 김정원 외(2011). p.42에서 재인용.

- 영국의 TDA(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 2007)는 모든 교원의 전문적 핵심역량 영역을 개발, 교원평가와 연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교원의 전문적 핵심역량 영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 전문적 기술, 전문적 태도로 구성하고, 이를 경력 단계별로 다섯 수준으로 구분하여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함.
- 강석주(2004)는 우수교사의 특성을 기반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담임교사 역량을 ‘교과내용 전문성’, ‘교수기술 전문성’, ‘학생 육성’, ‘정보 관리’, ‘조직 관리’, ‘팀워크’, ‘기본 직무 태도’ 등으로 구분함. 또한 이들 역량을 정의하면서 ‘교과내용전문성’, ‘교수기술전문성’은 ‘교과지도 역량’으로, ‘학생 육성’, ‘정보 관리’, ‘조직 관리’ 등은 ‘학급경영 역량’으로, ‘팀워크’, ‘기본직무태도’ 등은 ‘교무실 생활 역량’으로 분류하고 각 역량의 속성을 행동특성으로 설명함.
- 강경석 등(2004)은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업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역량과 같은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의 연구임. 이 연구는 교사의 직무능력 요소를 ‘교사로서의 자질’, ‘학습지도 능력’, ‘학급경영 능력’, ‘업무수행 능력’으로 구분하고 그 직무능력 요소들을 구성하는 세부 내용들을 또 다시 수행 능력 수준에서 제시함.
- 이흥민(2010)은 수석교사 역량 평가를 위해 수석 교사의 직무 수행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투입, 과정, 산출 차원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각각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량을 추출하여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수석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내면적 가치 역량, 투입 차원 직무 역량, 과정 차원 직무 역량, 산출 차원 직무 역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 김정원 등(2011)은 교사 역량을 ‘효과적인 교사직무 수행으로 구현되는 학습 가능한 능력 특성’으로 규정함. 이러한 역량 개념은 교사로서 지녀야 할 학생, 교과, 행정조직 등에 대한 지식, 교육에 대한 헌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등의 태도로 환원하여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수행 능력 특성으로 표현되는 것임.

- 김정원 등(2011)의 연구에서 제시한 교사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교사 직무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업, 학급 운영 및 학생생활지원, 학교운영 및 행정 등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함. 교과수업이나 교과 외 활동 지도, 평가 등은 모두 수업의 범주에 포함되며, 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담임교사의 활동은 수업과 구분되는 것이라 보아 별도의 영역으로 분류함. 여기에 수업에서의 교사-학생 상호작용과는 다른 종류의 학생 상담 등의 각종 지원 활동이 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급운영 및 학생생활지원을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함. 학교교육과정운영이나 그 밖의 학교행정과 관련한 업무들을 학교운영 및 행정 영역으로 분류함. 이러한 직무에 기초하여 교사역량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22〉 교사 역량의 정의

영역	역량	역량정의	세부역량
이해 (교사의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핵심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실제로 다양한 역할 수행 장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A. 학생 이해	학생의 지적, 정ylic, 신체적 발달단계 특성, 학생 문화, 계층 등 학생 환경과 교육과의 관계 등에 대해 알고 이를 각종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능력	A1. 발달단계별 학생 특징 이해 A2. 학생문화 이해 A3. 학생환경과 교육과의 관계 이해 (계층, 인종, 문화, 성, 지역 등)
	B. 교과 수업 및 평가 이해	가르쳐야 할 교과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여 적절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수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B1. 교과내용 이해 B2. 교수방법 이해 B3. 평가방법 이해
	C. 교육 과정 이해	전체 국가교육과정과 학교 교육과정 체계 내에서 교과의 학년별 교육과정을 이해하여 수업 계획을 수립·운영하며 동아리 및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여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	C1. 국가교육과정 이해 C2. 학교교육과정 이해 C3.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 이해 C4. 정규교육과정 외 학교 내 교육프로그램 이해
	D. 학급 운영 이해	학급운영의 주요 목적을 이해하여 학급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학급 운영방법을 구안하여 활용하는 능력	D1. 학급운영 목적 이해 D2. 효과적인 학급운영 방법 이해

영역	역량	역량정의	세부역량
	E. 학교 조직 및 행정 체계 이해	학교조직의 운영 방향과 원리, 학교행정 및 예산 체계 등을 이해하여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능력	E1. 학교조직체계 이해 E2. 학교행정 및 예산체계 이해
	F. 지역 사회 이해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과 각종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능력	F1.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이해 F2. 지역사회 프로그램 이해
	G. 공교육 체제 이해	한국 공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핵심 이슈를 이해하여 자신의 관점을 명료화하고 이를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능력	G1. 한국 공교육정책 이해 G2. 핵심 이슈 이해
	H. 현대 사회 이해	한국 사회 변화 흐름 및 교육관련 주요 세계적 이슈를 이해하여 수업 및 학생 진로 지원에 활용하는 능력	H1. 한국 사회 변화 흐름 이해 H2. 노동 시장 및 직업 구조 현황 이해 H3. 세계적 주요 이슈 이해
분석 및 조직 (교사 직무 수행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자신의 역할 수행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과 내용을 기획하여 동료 및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I. 정보 관리 및 연구 능력	주요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수집·분석·활용하며 역할 수행성과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학생 및 동료와 공유하고 요구되는 영역 관련 학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I1. 정보 수집 및 분석력 I2. 정보 활용력 I3. 컴퓨터 및 기타 매체 활용 능력 I4. 논리적 글쓰기 능력 I5. 지속적 학습력
	J. 기획 능력	주요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학생 및 동료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 하여 비전과 구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적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	J1. 요구분석력 J2. 비전 및 계획 수립 능력 J3. 공문서 작성 능력
	K. 대인 관계 능력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등과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핵심 역할에서 요구 되는 각종 활동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능력	K1. 친화력 K2. 공동작업 능력

영역	역량	역량정의	세부역량
관계 형성 (각종 교사 역할 수행에서 학생, 동료, 학부모 등 함께 하는 대상과 적극적으로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의도하는 바를 함께 구현해 나가는 능력)	L. 의사 소통 능력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등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설명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L1. 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설명 능력 L2. 타인의 의견 경청 능력 L3. 설득 능력
	M. 리더십	주요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설정한 비전을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들과 공유하며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을 포용하고 발생하는 갈등을 적절히 관리 하는 가운데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하는 능력	M1. 비전 공유 능력 M2. 다양한 의견 포용력 M3. 갈등 관리 능력 M4. 업무 추진력

자료: 김정원 외(2011). pp.55-57.



Ⅲ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1. 델파이 조사 개요

-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적용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학교의 평가는 학생들이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에 관한 것이었음.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전통적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보통신 기술의 엄청난 발전, 지식기반의 글로벌 경제의 도래 등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지기를 바라는 역량에 대한 새로운 기대도 커지고 있음.
- 이에 미래의 인재상, 미래의 학교상, 미래의 교사상에 대한 다각적 측면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교육전문가 15인, 현장교사 3인, 정부기관 전문가 2인, 민간기업 전문가 2인, 현직 검사 1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3인을 대상으로 201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1차 조사는 201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2차 조사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됨. 3차 조사는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짐.

-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기존에 도출된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간 관계 분석을 통한 핵심역량군 도출 및 핵심역량을 재정립하고,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미래의 학교상 및 미래 교사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 도출된 역량군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핵심역량명을 재정립하였으며, 미래 학교상 및 미래 교사상에 대한 의견을 구조화된 문항으로 구성하고 이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조사함.
-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2차 조사 결과를 통계처리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값을 제시한 후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다시 응답하도록 함.

2.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가. 핵심역량 간 군집분석 결과

- 군집분석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개체들을 상호 거리 혹은 유사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집단끼리 분류함으로써 산출된 군집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됨.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에서는 OECD의 DeSeCo에서 제시한 9개 역량, ATC21S에서 제시한 10개 역량, P21의 9개 역량, 그리고 정범모(2011)가 제시한 10개 미래 능력에 「스마트 세대를 위한 KEDI 교육 미래비전 연구」에서 제시한 8개 역량을 종합한 34개의 역량의 항목들에 대하여 전문가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상위 10개 역량을 도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10가지 미래 핵심

역량을 대상으로 이들을 유사한 집단끼리 분류하려는 목적으로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함.

-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이들 역량에 대하여 모든 두 쌍(pairs)를 형성하고, 각각의 관계를 “개념 간의 거리 혹은 상이성”이라는 측면에서 0, 1, 2, 3, 4, 5의 척도 상에서 체크하도록 하여 대상간 거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음. 즉 두 역량이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0, 그리고 두 역량이 공유하는 측면이 전혀 없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라면 5로 표시하도록 하였음. 그 결과 사회 각계각층의 23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산출된 역량 간의 평균 거리는 다음 표와 같게 나타났음.

〈표 III-1〉 핵심 개념 간 평균 거리

역량	A	B	C	D	E	F	G	H	I	J
A	0.00	2.87	2.57	2.86	2.57	1.91	2.43	2.17	2.00	3.09
B	2.87	0.00	1.96	2.57	3.30	3.43	3.26	2.96	3.17	3.22
C	2.57	1.96	0.00	2.18	3.09	3.22	3.35	3.00	3.26	3.30
D	2.86	2.57	2.18	0.00	2.43	2.87	2.91	2.00	2.52	2.78
E	2.57	3.30	3.09	2.43	0.00	2.43	2.13	2.52	2.26	2.87
F	1.91	3.43	3.22	2.87	2.43	0.00	2.83	2.57	2.09	3.09
G	2.43	3.26	3.35	2.91	2.13	2.83	0.00	2.70	3.00	3.39
H	2.17	2.96	3.00	2.00	2.52	2.57	2.70	0.00	2.09	2.43
I	2.00	3.17	3.26	2.52	2.26	2.09	3.00	2.09	0.00	2.52
J	3.09	3.22	3.30	2.78	2.87	3.09	3.39	2.43	2.52	0.00

note.

- A.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수 있는 능력
- B.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 C. 창의성
- D. 문제해결능력
- E. 시민의식 및 사회적책임을 지는 능력
- F. 커뮤니케이션 능력
- G. 도덕성
- H.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 I. 대인관계능력
- J. 끈기와 인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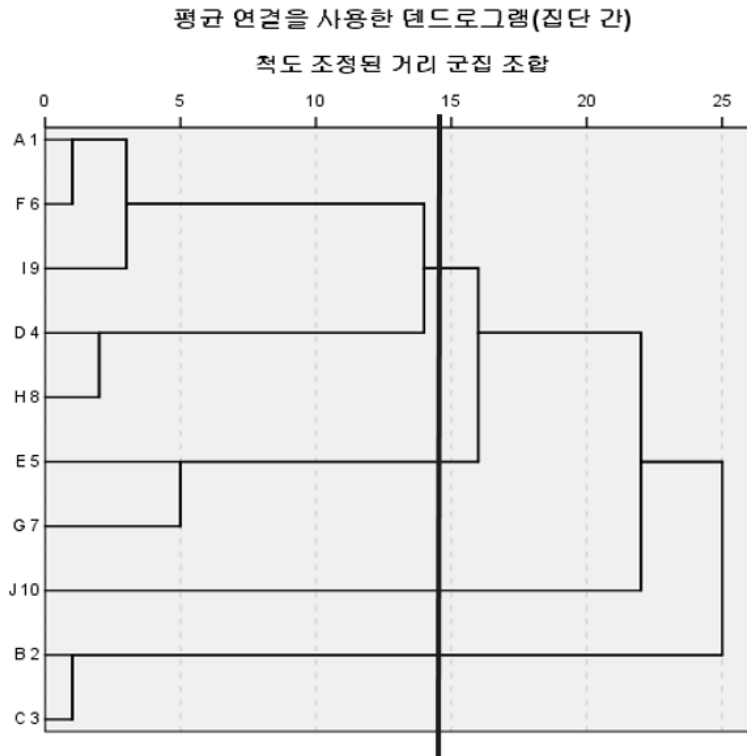
-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이 10개의 핵심역량을 많지 않았고 미리 군집의 수가 설정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계적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나무구조(tree diagram)로 가까운 대상끼리 새로운 군집으로 결합되도록 하였음. 이를 위한 주요 방법으로는 평균거리연결방법(average linkage)을 사용하였음. 위계적인 방법의 장점은 계산이 빠르고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 것인 반면에 초기에 불합리한 결합이 일어날 경우 인위적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반복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류 결과가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표 III-2〉 군집화 일정표

단계	결합 군집		계수	처음 나타나는 군집의 단계		다음 단계
	군집 1	군집 2		군집 1	군집 2	
1	1	9	1,955	0	0	3
2	2	3	2,046	0	0	9
3	1	6	2,068	1	0	6
4	4	8	2,091	0	0	6
5	5	7	2,227	0	0	7
6	1	4	2,560	3	4	7
7	1	5	2,641	6	5	8
8	1	10	2,935	7	0	9
9	1	2	3,075	8	2	0

- 군집화 일정표의 단계별 계수를 통하여 군집의 수를 통계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려면, 단계별 계수의 변화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 표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5~6단계가 계수의 폭이 가장 넓었기 때문에 첫 번째 대상 1과 네 번째 대상 4 (즉 A와 D)가 한 군집으로 속하게 되는 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두

대상이 합쳐지는, 즉 아래 덴드로그램에서 6단계의 1(A)과 4(D)가 군집화 되는 부분 위에 수평선을 그려보면 최적 군집 수가 네 개로 나타남. 다시 말하여 이 수평선과 만나는 선이 네 개임을 알 수 있음 : 그 결과, “A, D, F, H, I”, “E, G”, “B, C”, “J”와 같은 네 개의 군집이 산출됨.



[그림 III-1]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 덴드로그램

- 다음 각 역량의 소속 군집을 표시해 보면 다음 <표 III-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이 때 4군집 보다는 5군집이 함께 묶인 역량들의 속성을 살펴볼 때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4군집보다는 5군집을 통하여 10개의 핵심역량을 통계적, 결과 해석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요약 및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음.

〈표 III-3〉 핵심역량 분류 결과: 4군집 혹은 5군집

4 군집	5 군집
A.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D. 문제 해결 능력 F. 커뮤니케이션 능력 H.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I. 대인관계능력	A.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F. 커뮤니케이션 능력 I. 대인관계능력
B.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C. 창의성	D. 문제 해결 능력 H.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E.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G. 도덕성	B.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C. 창의성
J. 끈기와 인내	E.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G. 도덕성
	J. 끈기와 인내

나. 미래의 학교상

○ 미래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 학교상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학교시설’, ‘교육행정지원체제’의 측면에서 미래의 학교모습에 대한 의견을 구함.

○ 개방형 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

○ 교육과정 측면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개방형 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 시험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교육은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 문·이과를 통합하여 공통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 국가수준에서는 큰 범위만 제시하고, 세부 운영은 교사가 학생의 필

요와 수준 그리고 교과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및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 진로탐색, 다양성 포용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등 미래의 핵심 역량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2)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

○ 교육방법 측면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개방형 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식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읽기, 쓰기, 토론, 대화 등을 강화하여 각 교과에 원리, 탐구방식, 사고양식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가르침(teaching) 보다는 배움(learning)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 강의식 수업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학생의 참여와 토론, 탐구, 프로젝트 수행이 50% 이상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 미리 짜여진 틀 속에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학습 콘텐츠를 찾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진학생 또는 우수학생을 별도로 모아 지도하는 수준별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
-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 형태가 보다 강조되고 교사는 질문에 답하거나 학습 계획을 돕는 조력자 혹은 코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 과학기술(인터넷, 이러닝,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방법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 학습자들의 협동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 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체험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교육평가'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

- 교육평가 측면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개방형 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선발적 교육관에 입각한 평가를 지양하고 개별 학생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피드백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 선다형 문항 위주의 시험을 탈피하여 수행평가(서술식, 논술식,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방식의 문제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 지적 능력 이외에 비인지적 능력(affective and psychomotor) 역시 중요하게 측정하는 교육평가가 되어야 한다.
 - 모든 것을 점수화하는 정량적 평가를 지양하고 정성적 평가와 서술적 피드백을 강화하는 준거지향적 형태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 현행과 같은 입시 위주 교육관행이 지속된다면 서열을 중시하는 정량적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교육한 것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만 측정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 경쟁에 기초한 평가를 지양하고 협동에 기초한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 학생들의 불안지수, 스트레스지수, 문제해결능력 발달 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보관하여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강화되고, 평소에 학생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협동과 참여, 시민의식의 고양 등 역량 중심의 학생 평가가 가능하도록 토론식, 협력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참여교육 등이 확대되고 교사는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학교시설'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

- 학교시설 측면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개방형 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미래의 학교시설은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 조직을 생성하고 사회적 지원을 창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 교과수업 위주의 공간에서 학습커뮤니티 중심의 교실로 변화해야 한다.
 - 갈등이나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
 - 스마트교육을 위한 학교와 교실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 생태감수성 함양에 기여하는 생태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 지역주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 정보의 메카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 체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5) '교육행정지원체제'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

- 교육행정지원체제 측면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개방형 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시와 통제 위주의 행정에서 지원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단위학교에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 다양한 학생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학생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교사가 교육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교사의 역량계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지원체제가 되어야 한다.
- 위계적 행정조직 구조보다는 수평적 행정조직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 학교 및 행정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사소통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다. 미래의 교사상

-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 학교상에 적합한 미래의 교사상에 대해서는 미래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에 대한 의견을 구함.
-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Knowledge)’ 및 ‘기술(Skills)’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측면에서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태도(Attitude)’에 대해서는 ‘학생-교사’간 관계, ‘교사-교사’간 관계, ‘학부모-교사’간 관계에서 요구되는 태도를 기술하도록 하였음.
- 개방형 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Knowledge)’

-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에 대해 개방형 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초·중등 연계적인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탐구활동학습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미래 역량에 대한 질적(정성적) 평가와 협동학습이나 토의에 대한 수행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 지식의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지식을 활용하고 탐구하며 비판 및 평가할 수 있는, 즉 지식의 2차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 2개 이상의 교과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융복합적이고 통섭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 인간 이해를 위한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이 필요하다.
-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특별히 다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술(Skills)’

-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술에 대해 개방형 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단순한 지식의 전수를 넘어서서 실생활에 필요한 ‘과정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 교과간 융합과 통섭이 가능한 범교과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일방적 교수능력보다는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퍼실리테이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학생의 학습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학습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 스마트 기기 등 첨단기술을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학생의 학습과정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학생, 학부모, 다른 교사와 소통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감정 코칭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특별히 다른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3)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Attitude)'

-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에 대해 개방형 응답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학생에게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습촉진자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원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 학생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학생의 실수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수용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 학생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
 - 교사 상호간 전문가로서 수평적인 관계의 형성과 타협의 태도가 필요하다.
 - 교사 상호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동반자적 태도가 필요하다.
 - 교사 상호간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는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
 -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듣고 이해하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
 - 학부모의 전문성을 교육에 활용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 학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특별히 다른 태도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3. 2차 및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가.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

- 1차 델파이 결과 10가지 미래 핵심역량을 대상으로 이들을 유사한 집단끼리 분류한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군집으로 단순화하였음. 5군집에 대한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2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 5개의 역량군에 대해서 각 역량군을 대표하는 역량의 명칭을 ‘대인관계 능력, 실생활의 문제해결력, 혁신능력, 시민의식, 인내심’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음.

〈표 III-4〉 5군집의 핵심역량 델파이 최종 결과

역량군	순위	내 용	3차 결과		2차 결과	
			M	SD	M	SD
역량군 1	1	대인관계능력	4.09	0.97	3.91	1.16
	2	의사소통능력	3.91	0.97	3.68	1.02
	3	협동능력	3.61	0.97	3.14	1.25
역량군 2	1	실생활의 문제해결력	4.22	0.66	4.00	1.00
	2	갈등관리능력	3.35	1.00	3.18	0.89
역량군 3	1	혁신능력	4.52	0.50	3.91	0.95
	2	창의성	3.70	1.00	3.77	1.00
	3	자기주도력	3.52	0.93	3.09	1.28
역량군 4	1	시민의식	4.61	0.49	4.14	1.01
	2	도덕성	3.13	1.03	3.50	1.03
역량군 5	1	인내심	4.00	1.02	3.82	0.78
	2	끈기와 집중력	3.74	0.74	3.64	1.11

나. 미래의 학교상

- 3차 델파이에서는 OECD 산하의 CERI(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가 제시한 미래의 학교교육 시나리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음.
- 조사 결과 학교 재구조화 방향으로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가 4.43점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탈학교로서의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이 3.74점, 재구조화 방향으로 ‘사회 센터로서의 학교’가 3.57점의 동의를 받았음.

〈표 III-5〉 CERI에서 구상한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에 동의하는 정도

CERI에서 구상한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	3차 결과	
	M	SD
(재구조화) 시나리오 4: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4.43	0.71
(탈학교지향) 시나리오 5: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	3.74	0.94
(재구조화) 시나리오 3: 사회 센터로서의 학교	3.57	1.01
(현재제유지) 시나리오 2: 시장경제 원리 적용 모델 확대.	3.04	1.27
(현재제유지) 시나리오 1: 견고한 관료제적 학교 체제 유지	2.57	1.01
(탈학교지향) 시나리오 6: 교사의 탈출, 학교의 붕괴	2.13	0.85

- 2차와 3차 델파이에서는 미래 학교상에 대해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학교시설’, ‘교육행정지원체제’의 측면에서 1차 델파이에서 서술형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을 조사하였음.

1)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

- 교육과정 측면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미래 학교에서는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0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받았음.
- 그 다음으로 ‘진로탐색, 다양성 포용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 등 미래의 핵심역량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3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험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육은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은 4.35점으로 나타남.
- 한편, ‘문·이과를 통합하여 공통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은 3.4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I-6〉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상

순위	내 용	3차 결과		2차 결과	
		M	SD	M	SD
1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4.70	0.46	4.68	0.47
2	진로탐색, 다양성 포용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등 미래의 핵심역량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4.39	0.71	4.41	0.72
3	시험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교육은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4.35	0.56	4.23	0.52
4	국가수준에서는 큰 범위만 제시하고, 세부 운영은 교사가 학생의 필요와 수준 그리고 교과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및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4.13	0.68	4.09	0.95
5	문·이과를 통합하여 공통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3.43	1.14	3.64	1.23

2)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

- 교육방법 측면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학습자들의 협동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52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받았음.
- 또한 ‘읽기, 쓰기, 토론, 대화 등을 강화하여 각 교과와 원리, 탐구방식, 사고양식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식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이 각 4.4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가르침보다는 배움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13점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강의식 수업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학생의 참여와 토론, 탐구, 프로젝트 수행이 50% 이상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은 3.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받았으며, 제시된 의견 가운데 ‘부진학생 또는 우수학생을 별도로 모아 지도하는 수준별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3.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I-7〉 교육방법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상

순위	내 용	3차 결과		2차 결과	
		M	SD	M	SD
1	학습자들의 협동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4.52	0.58	4.36	0.57
2	읽기, 쓰기, 토론, 대화 등을 강화하여 각 교과와 원리, 탐구방식, 사고양식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4.48	0.58	4.41	0.71
2	지식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48	0.58	4.36	0.58
4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가르침(teaching)보다는 배움(learning)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4.13	1.03	4.23	0.79

순위	내 용	3차 결과		2차 결과	
		M	SD	M	SD
5	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체험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83	0.87	3.73	0.91
6	미리 짜여진 틀 속에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학습 콘텐츠를 찾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4	0.90	3.73	1.01
6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 형태도 보다 강조되고 교사는 질문에 답하거나 학습 계획을 돕는 조력자 혹은 코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3.74	0.85	3.64	0.88
8	과학기술(인터넷, 이러닝,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방법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3.48	0.88	3.64	0.93
9	강의식 수업을 50% 이하로 축소하고 학생의 참여와 토론, 탐구, 프로젝트 수행이 50% 이상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3.26	0.85	3.55	1.12
10	부진학생 또는 우수학생을 별도로 모아 지도하는 수준별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	3.00	0.88	3.18	1.03

3) ‘교육평가’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

- 교육평가 측면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선발 중심의 교육관에 입각한 평가를 지양하고 개별 학생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피드백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57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받았음.
- 그 다음으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강화되고, 평소에 학생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과 같은 입시 위주 교육관행이 지속된다면 서열을 중시하는 정량적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는 의견이 각 4.30점으로 높은 동의를 받았음.

- ‘선다형 문항 위주의 시험을 탈피하여 수행평가 방식의 문제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4.22점) 및 ‘역량 중심의 학생 평가가 가능하도록 토론식, 협력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이 확대되어야 하고 교사가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4.17점) 등 제시된 의견들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동의를 받았음.
-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교육한 것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만 측정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들의 불안 지수, 스트레스지수, 문제해결능력 발달 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보관하여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은 각 3.57점, 3.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I-8〉 교육평가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상

순위	내 용	3차 결과		2차 결과	
		M	SD	M	SD
1	선발중심의 교육관에 입각한 평가를 지양하고 개별 학생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피드백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4.57	0.58	4.27	0.75
2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강화되고, 평소에 학생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4.30	0.62	4.24	0.68
2	현행과 같은 입시 위주 교육관행이 지속된다면 서열을 중시하는 정량적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4.30	0.95	4.23	0.90
4	선다형 문항 위주의 시험을 탈피하여 수행평가(서술식, 논술식,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방식의 문제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4.22	0.66	4.14	0.81
5	협동과 참여, 시민의식의 고양 등 역량 중심의 학생 평가가 가능하도록 토론식, 협력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참여교육 등이 확대되고 교사는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17	0.56	4.10	0.87

순위	내 용	3차 결과		2차 결과	
		M	SD	M	SD
6	경쟁에 기초한 평가를 지양하고 협동에 기초한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4.13	0.74	4.19	0.73
7	모든 것을 점수화하는 정량적 평가를 지양하고 정성적 평가와 서술적 피드백을 강화하는 준거지향적 형태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4.04	0.86	4.09	0.67
8	지적 능력 이외에 비인지적 능력(affective and psychomotor) 역시 중요하게 측정하는 교육평가가 되어야 한다.	3.91	0.88	3.95	0.88
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교육한 것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만 측정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3.57	0.77	3.86	1.01
10	학생들의 불안지수, 스트레스지수, 문제해결능력 발달 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보관하여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0.93	3.81	0.91

4) ‘학교시설’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

- 학교시설 측면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체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이나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4.52점으로 높은 동의를 받았음.
- 다음으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 및 ‘교과수업 위주의 공간에서 학습커뮤니티 중심의 교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30점, 4.26점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지역주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은 3.1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III-9〉 학교시설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상

순위	내 용	3차 결과		2차 결과	
		M	SD	M	SD
1	체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4.57	0.50	4.36	0.57
2	갈등이나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	4.52	0.65	4.14	0.85
3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4.30	0.91	4.36	0.57
4	교과수업 위주의 공간에서 학습커뮤니티 중심의 교실로 변화해야 한다.	4.26	0.53	4.09	0.85
5	미래의 학교시설은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 조직을 생성하고 사회적 지원을 창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4.13	0.80	4.09	0.90
5	정보의 메카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4.13	0.68	3.82	1.03
7	생태감수성 함양에 기여하는 생태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3.87	0.95	4.05	0.88
8	스마트교육을 위한 학교와 교실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3.74	0.85	3.77	1.04
9	지역주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3.13	0.80	3.23	0.79

5) ‘교육행정지원체제’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

- 교육행정지원체제 측면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에 대해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행정지원체제 측면에서 ‘교사가 교육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4.61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받았으며, ‘지시와 통제 위주의 행정에서 지원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이 4.52점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학교 및 행정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사소통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의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지원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 4.35점으로 높게 나타났음.

- 그 외 ‘다양한 학생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학생지원 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및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26점, 4.13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은 3.30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받았음.

〈표 III-10〉 교육행정지원체제 측면에서의 미래 학교상

순위	내 용	3차 결과		2차 결과	
		M	SD	M	SD
1	교사가 교육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4.61	0.57	4.45	0.66
2	지시와 통제 위주의 행정에서 지원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4.52	0.58	4.64	0.57
3	학교 및 행정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사소통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4.35	0.48	4.45	0.58
3	교사의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지원체제가 되어야 한다.	4.35	0.48	4.32	0.55
5	다양한 학생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학생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4.26	0.67	4.27	0.54
6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13	0.74	4.32	0.55
7	단위학교에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3.87	0.90	4.23	0.67
8	위계적 행정조직 구조보다는 수평적 행정조직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3.78	0.93	4.18	0.78
9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30	0.80	3.82	0.83

다. 미래의 교사상

-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의 학교상에 적합한 미래 교사상에 대해서는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을 조사하였음.

-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Knowledge)’ 및 ‘기술(Skills)’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측면에서 조사하였으며, ‘태도(Attitude)’에 대해서는 ‘학생-교사’간 관계, ‘교사-교사’간 관계, ‘학부모-교사’간 관계에서 요구되는 태도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1)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Knowledge)’

-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에 대해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식의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지식을 활용하고 탐구하며 비판 및 평가할 수 있는, 즉 지식의 2차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4.52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받았음.
- 또한 ‘미래 역량에 대한 질적 평가와 협동학습이나 토의에 대한 수행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4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탐구활동 학습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 4.35점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2개 이상의 교과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융복합적이고 통섭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수준은 3.4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특별히 다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은 2.00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1〉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Knowledge)

순위	내 용	3차 결과		2차 결과	
		M	SD	M	SD
1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4.52	0.58	4.55	0.58
1	지식의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지식을 활용하고 탐구하며 비판 및 평가할 수 있는, 즉 지식의 2차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4.52	0.58	4.41	0.58
3	미래 역량에 대한 질적(정성적) 평가와 협동학습이나 토의에 대한 수행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4.48	0.71	4.50	0.66
4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4.35	0.56	4.45	0.66
4	탐구활동학습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4.35	0.70	4.23	0.73
6	인간 이해를 위한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이 필요하다.	4.30	0.95	4.23	0.85
7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3.87	0.68	4.09	0.73
8	초중등 연계적인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3.65	0.87	4.00	0.80
9	2개 이상의 교과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융복합적이고 통섭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3.48	0.97	3.77	1.17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특별히 다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	0.88	2.36	1.07

2)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술(Skills)’

-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술에 대해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학생의 학습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있는 학습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4.48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받았으며, ‘일방적 교수능력 보다는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도 4.43점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학생의 학습과정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및 ‘학생, 학부모, 다른 교사와 소통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30점, 4.26점으로 높은 동의를 받았음.

- 한편, ‘스마트 기기 등 첨단기술을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5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특별히 다른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은 2.04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표 III-12〉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Skill)

순위	내 용	3차 결과		2차 결과	
		M	SD	M	SD
1	학생의 학습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학습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4.48	0.58	4.41	0.58
2	일방적 교수능력보다는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퍼실리테이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43	0.71	4.36	0.64
3	학생의 학습과정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4.30	0.75	4.18	0.65
4	학생, 학부모, 다른 교사와 소통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4.26	0.90	4.50	0.50
5	단순한 지식의 전수를 넘어서서 실생활에 필요한 ‘과정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4.13	0.85	4.05	0.98
6	교과간 융합과 통섭이 가능한 범교과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83	0.92	4.00	0.90
7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감정 코칭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65	0.96	3.95	0.77
8	스마트 기기 등 첨단기술을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52	0.93	3.77	0.90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특별히 다른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2.04	0.95	2.23	1.13

3)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Attitude)’

- 미래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에 대해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학생-교사’ 간 관계에 있어서 미래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로 ‘학생 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4.70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에게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습촉진자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4.48점으로 높게 나타남. ‘학생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 및 ‘학생의 실수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수용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 4.43점, 4.3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교사-교사’ 간 관계에서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로 ‘교사 상호간 전문가로서 수평적인 관계의 형성과 타협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52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받았으며, ‘교사 상호간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는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43점, ‘교사 상호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동반자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0점으로 높게 나타남.

○ ‘학부모-교사’간 관계에서 미래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로는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듣고 이해하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5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를 받았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30점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학부모의 전문성을 교육에 활용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87점의 동의를 받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특별히 다른 태도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수준은 2.00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3〉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Attitude)

순위	내 용	3차 결과		2차 결과	
		M	SD	M	SD
1	학생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70	0.46	4.41	0.49
2	학생에게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습촉진자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4.48	0.71	4.27	0.75
3	학생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	4.43	0.65	4.36	0.77
4	학생의 실수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수용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4.35	0.56	4.27	0.69
5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원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4.30	0.69	4.24	0.68
1	교사 상호간 전문가로서 수평적인 관계의 형성과 타협의 태도가 필요하다.	4.52	0.50	4.41	0.65
2	교사 상호간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는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	4.43	0.58	4.36	0.64
3	교사 상호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동반자적 태도가 필요하다.	4.30	0.55	4.36	0.57
1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듣고 이해하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4.35	0.63	4.18	0.72
2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	4.30	0.69	4.09	0.67
3	학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13	0.74	4.00	0.85
4	학부모의 전문성을 교육에 활용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3.87	0.80	3.77	0.95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특별히 다른 태도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2.00	0.98	2.23	1.04



IV

미래의 인재상, 학교상 및 교사상

1. 미래의 인재상

- 앞에서 논의된 ‘미래 인재상’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우선, 역량 중심의 미래 인재상 도출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종류 및 개수의 도출에 있어서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깊이 반영해야 한다는 점임. 즉, 역량의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그 개수를 많이 선정하면 교육과정이나 교수 학습 현장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술된 바와 같이, 최근의 역량중심 교육의 연구는 ‘역량군’의 구성과 ‘소수의 세부 역량 집중’을 시도하고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미래 한국교육이 가정해야할 미래 인재상을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제안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10개 역량에 대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음.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4군집 혹은 5군집으로 묶을 수 있는 것으로 통계분석이 되었으나, 4군집의 경우 같이 포함되어 있는 대인관계에 필요한 능력과 갈등관리에 필요한 능력이 서로 개념적으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어 하나의 역량군으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4군집보다는 5군집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5개 역량을 미래 인재상을 정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 2차 및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각 다섯 개의 역량군을 대표할 수 있는 세부역량이 선정되었음. 특히 3차 조사 결과, <표 III-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선정된 대표 역량의 동의 정도가 상승하였고, 대체적으로 표준편차가 감소하여 이견이 좁혀지고 합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델파이 조사 결과이므로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되, 시대적인 필요성과 개념상의 명료화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각 역량군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 가지 더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개념의 명료화 및 집중을 위해서는, 델파이 조사의 분석을 위해서 군집분석을 통한 역량‘군’(competency group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교육현장의 적용을 위해서는 ‘군(groups)’의 개념이 아닌 ‘세부 역량(specified skill)’의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 인재상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되는 세부적인 5개의 미래 핵심역량(five essential skills)을 정리하여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짐. 아래에서 검토되는 세부 역량의 경우, 3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중요성 인식 정도를 반영하여 그 순서가 조정되었고, 중요성이 가장 높은 순으로 제시함.

가. 미래 인재의 5대 핵심역량

1) 시민의식(Citizenship)

○ ‘시민의식’의 경우 비슷한 개념의 다른 역량인 ‘도덕성’과는 중요도에 있어서 1.48의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시민윤리 및 도덕성과 관련된 역량의 보다 적합한 표현은 ‘시민의식’인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시민의식의 개념을 도덕성과 관련 없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델파이 조사의 설문은 어떠한 역량이 보다 타당한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역량군의 역량들을 보다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도덕성과 완전히 괴리된 것으로서의 시민의식이 아닌 오히려 도덕성과 시민윤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시민의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도덕성보다 시민의식을 대표역량으로 표시한 것은 우리나라 미래에 요구되는 역량이 단순히 개인적이거나 사회문화와 관련 없는 수준에서의 도덕성보다는 사회시민으로서 보다 큰 그림에서 도덕, 윤리, 의무 그리고 책임과 관련된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동시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시민에게 부족한 점이 이러한 큰 안목, 넓은 시야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도덕적이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능력이라는 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임.

2) 창의적 혁신력(Creative and renovative skill)

- ‘혁신능력’의 경우, 같은 역량 군의 다른 역량과 최소한 0.82의 차이를 보여 그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역량을 이끌어가는 인재들의 공통점이 창의성이고 앞으로 창의성의 중요성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명칭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함. 그에 따라, 단순히 혁신만을 위한 능력보다는 ‘창의적 혁신력’으로 명명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 혁신력은 같은 군의 다른 역량인 자기주도성을 이미 가정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창의성은 기존의 방식이나 모든 사람이 당연시 하는 관행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새롭고 독창적인 방식을 추구할 수 있는 역량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자기주도적인 태도 없이 창의적 혁신력이 발휘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그 과정에서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기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3) 실제 문제 해결력(Problem solving skill)

- 보통 영어식 표현인 ‘Problem solving skill’에서 ‘문제(Problem)’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가

정되는 ‘문제’를 의미함. 이 표현을 단순히 ‘문제 해결력’으로 해석하면 기존의 영어식 표현이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제적 문제’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한글 표현에서는 ‘실제 문제 해결력’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실제 문제’는 현실에서 발견되는 환경적, 과업적,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실제 문제를 포괄함. 특히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인간이나 사회 속에서의 갈등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 같은 역량군의 다른 역량인 갈등관리능력은 이미 개념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실제 문제 해결력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갈등을 접하게 되고 갈등을 극복하는 경험과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것임.

4)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skill)

- 미래 사회는 개개인이 보다 전문화됨과 동시에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을 통하여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산물을 내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로 볼 수 있음. 특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배치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수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시 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역량이 바로 대인관계능력임. 그리고 당연히 대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협동적인 관계를 이끌어 내는 것이 당연히 된다고 볼 때, 대인관계능력의 개념에는 의사소통능력과 협동력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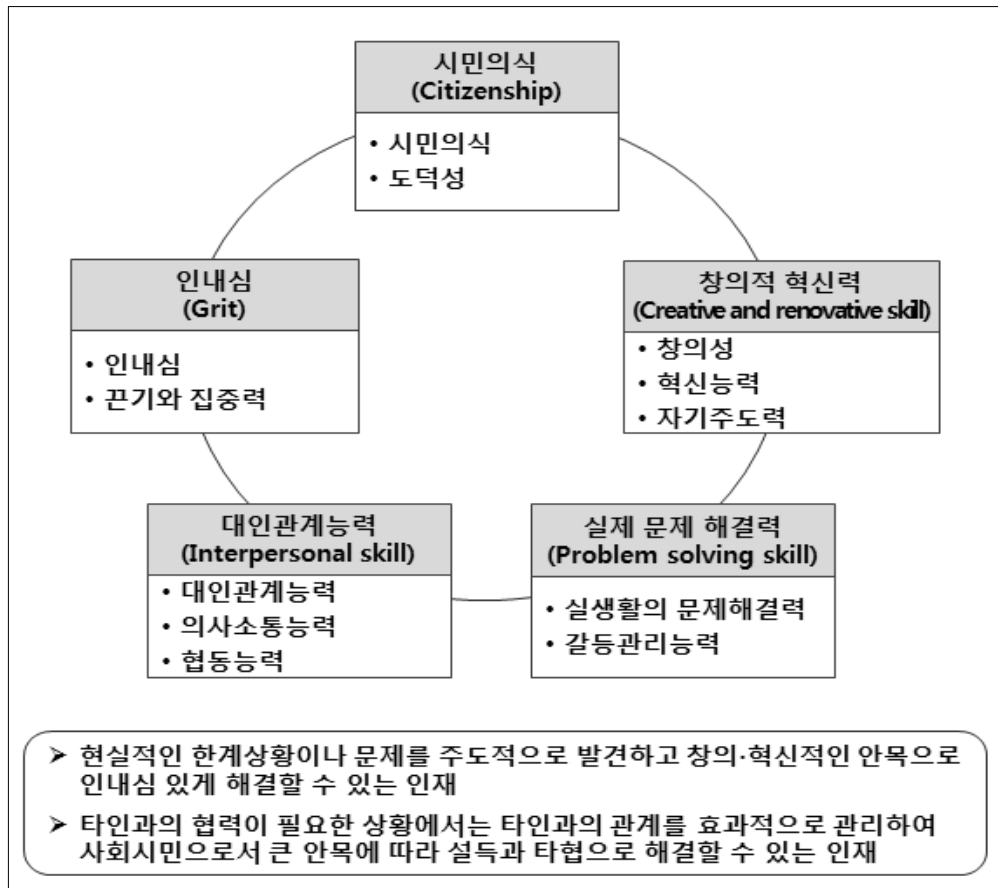
5) 인내심(Grit)

- 요즘 여러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역량 중 하나는 바로 어려운 과업이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낼 수 있는 역량인 ‘Grit’인데 이것을 ‘인

내심'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인내심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낸 원동력으로서 언급되는 한국인의 노력과 끈기를 인내심이라는 표현으로 재해석하여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미래 역량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기존 선행연구나 본 연구의 델파이 연구를 통하여 일관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앞으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꾸준히 주목해야 할 핵심역량으로 인내심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나. 미래 인재상의 도출

-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서의 역량 기반 미래 인재상의 도출은 역량이 충분히 세부적인지, 그리고 그 수는 적절한지가 반영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 인재의 5대 역량(시민의식, 창의적 혁신력, 실제 문제 해결력, 대인관계능력, 인내심)은 이러한 조건에 맞게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우선 역량 개념의 세부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표역량으로서 5가지의 역량을 세부적으로 적용하여도 같은 역량 군에 포함된 다른 역량들이 과정에서 길러지거나 경험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5개 역량을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중요한 내용으로 선정하여도 충분함. 또한 역량의 수와 관련해서는 10개 안팎의 역량 제시보다는 훨씬 현장적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림 IV-1] 미래의 인재상

○ 이에 따라 5대 역량을 포함하는 미래 인재상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현실적인 한계상황이나 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견하고 창의 혁신적인 안목으로 인내심 있게 해결할 수 인재, 그리고 타인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사회시민으로서 큰 안목에 따라 설득과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

○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학교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ATC21S에서 제시하는 방식과 같이 질적(정성적) 평가(Qualitative Evaluation)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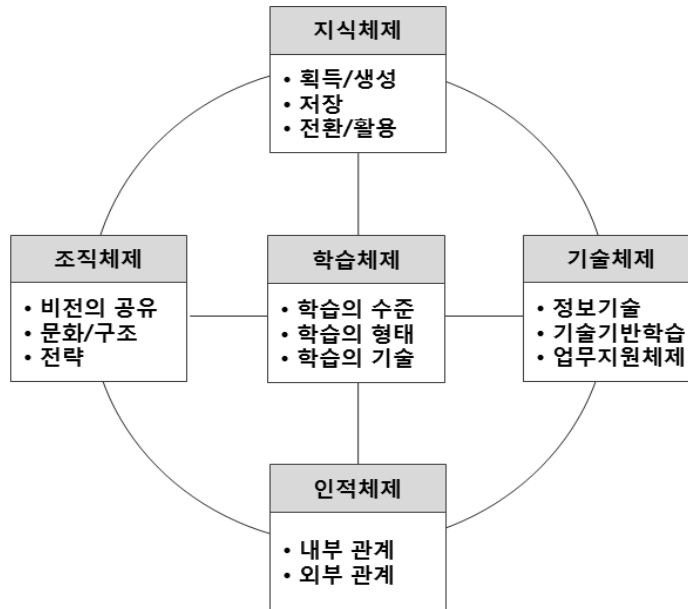
공식 내신평가화하여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함. 궁극적으로 내신의 35%정도를 차지하는 수행평가의 50%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평가되도록 하여(즉, 총 내신의 16.5%정도), 실제 교실의 교수학습 현장에서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자기주도력'과 '협동력'이 길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임.

2. 미래의 학교상

가. 교원의 전문성에 기반한 학교의 학습조직화

- 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학교의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예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우리나라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다문화 사회의 급진전, 교육 수요의 다변화, 학교폭력 문제의 심화 등이 직접적인 영향요인이라고 한다면, IT 기술과 SNS의 발달, 경제 성장의 둔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통일시대의 대비 등은 간접적인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 교육의 독특한 특징인 학벌주의와 입시위주의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현안인 교육문제 해결에 매몰되어 있으면 미래 학교의 구상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고 우리 학교교육의 미래가 매우 어렵게 될 수 있음. 오히려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학교체제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변화가 필요함. 이는 기존 공교육 체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적응 학생의 증가 등 공교육의 위기라 비판받는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3차 델파이에서 OECD 산하의 CERI(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가 제시한 미래의 학교교육 시나리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학교 재구조화 방향으로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가 4.43점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탈학교로서의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이 3.74점, 재구조화 방향으로 ‘사회 센터로서의 학교’가 3.57점의 동의를 받았음. 반면에 현재의 관료제적인 학교 체제를 유지하거나 교사의 탈출로 인한 학교의 붕괴는 매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습조직이란 일상적인 업무활동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창출·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환경을 주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며 조직원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조직을 의미함(정제영, 2004). 학습조직이란 환경변화를 감지하여 조직의 지혜로 축적하고 이를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실천해 가는 조직에 가까우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축적된 지혜를 바탕으로 창조성을 발휘하여 환경을 이끌고 나가는 창조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 학교의 학습조직화를 위해서는 학교 상황에 적합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함. 특히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과 지식경영 방식을 학교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학교의 학습조직화 모형은 다섯 가지 하위체제를 가지며, 또 각각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있음. 학습체제는 학습의 수준, 학습의 형태, 학습의 기술로 구성되며, 조직체제는 비전의 공유 수준, 학습의 문화, 학습에 용이한 구조, 조직학습을 위한 전략으로 구성되고, 인적체제는 학교 내부의 관계와 학교 외부의 관계로 구성됨. 지식체제는 지식이 획득, 생성, 저장, 전환·활용되는 과정으로 구성되고, 기술체제는 정보기술의 습득 수준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수준, 업무에의 활용 수준으로 구성됨(정제영, 2004).



[그림 IV-2] 교원의 전문성에 기반한 학교의 학습조직화를 위한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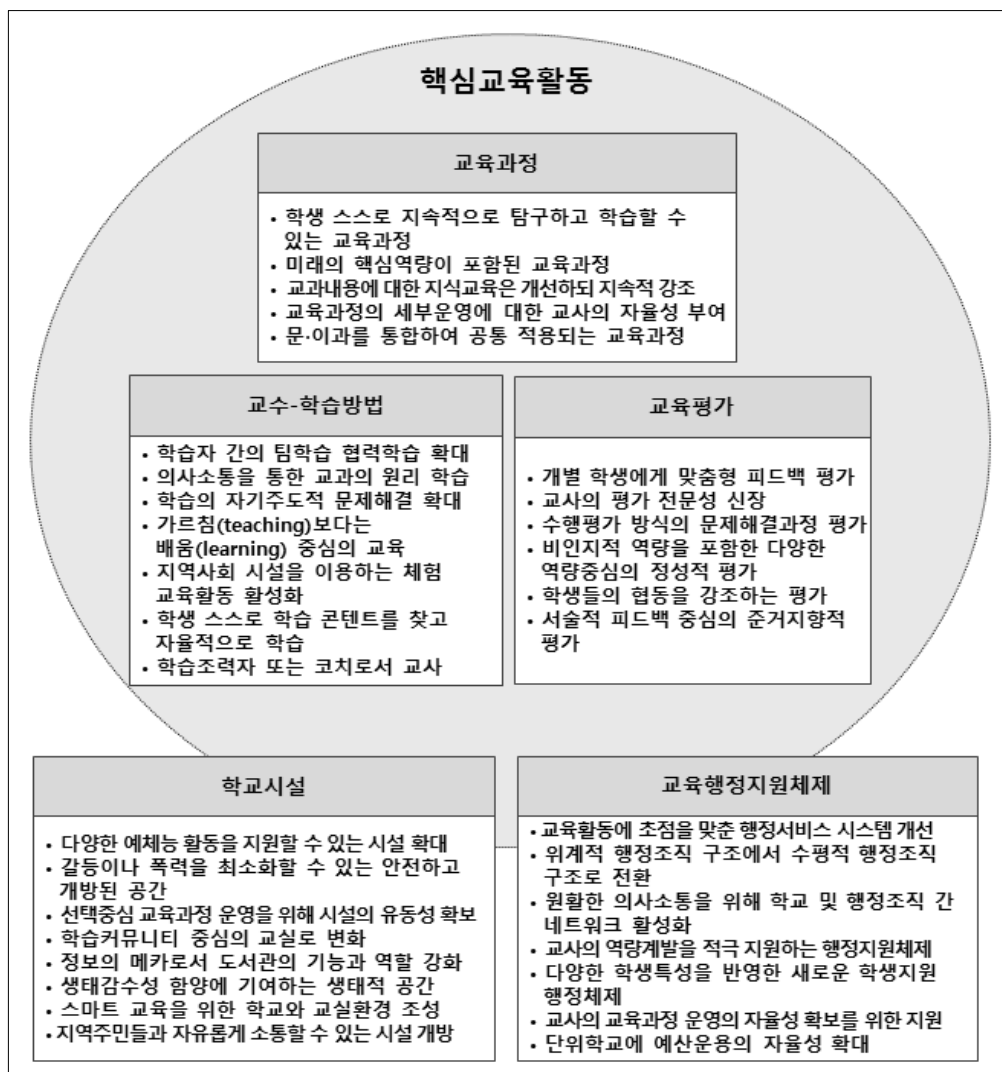
- 학습조직의 기반이 되는 하위 다섯 가지 체제는 개념상의 구분에 의한 것으로 실제 이들 간에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스마트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의 발달로 학습조직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은 더욱 발전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의 학습조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들에게 체화되어 있는 지식의 형태인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언어로 표현되는 형식지의 형태로 전환하는 매뉴얼화의 과정이고, 매뉴얼화 되어 있는 형식지를 다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환하고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나. 미래의 학교상 : 학생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 학교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결과 생산가능인구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 한명 한명의 재능을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할 상황임.

-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 결과를 중심으로 미래의 학교상을 제안하고자 함. 미래의 학교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 등 핵심적인 교육활동의 측면과 학교시설, 교육행정지원체제 등 여건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고, 미래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과 팀학습 및 협력학습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었음. 교육평가의 관점에서는 수행평가 방식의 문제해결과정을 중심으로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음.
- 학교 시설의 측면에서는 체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학교 내 갈등이나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 마련,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유동성 확보 등이 제시되었음.
- 교육행정지원체제의 경우 학교의 핵심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그림 IV-3] 미래의 학교상

○ 최근 ‘칸 아카데미(Khan Academy)’는 인터넷 상에서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음. 칸 아카데미는 누구나, 쉽게, 무료로, 배우고자 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 제공을 하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온라인 교육의 장점으로 오랫동안 제시되어 왔는데, 칸 아카데미에서 실제 실현되어 2012년 현재 월

간 600만 명이 넘게 접속하여 1억 4천만 회의 동영상 재생이 이루어졌고, 학습자들이 5억 개에 가까운 연습문제를 풀었음. 이처럼 세계적인 호응을 얻은 학습 사이트는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살만 칸(Salman Khan)이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와 교육의 미래상을 제시한 책이 'The One World Schoolhouse'임(Kahn, 2012).

○ 근대적 학교 모델에 대한 비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익숙함. 저자가 제시하는 학교의 미래형 모형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이 쏠리게 됨. 칸이 제시한 새로운 학교모형을 '한 교실 통합학교 모형'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임. 나이가 다른 100명의 아이들과 5명 정도의 교사가 함께 하나의 교실을 구성하고, 개개인의 학생들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내용을 수준에 맞추어 학습해 가는 것임. 본인이 완전하게 이해한 후에 다음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절대기준 평가에 맞추어 성적은 'A'만이 존재하고, 방학은 필요에 따라 휴가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칸의 새로운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서당'을 연상시킴. 훈장님의 지도와 조언 아래 학생이 본인의 능력과 진도에 따라 스스로 '자기조절학습'을 하는 모습임.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의 졸업장을 대체하는 과목별 학력 인증체제를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방식임. 대학은 더 많은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취업 기회를 확대해 주게 됨. 이러한 학교체제는 취약계층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전통적인 학교교육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임. 교과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다만 학교교육에서 지식 전달을 위한 역할 이외에 학생

의 인성과 감성,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배려 등 사회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core competences)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음. 학교의 새로운 모델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세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상당히 긍정적인 학교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음.

3. 미래의 교사상

- 21세기 필수 역량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는 21세기 역량 증진을 위하여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청하였고, 그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함(Bellanca & Brandt, 2010).
- 교수자의 지식 전수가 아닌 학습자의 참여적 지식 구성, 추상화된 정보의 습득이 아닌 실제적인 지식의 적용, 경험의 장이 형식적인 학교환경에서 학교 밖의 환경으로 확대되는 미래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면 교사의 역량을 가르치는 일 자체에 국한하기 보다는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허희옥 외, 2011).
- 다시 말하면, 교육 맥락은 실천 지향적, 상황 맥락적 특성을 가지고, 암묵적, 절차적, 방법적 지식과 관련이 있는 복잡한 활동을 수반하기 때문에(진성희, 나일주, 2009),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미래 교사의 역량 역시 이러한 복잡한 맥락을 반영해야 함.
- 정미경 등(2010: 64-71)은 미래 사회가 요구할 인간상과 교사상의 변화를 인지적인 면과 범사회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제시한 후 이를 토대로

미래의 교원의 역량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미래 사회의 인지적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IV-1〉 인지적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의 변화

미래 사회의 인지적 변화	인지능력의 변화	교육의 역할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네트워크 발달 ▪ 인지혁명 ▪ 집단지능 	정보 습득을 위한 '기초적 인지능력' 필요	기초적 인지능력을 위한 교육 강화
	방대하고 다양한 양의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 인지능력' 필요	이해력, 창의인성, 통섭적 능력, 다양성의 존중 등 추가적 인지능력을 위한 교육 교육의 정보전달기능의 축소로 인한 다른 역할의 확대: 개별화 교육, 인성지도, 진로지도 등.

자료 : 정미경 외(2010).

- 정미경 등(2010: 64-71)이 제시한 범사회적 변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IV-2〉 범사회적 변화에 따른 미래 교육의 변화

지역사회	지역사회 및 사회전반	지구촌	세대간
지역사회와 학교교육의 보다 긴밀한 협력	다문화 사회를 위한 교육	세계화 교육 (상호의존성, 국제갈등 등)	생태학적 교육 (환경과학 + 생태윤리)

자료 : 정미경 외(2010).

- 미래의 교사 역량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미래의 교육적 변화 뿐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등 총체적인 변화의 조망에 기초하여 미래 교사의 역량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상에서 제시한 7가지의 변화를 교원 역량 범주로 환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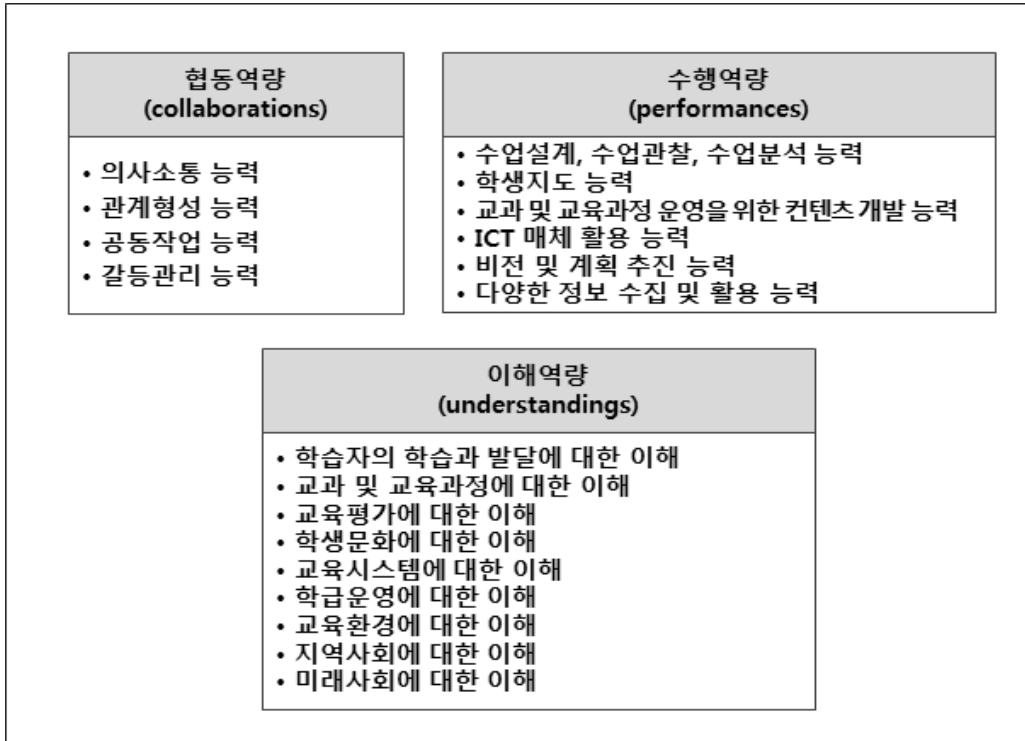
〈표 IV-3〉 미래 교원의 역량

영역	내용
1) 인지적 맥락	가) 정보습득을 위한 기초적 지적능력의 교육 역량
	나) 이해력, 창의력, 다양성의 존중 등 추가적 인지능력의 교육 역량
	다) 정보전달기능의 축소로 인한 개별화 교육, 인성지도, 진로지도의 역량
2) 범사회적 맥락	라) 지역사회와 학교교육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마) 다문화 교육의 역량
	바) 세계화 교육의 역량
	사) 생태학적 교육의 역량

○ OECD는 2002~2004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5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생애 핵심역량에 기초한 교사교육정책 국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으며, ‘Teacher matter: Attracting, development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다 나은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중요성, 지속적인 교사발달의 필요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현직 교육의 필요성 등을 강조함(OECD, 2011).

○ OECD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미래 교육과 교사 역량은 학습공동체와 전문적 수행기준 설정에 있으며, 특히 학생의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교사 자신의 학생이 이룬 성취가 매우 중요함. 미래에서 여전히 교사의 질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자격, 시험성적 등과 같은 요소로 평가 측정이 어려운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학생의 학습과 관련해서는 다음 같은 능력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함.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아이디어 전달하기, 다양한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환경 조성하기, 생산적인 교사-학생관계 만들기, 정열적이고 창의적이기, 동료교사 및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기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및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미래 교사의 역량을 구성함. 미래 교사의 역량은 크게 이해, 수행, 협동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그림 IV-4] 미래의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방향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방향

1. OECD 교원정책의 흐름

가. OECD 회원국의 교원정책 관련 관심 과제

- OECD 회원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원 관련 우선 추진 정책 과제는 두 가지 프로젝트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음. 우선 프로젝트 참여국의 전문가들로부터 교원인사 관련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내용을 담은 『교사가 중요하다: 우수 교사의 충원, 개발, 유지 (Teachers Matter: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2005) 보고서에서는 ‘교직의 유인체제 향상’, ‘교사의 선발, 임용의 적합성’, ‘우수교사의 확보 및 유지’, 그리고 ‘교사의 지식과 기술의 계발’을 교원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



[그림 V-1] OECD 회원국의 교원 관련 우선 추진 정책 과제

- 한편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및 교직 환경에 대해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던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의 결과보고서인 『TALIS로 부터의 첫 번째 결과(The First Results from TALIS)』(2009)에서는 [그림 V-2]와 같이 5가지 설문조사 영역을 선정하였음. 선정된 5가지 영역은 TALIS 참여국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원 관련 영역으로 앞서 제시한 OECD 회원국의 교원 관련 우선 추진 정책 과제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음. TALIS 설문조사를 위해 선정된 5대 교원 관련 정책 영역은 영역 1(우수 교사 확보), 영역 2(유능한 교사의 유지), 영역 3(현직 교사의 전문성 개발), 영역 4(교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정책), 영역 5(교사와 교수의 질)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V-2] TALIS 5대 조사 영역

- 이상의 두 가지 교원 관련 우선 추진 정책 과제를 비교하면 한 두 영역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TALIS 5대 조사 영역의 세부 사항까지 고려하여 비교한다면 두 가지 프로젝트가 제시하고 있는 교원 관련 우선 추진 정책 과제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즉, 프로젝트에 참여한 OECD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도 많은 교원 관련 정책 과제 중 거의 유사한 과제를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이 이상의 과제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음. 이와 함께 이상에서 제시한 교원 관련 우선 추진 과제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이 교원정책의 흐름 내지는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나. 교원정책 과제별 검토

- 앞서 살펴본 두 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원 관련 과제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은 과제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교사가 중요하다: 우수 교사의 충원, 개발, 유지(Teachers Matter: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함.

1) 교직으로의 유인체제 향상

- OECD 회원국들은 유능한 교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즉, 교원양성기관에 교사가 되기 위해 입문하는 학생들이 보다 유능한 인재들이길 원하고 있는 것임. 교원양성기관의 노력을 통해 물론 예비교사들의 잠재된 능력을 신장시킬 수는 있으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임. 이에 보다 유능한 인재가 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교원 양성기관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임.
- 이를 위해 OECD 회원국들은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교사로 진출한 후 받을 수 있는 보수수준을 비슷한 학위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되도록 적게 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교직으로 진출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하면서도 유연한 근무조건을 구축하려 하고 있음(예: 시간제 정규직 교사 등). 이외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들에게 교직의 입문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임.

2) 교사 임용의 적합성

- 우수한 교사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발·임용하려는 노력은 아마도 모든 나라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것임. OECD 회원국들 또한 선발 및 임용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장 교직에 적합하고 유능한 교사를 선발하려 함. 그리고 임용 방식에 있어서도 그 주체 또는 원칙이 점차 변하고 있는 상황임.
- 교사의 선발, 임용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OECD 회원국들의 방안은 다음과 같음. 우선 임용 방식에 있어 기존의 중앙에서 교사를 선발해 학교에 배치하는 ‘행정 관리 모형’에서 단위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사를 선발하는 ‘시장 관리 모형’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선발 및 임용 방식에 있어서 인터뷰, 수업지도계획, 수업시연 등을 선발 전형 방식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보다 많은 신규 교사를 선발하려 하고 있으며, 교사의 선발 및 임용에 있어 학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임.

3) 우수교사의 확보 및 유지

- 교직으로 우수한 인재가 입직하고 입직한 교사들이 타직종으로 이직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OECD 회원국들에게는 중요함.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교사의 수가 많은 다른 OECD 회원국에게는 이 문제가 중요한 교사 관련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평생직장으로써의 교직 구축이 그들에게는 시급한 것임.
- 우수교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선 교직의 승진체제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승진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고

있고, 교직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음. 그리고 교사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근무부담 및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권위적·지시적 학교장의 리더십이 아닌 협력적 학교장의 리더십과 그러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학교문화 창조에 힘쓰고 있음.

4) 교사의 전문성 개발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은 모든 나라에서 공감하고 있음. 그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일이라 하겠음. OECD 회원국들도 교원 관련 우선 추진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라고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임.
-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들 스스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교직 생애에 걸쳐 제작하기를 요청받고 있음. 포트폴리오에는 자신이 이제까지 받았던 교육 내용, 연수 내용, 다양한 교육 활동 등을 기록·관리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 개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되고 있음. 이와 함께 OECD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 개발 방식으로 초기 교사로 입직했을 때 충분한 입직 연수 제공 내지는 수습 교사제 운영을 들 수 있음. 교직에 입직한 초보 교사들에게 바람직한 교직 입문 관련 연수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앞으로의 교직 생활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시 여겨지고 있음. 그리고 수습교사제를 통해 교직에 입직한 초보 교사들이 교직에 적응할 수 있는 필요 시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OECD 회원국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임. 이외에 교사의 교직 생애를 긴 시간으로 보면서 생애 전체에 걸친 전문성 개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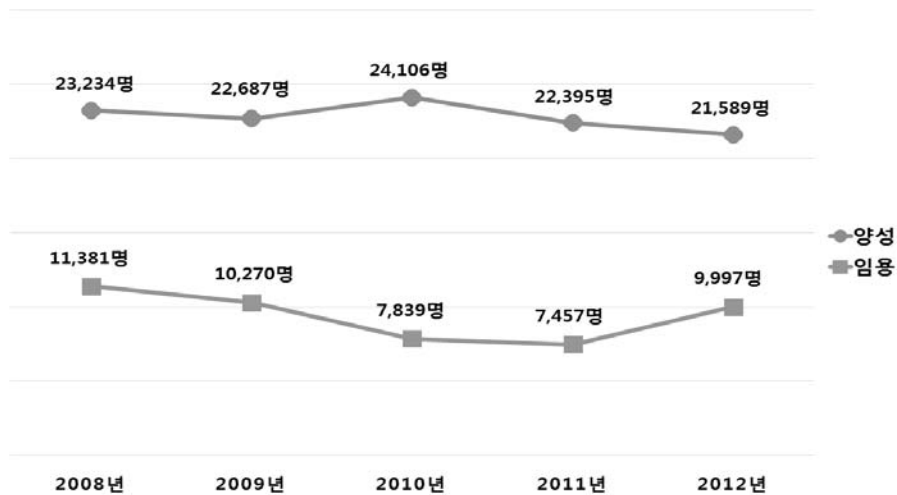
것 또한 OECD 회원국들의 중요한 교원 관련 우선 추진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2. 우리나라 교원 및 교직의 현황 분석

- OECD 회원국들의 교원 관련 우선 추진 정책 과제를 살펴보았음. 각 영역에 있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강점을 가진 부분도 있고 약점을 보이는 부분도 있음. 우리나라 교원 및 교직의 상황을 OECD 회원국들과 비교·검토하여 우리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향후 교원 정책의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가. 교직으로의 유인체제

- OECD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교사가 되기 위한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특히, 수학, 과학, 외국어 등의 과목에서 그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임. 즉, 교사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 특정 과목에서 공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자격이 없는 교사의 선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우리의 경우, 다른 직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간 활용 가능, 안정적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근무 조건, 법으로 보장되는 지위, 대중들로부터의 존경 등의 이유로 인해 많은 인재들이 교직에 진출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으로 몰리고 있음.
- OECD 회원국들과는 반대로 너무 많은 예비교사들이 양성되고 있고 그에 비해 임용되는 수는 적어 교사의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 점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많은 인재들 중에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는 우리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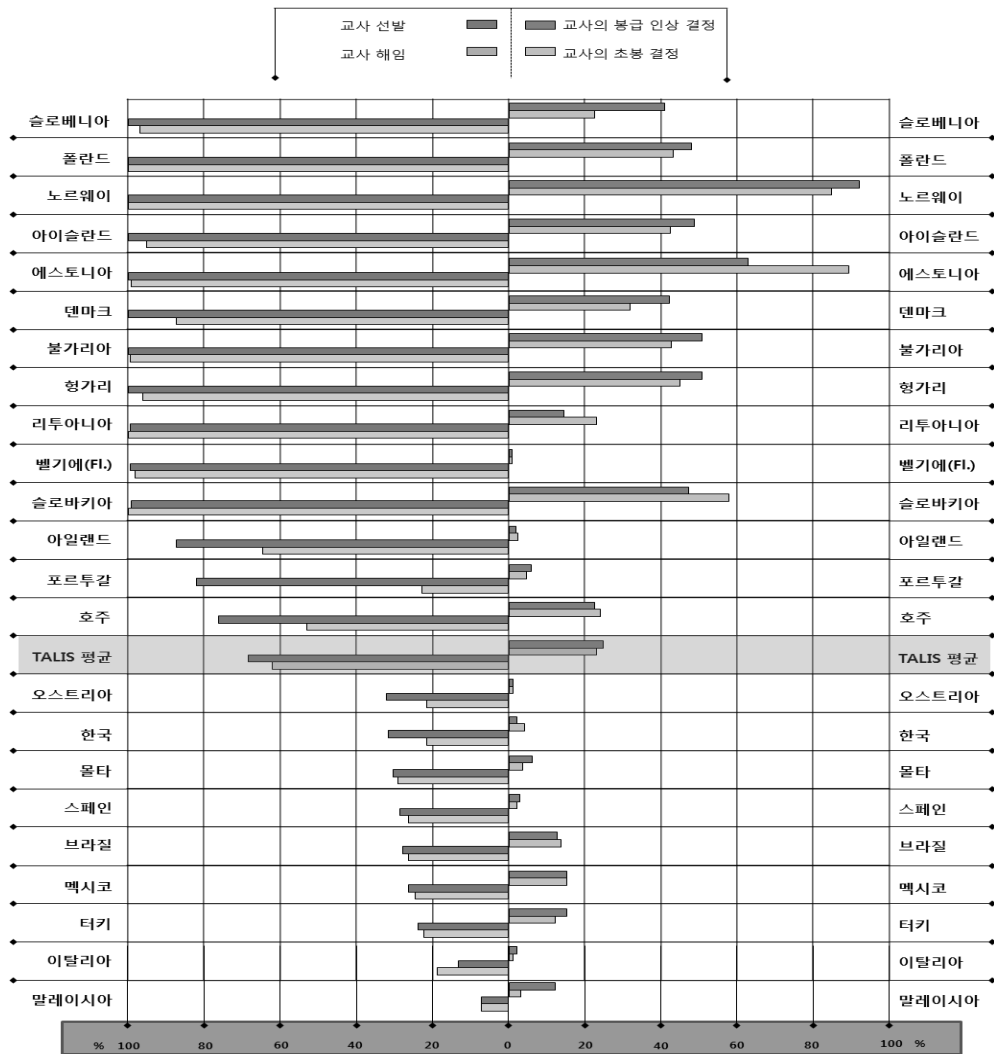


[그림 V-3] 교원 양성 및 임용 현황(2008~2012년)

자료 : 교육통계연보(2008~2012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2012)

나. 교사의 선발, 임용

- OECD 회원국들은 그들의 교사 선발 및 임용 방식이 가장 경쟁력 있는 교사를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원의 선발 및 임용 방식을 ‘행정 관리 모형’에서 ‘시장 관리 모형’으로 변화시키면서 단위학교에서 책임지고 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선발하고 임용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 [그림 V-4]는 TALIS 결과 중 교사의 임용 및 봉급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임. [그림 V-4]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들보다 교사의 선발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V-4] 교사 임용 및 봉급의 학교자율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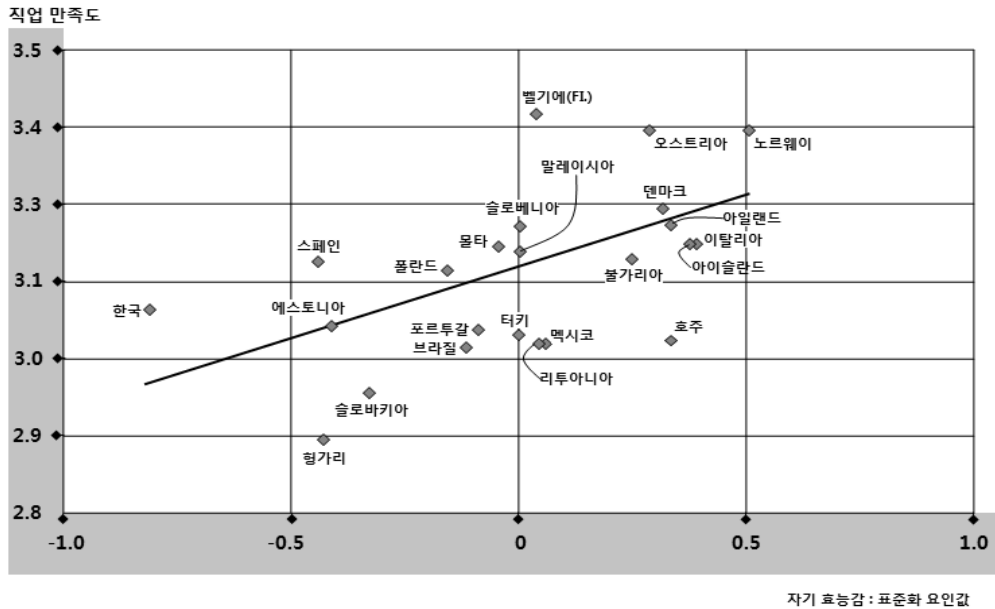
자료 : TALIS(2009)

- 우리와 같이 중앙 집중식의 교사 선발 및 임용 체제는 적은 비용으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사를 선발하기보다는 선발된 교사를 임의적으로 학교에 배치하기 때문에 학교가 원치 않는 교사가 학교에 근무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음. 이러한 교사의 선발 및 임용 방식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 우수교사의 확보 및 유지

- 우수교사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직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교직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노력임.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OECD 회원국들은 우수교사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지 않도록 능력에 따른 보상 강화, 교사 친화적인 교장 리더십 강조,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잘 훈련된 직원 지원, 근무 환경 개선, 탄력 근무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우수교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OECD 회원국들보다는 적을 수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직의 안정성 등의 우리나라 교직의 장점으로 인해 한번 교직에 입문한 교사는 타직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임.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은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퇴직 시까지 지속적으로 계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수교사의 확보 및 유지에 있어 OECD 회원국들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수교사의 확보 및 유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우리나라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정도임. TALIS(2009)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사(정확히 중학교 교사)의 자기효능감은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고 직무만족도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음.



[그림 V-5] 교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국가별 평균

자료 : TALIS(2009)

- 교사가 교사로서 자기효능감이 낮고 직무만족도 또한 낮다면 이직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헌신도 또한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임. 분명히 우리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우수 교사를 확보하고 유지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강점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낮은 교사들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우수성을 교육에 십분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교사의 승진 체제에 대한 문제도 OECD 회원국들 간에는 주요 개선 과제로 나타나고 있음.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의 교사 승진 체제는 관리자 중심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교직은 매우 수평적 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승진 체제라기보다는 평가를 통해 재계약 등의 계약 조건을 갱신하는 것임. 그러므로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평가를 효

과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에 모아져 있음. 능력 중심의, 역량 중심의 평가를 통해 교사들의 계약 조건을 변화시키는 물론 전문성 신장까지도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교장-교감-교사(1급, 2급 정교사)의 승진 체제를 가지고 있음. 우리의 승진 체제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만이 교육전문성 인정자격일 뿐, 교감, 교장 등의 상위자격은 교육전문성이 아닌 비본연의 행정 업무에 치중, 교사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의 어려움과 승진 준비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하는 무기력한 교직풍토 등을 들 수 있음. 이와 함께 교사의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감 자격 취득까지 상위 자격 취득의 기회가 없어 교사자격의 지속적 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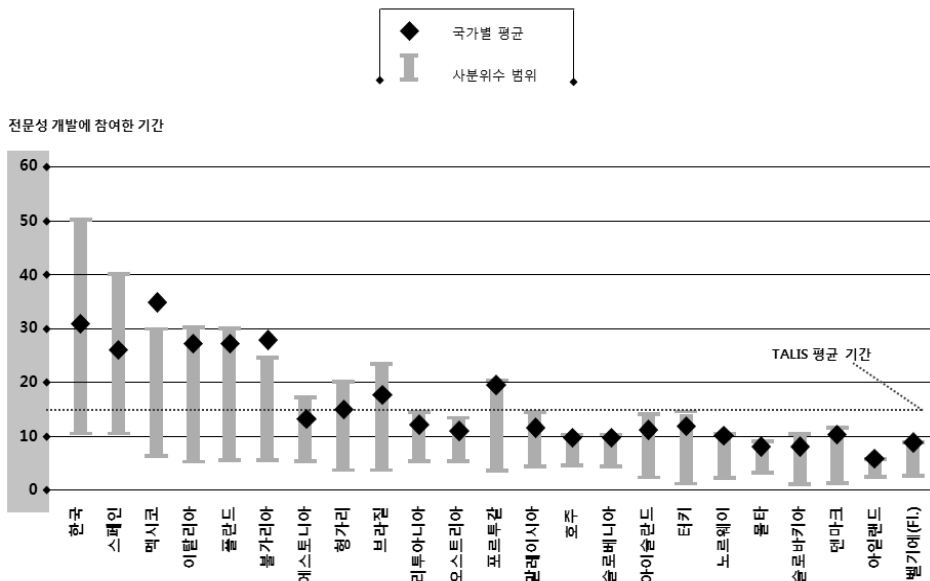
○ 물론 2011년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면서 우리나라 교사의 승진 체제에 변화가 나타났으나 앞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들에게 승진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음.

라. 교사의 전문성

○ OECD 회원국들이 교원 관련 우선 추진 정책 과제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교사의 전문성 계발이라고 앞서 언급하였음. OECD 회원국들은 지속적인 교사의 전문성 계발 활동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교사가 전문성 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길 요구하고 있고, 교직 생애를 걸쳐 그 노력이 지속되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새로 교직에 입직한 초임교사에 대한 멘토링, 초임교사 대상 연수, 수습기간 제공 등을 통해 초임교사가 학교에 적응하고 교사로서

의 역할을 입직 초기부터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우리의 경우에는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해 입직 후 연수보다는 입직 전 양성에 더 많은 집중과 투자가 있어왔음. 또한 교원양성기관의 평가는 1997년부터 시작되어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나, 교원연수기관의 평가는 2012년에 비로서 시범운영이 실시되었음. 이러한 이유로 교원연수기관 관련 다양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나라 교사의 전문성 계발과 관련한 문제점 중, 교사 개인에 따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에 있어 그 차이가 심하다는 것임.



[그림 V-6] 중학교 교사의 전문성 계발 참여 기간의 국가별 평균 및 사분위수 범위

자료 : TALIS(2009)

○ [그림 V-6]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교사들은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을 전문성 계발에 투입하고 있음([그림 V-6]에서 다이아몬드 표시 참조). 그러나 전문성 계발 참여 기간의 사분위수 범위([그림 V-6]에서 막대그래프 참조)가 넓은 것은 개인차를 의미하므로 개인에 따라 전문성 계발 참여 시간은 비교 대상국 중 가장 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 단위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완전한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사 경력별, 학교급별 등 교사가 처한 교직 환경에 따른 평가 문항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점은 빠른 시간 안에 보완되어야 할 것임.

마.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수준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OECD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교원 관련 과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강점과 약점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로축과 세로축 사이의 삼각형 끝이 길면 우리의 강점, 짧으면 우리의 약점으로 표시하였음.



[그림 V-7] OECD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 교원 관련 과제의 강·약점

- 우리나라의 경우 ‘교직으로의 유인체제 향상’과 ‘우수교사의 확보 및 유지’ 부분에서 OECD 회원국들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정부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산물이 아니라 교직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얻어진 결과라는 것임. 즉, 교직의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나 노력 없이도 많은 유능한 인재가 교직으로의 진출을 원하고 있고, 한번 교직에 진출한 교사는 정년까지 이직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교직의 선발, 임용의 적합성’과 ‘교사의 지식과 기술의 계발’ 부분에서는 우리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중앙 집중식 교사 선발 방식으로 인해 학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교사를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 노력에 있어 개인차가 너무 크게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우리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3. 미래 교원정책의 방향 탐색

- 교육은 인류가 시작됐을 때부터 존재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교육’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인성, 계획성, 의도성, 가치지향성을 기본 조건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인간을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을 통해 가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것임.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간은 지(智), 덕(德), 체(體), 기(技)의 조화로운 발달이 가능하여, 사회적·도덕적으로 성숙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정범모, 1981; 김신일, 2003).

- 인간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은 학생, 교육과정, 교사 등 세 가지 요소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과정과 학생이 교육에 있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능력에 따라 교육과정의 의도 및 학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상이할 수 있음. 그만큼 교육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을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함과 동시에 일선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능력 개발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원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OECD 회원국들 또한 교육에 있어서의 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사 및 교직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교원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음.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 결과는 『교사가 중요하다: 우수 교사의 충원, 개발, 유지 (Teachers Matter: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2005)와 『TALIS로 부터의 첫 번째 결과(The First Results from TALIS)』(2009)임.
- 미래 교육의 전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교원에 대한 것이며, 교원의 양성, 임용, 인사, 전문성 계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변화가 요구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교사에게 새로운 역량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 교원은 세계적으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고 있음.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도 한국의 교사에 대한 열정 및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이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음. 우수한 인재가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교사가 되고, 타 직종으로 이직하지 않고 전문성을 지속적으

로 계발하며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상황은 매우 이상적인 교직의 모습일 것임.

- 그러나 OECD 회원국의 교원 및 교직 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교원 및 교직의 약점이 발견되었고 강점 또한 나타났음.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약점은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비록 우리의 강점이라 할지라도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노력도 필요함. 이에 우리의 교원 및 교직의 한 단계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미래형 교원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가. 교원양성교육 및 임용 체제 개선

1) 미래형 교원양성교육 체제 구축

-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직과정 등의 교육과정이 여전히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현장에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음.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사상에 맞는 교사양성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국가 수준에서 교사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교원양성기관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교원양성기관평가의 목적은 명목적으로 교원양성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원양성기관의 현장 적합성 제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교원양성기관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0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OECD 교원정책 검토단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특정 교원양성기관 또는 경로를 폐쇄하는 등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개개 기관별 교원양성기능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가 진행되거나 개별 교원양성기관이 스스로 구조적 개혁을 통해 양성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가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를 들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양성기관에게는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기관의 질적 개선을 유도한다든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양성기관에게는 ‘우수 교원양성기관 인증’ 등을 부여해 양성기관 스스로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교육적·사회적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교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보다 많은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현장 적응성 제고를 위한 교사임용체제 개선

-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된 우수한 인재 중 교사를 선발하여 임용함에 있어 그들의 지적 능력보다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수업 실행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교사임용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 이미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초·중등 교사선발 및 임용방식이 자질과 능력 검증 방식으로 변화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교사를 선발 및 임용함에 있어 예비교사들의 자질과 능력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예를 들어, 교사 선발 단계의 마지막 절차로 1주에서 2주의 합숙연수 평가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자질과 수업 수행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선발 방식을 강화해야 함.

-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만 되고 있는 수습교사제(인턴교사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교원임용고사 합격자들이 학교로의 발령 이전에 교직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하고 미처 준비되지 못한 교사로서의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임용 단계에서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나. 미래 교사상에 맞는 교원 전문성 계발 체제 구축

1)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자기효능감 강화

- 미래의 교육에 대비하여 교사들이 자신의 관심 영역에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Lambert(1998)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한 학교가 학생의 성취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언급하였음.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가장 좋은 예는 단위학교 내에서 교과별로 또는 학년별로 관심이 일치하는 교사들끼리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것임. 단위학교 내 활발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은 학교의 발전 및 목표 달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소그룹이 될 수 있음.

- 단위학교 내에서 효과적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성이 불가능 하다면 인근 학교 내지는 지역 단위에서의 연계를 통해 이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임. 이를 위한 정부,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함.

2) 미래형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적 연수 강화

-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학교가 적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 교사들의 변화와 전문성 계발이라고 할 수 있음.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기기에 대한 활용 능력은 학생들이 교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고, 스마트 리터러시가 교사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대해 기존의 전문성 강화 연수와 함께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교육의 문제, 생활지도의 문제 등에 대한 연수와 함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연수도 강화되어야 할 부분임.

- 우리나라 교사의 전문성 개발 일수는 TALIS 참여 국가 평균보다 많은 30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교사들의 개인별 연수 참여 일수의 격차는 TALIS 참여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 간에 지속적 연수를 통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노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차이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개인 간의 연수 참여도 차이를 줄이고 모든 교사들이 고루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교사에게 최소 의무 연수 시간의 부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든 교사들이 자기 계발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 연수를 계속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와 함께, 교사가 자신이 이제까지 이수한 연수 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연수만을 이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 또한 필요함. 즉, 연수 선택의 편식을 방지하면서 최소한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임.

3) 미래형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적용

- 미래 학교상에 부합하는 미래 교사상을 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2010년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국 공통 모형이 교육부로부터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학교가 여건에 따라 정

해진 범위 내에서 수정을 통해 단위학교에 적용되고 있음.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교사들에게 맞춤형 연수가 되고 있음.

- 이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임. 과거나 현재의 성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교사의 역량을 진단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항과 함께 전문성 계발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평가 문항 지표가 학교급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도 차별적 평가 문항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음. 장학에서도 교사의 경력에 따라 선택적 장학이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에 있어서도 교사의 경력에 따라 달리 평가 문항 지표가 적용되어야 함. 저경력 교사에게는 교수-학습이 중심이 되는 평가 문항 지표를, 고경력 교사에게는 자신의 수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문항 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임. 이외에 중등의 경우, 과목별로 또는 교과군별로 차별화되고 교사들에게 평가 결과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평가 문항 지표 개발 또한 요구됨.

다.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유지

1) 수석교사제의 개선

- 2011년에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석교사제는 우수교사의 인정 및 유지에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음. 우수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리직으로의 승진 경쟁 과열 완화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수석교사제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임.
-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시행됨에 따라 문제점 또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주목해야 할 문제는 수석교사의 학교 내 위상임. 수석교사의 학교 내

위상에 대해 일반교사들은 그들의 학교 내 위상이 교감급인지, 아니면 일반부장교사급인지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수석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수석교사가 학교 내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는 권한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공이 필요함. 특히 수석교사가 미래 지향적으로 학교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예를 들어 신입 교원에 대한 멘토링 역할을 통해 현장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현직 교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의 최고 전문가로서 학교 내에서 그 위상을 인정받을 때 제도의 성공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임.

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원정책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발표되고 있음. 그것은 교원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표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교무행정지원인력을 확대·배치하는 것임.
- 또한 시·도교육청이 학교교육 통계정보를 관리·제공하도록 입법화하는 것, 에듀파인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추진을 통한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것,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성과급평가 실시시기를 일원화하면서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것을 통해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는 사항 등임. 이러한 노력은 우수한 교사들이 교직에서 자신의 전문성 계발뿐만 아니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교사의 유지 방안에 포함될 수 있음.

-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교사로서의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교원정책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임.
- 주요 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업무 폐지 및 간소화, 학교업무의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 표준화된 업무분장안 제시, 보조인력의 효율적 운영, 학교업무의 명확화 등이 포함됨.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방안으로, 교사의 행정업무가 줄어들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사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인 것임.

참고문헌

- 강경석·김영만(2004). 교사발달 단계에 따라 교사의 직무능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10, 1-33.
- 강명희(2009). 미래학습자와 교육성과. 2009 한-OECD 국제세미나 : 새천년 학습자 및 교원 주제발표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석주(2004). 중등학교 담임교사 역량 탐구. 교육학연구, 42(4), 237-264.
- 강성국 외(2008). 미래교육정책 어젠다.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영혜·박소영·김민조(2009).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 : 교육복지 강화형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곽병선(2009a). 미래형 교육과정 : 내용 바꾸고 교육과정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교육개발 2009년 03월 통권167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곽병선(2009b). 미래형 교육과정을 생각한다. 교육정책포럼 2009년 통권188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곽병선·김세곤·박소영·박엘리사·서보상·전제상·조경옥(2012).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한국학교교육연구원.
- 곽영순(2013).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한 핵심역량 재구조화 방안. 지구과학교육, 34(4), 378-387.
- 교육과학기술부(2008~2012). 교육통계연보.
- 권낙원(2011). 한국의 교육학 한국교육 100년사(제1권): 한국미래교육 100년을 위한 수업모형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 권혁운(2010).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7(3), 191-214.
- 김갑성·김이경·박상완(2011). 교원 및 교직원환경 국제 비교 연구-1주기 TALIS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경자(2010).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일 고찰. 한국교육과정학회.

- 김기태 · 조평호(2003). 미래지향적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기현 외(2009). 청소년 생애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대현(2009). 미래형 교육과정 구조 및 실효화 방안에 대한 논의. 교육혁신연구. 교육혁신연구위원회.
- 김명신(2010). 혁신교육: 한국교육의 새 패러다임. 동량커뮤니케이션즈.
- 김승보 · 박태준 · 김경애 · 김진숙 · 이해숙(2010). 2010년도 미래교육공동체포럼 운영.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 김신일(2003). 교육사회학. 파주: 교육과학사.
- 김영철 · 박재윤 · 김홍주 · 윤종혁 · 김태은(2006).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이경(2004). OECD 한국교원정책 검토 사업 참여와 시사점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이경 · 한만길 · 박영숙 · 홍영란 · 백선희(2005). 교원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 및 기준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 · 김기수 · 정미경 · 홍인기(2012). 미래형 교사교육체제 구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 · 박소영 · 김기수 · 정미경(2011).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모(2001). 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직업교육연구, 20(2), 1-20.
- 남윤서(2012. 5. 23). 21세기 교육, 인터넷 통한 문제해결 능력으로 평가해야. 동아일보.
-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2007).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교육비전 2030.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류방란(2004).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CERI의 미래 학교 전망 시나리오에 대한 교육계 리더들의 인식. 한국교육, 31(1), 21-45.

- 류성창 · 김태완 · 장혜승 · 서예원 · 권기석 · 박종효(2011). 스마트 세대를 위한 KEDI 교육 미래비전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성창 · 장혜승 · 서예원 · 강태훈 · 정제영(2012). 역량 중심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 탐색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청산(2011).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등교육의 미래 시나리오. 정보와사회, 19.
- 박덕규(2000). 교원의 승진평정 체제 개선 및 합리적 평가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덕규 · 김지순 · 방대곤 · 손동수(2003).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설정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세일 · 서정화 · 박정수 · 홍후조 · 김태완 · 김성열 · 권대봉 · 천세영 · 성태제(2010). 대한민국 교육정책: 과거 · 현재 · 미래: 5 · 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 전략.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영숙(2010). 2020 미래교육보고서 Myths & legends of Africa. 경향미디어.
- 박영숙 · 신철지 · 정광희(1999). 학교급별, 직급별, 취득자격별 교원 직무 수행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윤 · 양승실 · 윤종혁 · 김태은 · 김성기 · 김용남 · 황준성 · 박진아(2007).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Ⅱ).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윤 · 이해영 · 정일환 · 김용(2008). 세계화 시대의 교육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재윤 · 이정미(2010). 미래 교육비전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백순근 · 함은혜 · 이재열 · 신호정 · 유예림 (2007). 중등학교 교사의 교수역량 구성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8(1), 47-69.
- 성태제(2006). 개인화 종합평가시스템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9(2), 121-138.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오영석 · 배정환 · 박인휘 · 조명철 · 한만길 · 황지호 · 김승권 · 양현미(2007). 2020/2050 미래전망 토론회. 미래기획위원회.
- 유영의(2011). 미국과 캐나다의 유아 교사 핵심역량 분석과 교육적 시사. 교육사상연구, 25(2), 153-177.
- 유키코 이노우에(2010). 미래교육공학연구회 옮김. 온라인 교육과 평생학습.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유현숙 · 이정미 · 최정윤 · 임후남 · 권기석 · 서영인 · 류장수(2011).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샘이나(2012. 7. 17). PISA ‘협동 문제해결 능력’ 추가. 서울신문. 25.
- 윤현진(2008). 미래 한국인에 필요한 역량과 도덕, 윤리 교육. 한국윤리학회.
- 이경진 · 최진영 · 장신호(2009). 초등교사의 핵심역량 수준 및 교직경력별 핵심역량 수준 차이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6(3), 219-240.
- 이종태(2007). 지금은 교육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다. 교육정책포럼 2007년 통권145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흥민(2009). 역량평가. 서울: 리드출판.
- 이흥민 · 박양규 · 시춘근(2010). 수석교사 역량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개발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이혜영(2011).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 Position Paper 제8권 제2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 · 강영혜 · 박재운 · 김태은 · 한준(2007). 교육비전 중장기 교육계획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 · 강영혜 · 박재운 · 나병현 · 김민조(2008). 미래 학교 모형 탐색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 · 강영혜 · 권기석 · 김지하 · 박병영 · 정미경(2011).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임용경(2007). 미래사회의 특성과 도덕 · 윤리와 교육의 정체성. 도덕윤리과 교육연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장선영 · 박인우 · 김명랑 · 엄미리(2008). 교사 역량에 대한 교사와 예비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30, 79-107.
- 전제상(2000). 교사평가의 준거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전제상(2013). 꿈과 끼를 키우는 교원 전문 역량 강화 방안. 한반도선진화재단 교육연구소 오픈 세미나 자료집. 47-80.
- 정미경 · 김갑성 · 류성창 · 김병찬 · 박상완(2010).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범모(1981).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 정재걸(2010). 오래된 미래교육: 자기 안에 있는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만두모형 교육관. 서울: 살림터.
- 정제영(2004). 초 · 중등학교의 지식경영 수준과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환보(2012. 7. 16).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앞으로는 협동이 중요. *경향신문*.
- 조대연(2009). 교사발달단계별 직무역량 요구분석: 서울 초등학교사를 대상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365-385.
- 주삼환(1996). 교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사의 직무 수행 모형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
- 진성희 · 나일주 (2009). 초등교수역량요소 도출 및 예비초등교사와 초등교사 간 교수 역량 인식 비교. *초등교육연구*, 22(1), 343-368.
- 채정현 · 유태명 · 이수희(2010). 가정교육학의 사회적 기여와 미래 비전.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10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가정과교육학회.
- 최돈형(2005). 지속 가능한 미래와 학교환경교육. 한국환경교육학회 2005년 전반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환경교육학회.
- 최상덕 · 김진영 · 반상진 · 이강주 · 이수정 · 최현영 (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정재(2008). 유비쿼터스 시대의 미래교육시스템과 홈스쿨링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한국교육공학회.

- 최진영 · 이경진 · 장신호 · 김경자(2009). 초등학교 교사의 핵심역량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5(3), 103-130.
- 한국교육개발원(2006). 미래사회 변화 전망과 학제. 제1회 학제 연구 정책토론회 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학회 ·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 KSSE · 중앙대학교(2006). 미래사회의 학제 2. 한국교육학회 2006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학회.
- 허경철(2013). 우리나라 미래 교육평가의 방향.
http://21erick.org/bbs/board.php?bo_table=11_5&wr_id=100011&page=0
- 허희옥 · 임규연 · 서정희 · 김영애(2011). 21세기 학습자 및 교수자 역량 모델링. 연구보고 KR2011-2.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허희옥 · 임규연 · 김현진 · 이현우(2013). 스마트교육을 위한 교원역량 진단 도구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2), 151-173.
- 홍순정 · 장은정 · 서운경(2004). 원격교육 교수자의 역량 모델 규명.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0(2), 81-112.

- Bellanca, J., & Brandt, R. (2010). *21st century skills: Rethinking how students learn*. Bloomington, IN: Solution Tree Press.
- Bernie Trilling · Charles Fadel(2009).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JOSSEY-BASS.
- Boyatzis, A. R.(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 John Wiley.
-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CERI)(2001). *Educational policy analysis 2001*. Paris: OECD.
- Dominique S. Rychen · Laura H. Salganik(2000). *Defining and Selecting K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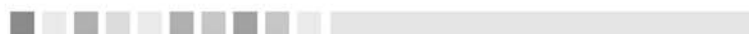
- Competencies: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Gottingen, Hogrefe & Huber Publishers.
- Furman, G. (2002). *school as community: From promise to practi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lickman, C. D., Gordon, S. P., & Ross-Gordon, J. M. (2010). *SuperVision and Instructuinal Leadership*. Boston: MA, Pearson.
- Griffin, P. (21 September 2012). *Changing tests and the PM's 2025 goal for schools*. The Conversation.
- Griffin, P, McGaw B. & Care, E. (Eds.) (2012).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Dordrecht, Germany: Springer.
- Herman, J. L., Aschbacher, P. R. & Winters, L. (1992) *A practical guide to alternative assessment*.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Holmes, I.(1995). "HRM and the irresistible rise of the discourse of competence". *Personnel Review*, 24(4), 34-49.
- Lambert, L. (1998). *Building leadership capacity in schools*. Virgini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Levy, F., Murnane, R. (2005). *The new division of labor: how computers are creating the next job market*.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cClelland, D.(1993). Introduction. In L. Spencer & S. Spencer(Eds.),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pp. 3-8). New York: John Wiley & Sons.
- Khan, S. (2012). *The One World Schoolhouse*. London: Hodder.
- King, E. (2010). *Education and new global challenges*. Global HR Forum 2010, Seoul, Korea.

- OECD(2001). *Teachers for tomorrow's schools*. Paris: OECD.
- OECD(2002). *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DeSeCo): Theoretical and conceptual foundations Strategy paper*. Paris: OECD.
- OECD (2005). *Teachers Matter: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Paris: OECD.
- OECD (2009). *The First Results from TALIS*. Paris: OECD.
- OECD (2012). *OECD work on Education 2012-2013*. OECD.
- OECD (2012). PISA 2015 DRAFT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FRAMEWORK. <http://www.oecd.org/pisa/pisaproducts/Draft%20PISA%202015%20Collaborative%20Problem%20Solving%20Framework%20.pdf>
- Rene Tissen and others(1998). *Value-Based Knowledge Management*. LONGMAN & CO.
- Rychen, D.(2003). *Investing in competencies- But which competencies and for what?* A contribution to the ANCLI/AEA conference on assessment challenges for democratic society(conference paper) . Conference in Lyon, November 2003.
- Spencer, L., & Spencer, S.(1993). *Competency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2007). *Professional standards for teachers in England from september*. UK, London: Training and Development Agency.

스위스 경제연구소 홈페이지

URL <http://globalization.kof.ethz.ch> (2011년 11월 1일 접속)

ATC21S 웹사이트 <http://atc21s.org/> (2013년 11월 27일 접속)



부 록

부록

[부록 1]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시사점 탐색 연구(1차)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시사점 탐색 연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정제영입니다.

교육 내·외부의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학교상과 교사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의 전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교원에 대한 것이며, 교원의 양성, 임용, 전문성 계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 연구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가 진행될 예정)를 실시하여, 미래 인재상, 학교상, 교사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지향적 교육체제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처리를 통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연구진 일동 올림

연구책임자 정제영(이화여대)

공동연구원 강태훈(성신여대)

김갑성(한국교원대)

류성창(국민대)

윤홍주(춘천교대)

I.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에 대한 군집분석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을 적용한 교육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학교의 평가는 학생들이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전통적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엄청난 발전, 지식기반의 글로벌 경제의 도래 등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학교교육을 통해 길러지기를 바라는 역량에 대한 새로운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OECD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의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교육과정 및 평가에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Griffin, McGaw and Care, 2012: 301; OECD, 2005; 류성창 외, 2011).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Griffin 등(2012)은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생각의 방식, 일하는 방식, 일하는 기술, 세상에서의 삶’ 등 4가지 범주로 나누고, 10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Ways of Thinking</i> 생각의 방식	Creativity and innovation 창의성과 혁신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decision making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능력 Learning to learn, Meta-cognition 학습역량, 상위 인지능력
<i>Ways of Working</i> 일하는 방식	Communication 의사소통능력 Collaboration (teamwork) 협업능력
<i>Tools for Working</i> 일하는 도구	Information literacy 정보문해력 ICT literacy 정보통신기술
<i>Living in the world</i> 세상에서의 삶	Citizenship 시민의식 Life and career 삶과 경력 관리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including cultural awareness and competence 개인적 사회적 책무성

* 자료 : Griffin et al.(2012). p. 36.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연구에서는 OECD의 DeSeCo에서 제시한 9개 역량, ATC21S에서 제시한 10개 역량, P21의 9개 역량, 그리고 정범모(2011)가 제시한 10개 미래 능력에 「스마트 세대를 위한 KEDI 교육 미래비전 연구」에서 제시한 8개 역량을 종합한 34개의 역량의 항목들에 대하여 전문가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상위 10개 역량을 도출하였습니다.

역량 항목	델파이 3차 응답 결과	
	평균	표준편차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4.79	0.419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4.68	0.478
창의성	4.68	0.478
문제 해결 능력	4.63	0.496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4.63	0.496
커뮤니케이션 능력	4.58	0.607
도덕성	4.53	0.697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4.47	0.612
대인관계능력	4.42	0.692
끈기와 인내	4.42	0.767

다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10개의 역량에 대하여 모든 두 쌍(pairs)의 관계를 “개념의 유사성 혹은 상이성”이라는 측면에서 0부터 5의 척도 상에서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은 두 역량이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는 의미

5는 두 역량이 공유하는 측면이 전혀 없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라는 의미

연번	Pairs	두 역량 간의 거리					
		0	1	2	3	4	5
1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2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창의성						
3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문제 해결 능력						
4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5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커뮤니케이션 능력						
6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도덕성						
7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8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대인관계능력						
9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 끈기와 인내						
10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 창의성						
11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 문제 해결 능력						
12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13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 커뮤니케이션 능력						
14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 도덕성						
15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16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 대인관계능력						
17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 끈기와 인내						
18	창의성 - 문제 해결 능력						
19	창의성 -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20	창의성 - 커뮤니케이션 능력						

연번	Pairs	두 역량 간의 거리					
		0	1	2	3	4	5
21	창의성 - 도덕성						
22	창의성 -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23	창의성 - 대인관계능력						
24	창의성 - 끈기와 인내						
25	문제 해결 능력 -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26	문제 해결 능력 - 커뮤니케이션 능력						
27	문제 해결 능력 - 도덕성						
28	문제 해결 능력 -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29	문제 해결 능력 - 대인관계능력						
30	문제 해결 능력 - 끈기와 인내						
31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 커뮤니케이션 능력						
32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 도덕성						
33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34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 대인관계능력						
35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 끈기와 인내						
36	커뮤니케이션 능력 - 도덕성						
37	커뮤니케이션 능력 -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38	커뮤니케이션 능력 - 대인관계능력						
39	커뮤니케이션 능력 - 끈기와 인내						
40	도덕성 -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41	도덕성 - 대인관계능력						
42	도덕성 - 끈기와 인내						
43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 대인관계능력						
44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 끈기와 인내						
45	대인관계능력 - 끈기와 인내						

II. 미래의 학교상

현재 학교는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의 학교 모습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과정 측면에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방법 측면에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평가 측면에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학교시설 측면에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행정지원체제 측면에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Ⅲ. 미래의 교사상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 학교에 적합한 미래 교사의 모습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Knowledge)에 대해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의 관점에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Skill)에 대해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의 관점에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Attitude)에 대해 ‘교사-학생’ 관계, ‘교사 간’ 관계, ‘교사-학부모’ 관계의 관점에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시사점 탐색 연구(2차)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시사점 탐색 연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정제영입니다.

1차 델파이조사에 응답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1차 조사 결과를 분석·정리하여, 2차 조사지를 구성하였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 순위 10위 안에 들었던 역량들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부 역량에 대한 강조점을 찾고자 역량 간의 거리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섯 가지의 역량군(Skill Groups)이 도출되었습니다. 단순히 역량군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현실성 제고와 개념 정리를 위하여 세부 역량 다섯 가지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어 본 2차 조사를 통해서 각 역량군에 대한 세부 역량 명을 정하려 합니다. 또한 미래 학교상 및 교사상에 대해 보내주신 의견을 정리하여 이에 동의하는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시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처리를 통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연구진 일동 올림

연구책임자 정제영(이화여대)

공동연구원 강태훈(성신여대)

김갑성(한국교원대)

류성창(국민대)

윤홍주(춘천교대)

1.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에 대한 군집분석

※ 본 델파이 조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 순위 10위 안에 들었던 역량들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부 역량에 대한 강조점을 찾고자 역량 간의 거리에 대하여 1차 조사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5개의 역량군(Skill Groups)이 형성되었습니다.

역량군	핵심역량
1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능력 ■ 대인관계 능력 ■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2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능력 ■ 갈등관리 및 해결 능력
3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 창의성
4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 도덕성
5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기와 인내

※ 5개 군집의 ‘역량군’들에 하위 역량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역량명칭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위 명칭을 대표하는 역량명칭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시고, 대안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5’는 매우 동의하는 것을 의미함)

1. 역량군 1 :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능력,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연번	내 용	동의정도				
		1	2	3	4	5
1	의사소통 능력					
2	대인관계 능력					
3	협동 능력					

1-1. 위에 제시된 명칭보다 더 적합한 역량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역량군 2 : 문제해결능력,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연번	내 용	동의정도				
		1	2	3	4	5
1	실생활의 문제해결력					
2	갈등관리능력					

2-1. 위에 제시된 명칭보다 더 적합한 역량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역량군 3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창의성

연번	내 용	동의정도				
		1	2	3	4	5
1	자기주도력					
2	혁신능력					
3	창의성					

3-1. 위에 제시된 명칭보다 더 적합한 역량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역량군 4 :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도덕성

연번	내 용	동의정도				
		1	2	3	4	5
1	시민의식					
2	도덕성					

4-1. 위에 제시된 명칭보다 더 적합한 역량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역량군 5 : 끈기와 인내

연번	내 용	동의정도				
		1	2	3	4	5
1	인내심					
2	끈기와 집중력					

5-1. 위에 제시된 명칭보다 더 적합한 역량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미래의 학교상

※ 현재 학교는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의 학교 모습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과정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연번	내 용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2	시험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교육은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3	문·이과를 통합하여 공통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4	국가수준에서는 큰 범위만 제시하고, 세부 운영은 교사가 학생의 필요와 수준 그리고 교과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및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5	진로탐색, 다양성 포용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등 미래의 핵심역량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2.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방법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연번	내 용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지식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읽기, 쓰기, 토론, 대화 등을 강화하여 각 교과와 원리, 탐구방식, 사고양식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3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가르침(teaching)보다는 배움(learning)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4	강의식 수업이 50%이하로 축소하고 학생의 참여와 토론, 탐구, 프로젝트 수행이 50% 이상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5	미리 짜여진 틀 속에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학습 콘텐츠를 찾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부진학생 또는 우수학생을 별도로 모아 지도하는 수준별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					
7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 형태도 보다 강조되고 교사는 질문에 답하거나 학습 계획을 돕는 조력자 혹은 코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8	과학기술(인터넷, 이러닝,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방법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9	학습자들의 협동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10	교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체험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평가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연번	내 용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선발적 교육관에 입각한 평가를 지양하고 개별 학생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피드백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2	선다형 문항 위주의 시험을 탈피하여 수행평가(서술식, 논술식,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방식의 문제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3	지적 능력 이외에 비인지적 능력(affective and psychomotor) 역시 중요하게 측정하는 교육평가가 되어야 한다.					
4	모든 것을 점수화하는 정량적 평가를 지양하고 정성적 평가와 서술적 피드백을 강화하는 준거지향적 형태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5	현행과 같은 입시 위주 교육관행이 지속된다면 서열을 중시하는 정량적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6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교육한 것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만 측정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7	경쟁에 기초한 평가를 지양하고 협동에 기초한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8	학생들의 불안지수, 스트레스지수, 문제해결능력 발달 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보관하여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강화되고, 평소에 학생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협동과 참여, 시민의식의 고양 등 역량 중심의 학생 평가가 가능하도록 토론식, 협력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참여교육 등이 확대되고 교사는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학교시설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연번	내 용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미래의 학교시설은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 조직을 생성하고 사회적 지원을 창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2	교과수업 위주의 공간에서 학습커뮤니티 중심의 교실로 변화해야 한다.					
3	갈등이나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					
4	스마트교육을 위한 학교와 교실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5	생태감수성 함양에 기여하는 생태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6	지역주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7	정보의 메카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8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9	체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5.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행정지원체제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연번	내 용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지시와 통제 위주의 행정에서 지원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단위학교에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4	다양한 학생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학생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5	교사가 교육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6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7	교사의 역량계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지원체제가 되어야 한다.					
8	위계적 행정조직 구조보다는 수평적 행정조직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9	학교 및 행정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사소통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 뒤에 계속

Ⅲ. 미래의 교사상

※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 학교에 적합한 미래 교사의 모습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Knowledge)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연번	내 용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초중등 연계적인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2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3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4	탐구활동학습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5	미래 역량에 대한 질적(정성적) 평가와 협동학습이나 토의에 대한 수행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6	지식의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지식을 활용하고 탐구하며 비판 및 평가할 수 있는, 즉 지식의 2차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7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8	2개 이상의 교과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융복합적이고 통섭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9	인간 이해를 위한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이 필요하다.					
10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특별히 다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Skill)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연번	내 용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단순한 지식의 전수를 넘어서서 실생활에 필요한 '과정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2	교과간 융합과 통섭이 가능한 범교과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	일방적 교수능력보다는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퍼실리테이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학생의 학습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학습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5	스마트 기기 등 첨단기술을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6	학생의 학습과정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7	학생, 학부모, 다른 교사와 소통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8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감정 코칭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9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특별히 다른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3.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Attitude)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연번	내 용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학생에게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습촉진자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2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원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3	학생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	학생의 실수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수용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5	학생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					
6	교사 상호간 전문가로서 수평적인 관계의 형성과 타협의 태도가 필요하다.					
7	교사 상호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동반자적 태도가 필요하다.					
8	교사 상호간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는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					
9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듣고 이해하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10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					
11	학부모의 전문성을 교육에 활용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12	학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3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특별히 다른 태도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3]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시사점 탐색 연구(3차)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시사점 탐색 연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의 정제영입니다.

1, 2차 델파이조사에 응답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1, 2차 조사 결과를 분석·정리하여, 3차 조사지를 구성하였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 순위 10위 안에 들었던 역량들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부 역량에 대한 강조점을 찾고자 역량 간의 거리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섯 가지의 역량군(Skill Groups)을 도출하였습니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각 역량군의 세부역량명에 동의하시는 정도, 미래 학교상 및 교사상에 동의하시는 정도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시도록 구성하여 응답해 주신 결과를 통계처리하여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제3차 조사에서는 각 질문에 다시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응답이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평균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통계처리를 통해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연구진 일동 올림

연구책임자 정제영(이화여대)

공동연구원 강태훈(성신여대)

김갑성(한국교원대)

류성창(국민대)

윤홍주(춘천교대)

1.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에 대한 군집분석

※ 본 델파이 조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 순위 10위 안에 들었던 역량들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부 역량에 대한 강조점을 찾고자 역량 간의 거리에 대하여 1차 조사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5개의 역량군(Skill Groups)이 형성되었습니다.

역량군	핵심역량
1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능력 ■ 대인관계 능력 ■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2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해결 능력 ■ 갈등관리 및 해결 능력
3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 창의성
4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 도덕성
5군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끈기와 인내

※ 5개 군집의 ‘역량군’들에 하위 역량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역량명칭을 결정하기 위해 2차 조사에서는 하위 명칭을 대표하는 역량명칭에 동의하시는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역량군 1 :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능력,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대인관계능력	3.91	1.16					
2	의사소통능력	3.68	1.02					
3	협동능력	3.14	1.25					

1-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역량군 2 : 문제해결능력,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실생활의 문제해결력	4.00	1.00					
2	갈등관리능력	3.18	0.89					

2-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역량군 3 :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능력, 창의성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혁신능력	3.91	0.95					
2	창의성	3.77	1.00					
3	자기주도력	3.09	1.28					

3-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역량군 4 : 시민의식 및 사회적 책임을 지는 능력, 도덕성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시민의식	4.14	1.01					
2	도덕성	3.50	1.03					

4-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역량군 5 : 끈기와 인내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인내심	3.82	0.78					
2	끈기와 집중력	3.64	1.11					

5-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미래의 학교상

※ 현재 학교는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의 학교 모습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과정 측면’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2차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학생 스스로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4.68	0.47					
2	진로탐색, 다양성 포용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등 미래의 핵심역량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4.41	0.72					
3	시험위주 학습에서 벗어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교육은 개선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4.23	0.52					
4	국가수준에서는 큰 범위만 제시하고, 세부 운영은 교사가 학생의 필요와 수준 그리고 교과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직 및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4.09	0.95					
5	문·이과를 통합하여 공통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3.64	1.23					

1-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방법 측면’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2차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읽기, 쓰기, 토론, 대화 등을 강화하여 각 교과와 원리, 탐구방식, 사고양식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4.41	0.71					
2	지식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36	0.58					
2	학습자들의 협동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4.36	0.57					
4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므로 가르침(teaching)보다는 배움(learning)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4.23	0.79					
5	미리 짜여진 틀 속에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학습 콘텐츠를 찾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3	1.01					
5	교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체험 교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73	0.91					
7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 형태도 보다 강조되고 교사는 질문에 답하거나 학습 계획을 돕는 조력자 혹은 코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3.64	0.88					
7	과학기술(인터넷, 이러닝,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방법을 개발 및 적용해야 한다.	3.64	0.93					
9	강의식 수업이 50%이하로 축소하고 학생의 참여와 토론, 탐구, 프로젝트 수행이 50% 이상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3.55	1.12					
10	부진학생 또는 우수학생을 별도로 모아 지도하는 수준별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	3.18	1.03					

2-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평가 측면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2차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선발적 교육관에 입각한 평가를 지양하고 개별 학생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피드백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4.27	0.75					
2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강화되고, 평소에 학생평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4.24	0.68					
3	현행과 같은 입시 위주 교육관행이 지속된다면 서열을 중시하는 정량적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4.23	0.90					
4	경쟁에 기초한 평가를 지양하고 협동에 기초한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4.19	0.73					
5	선다형 문항 위주의 시험을 탈피하여 수행평가(서술식, 논술식,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방식의 문제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4.14	0.81					
6	협동과 참여, 시민의식의 고양 등 역량 중심의 학생 평가가 가능하도록 토론식, 협력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지역사회참여교육 등이 확대되고 교사는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10	0.87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7	모든 것을 점수화하는 정량적 평가를 지양하고 정성적 평가와 서술적 피드백을 강화하는 준거지향적 형태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4.09	0.67					
8	지적 능력 이외에 비인지적 능력(affective and psychomotor) 역시 중요하게 측정하는 교육평가가 되어야 한다.	3.95	0.88					
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교육한 것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만 측정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3.86	1.01					
10	학생들의 불안지수, 스트레스지수, 문제해결능력 발달 정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보관하여 학습이나 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81	0.91					

3-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학교시설 측면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2차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4.36	0.57					
1	체육,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4.36	0.57					
3	갈등이나 폭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	4.14	0.85					
4	미래의 학교시설은 학생과 교사가 스스로 조직을 생성하고 사회적 지원을 창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4.09	0.90					
4	교과수업 위주의 공간에서 학습커뮤니티 중심의 교실로 변화해야 한다.	4.09	0.85					
4	생태감수성 함양에 기여하는 생태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4.05	0.88					
7	정보의 메카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3.82	1.03					
8	스마트교육을 위한 학교와 교실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3.77	1.04					
9	지역주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3.23	0.79					

4-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미래의 학교상에 대해 교육행정지원체제 측면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2차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지시와 통제 위주의 행정에서 지원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4.64	0.57					
2	교사가 교육활동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4.45	0.66					
2	학교 및 행정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사소통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4.45	0.58					
4	교사의 역량계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지원체제가 되어야 한다.	4.32	0.55					
4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32	0.55					
6	다양한 학생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학생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4.27	0.54					
7	단위학교에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4.23	0.67					
8	위계적 행정조직 구조보다는 수평적 행정조직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4.18	0.78					
9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3.82	0.83					

5-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OECD 산하의 CERI(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는 10여년 전에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을 아래의 6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은 세 가지 방향을 제시고 있는데 ‘현 체제 유지’, ‘재구조화’, ‘탈학교 지향’으로 설정하여, 방향별로 2가지씩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 CERI에서 구상한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

현 체제 유지 (status quo)	재구조화 (restructure)	탈학교 지향 (Destructure)
시나리오 1 건고한 관료제적 학교 체제	시나리오 3 사회센터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5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
시나리오 2 시장경제 원리 적용 모델 확대	시나리오 4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6 교사의 탈출, 학교붕괴

자료: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CERI)(2001).
Educational policy analysis 2001, OECD, p. 121.

6.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의 학교상에 비추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CERI에서 구상한 학교교육의 미래 전망		동의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현체제 유지	시나리오 1: 건고한 관료제적 학교 체제 유지					
	시나리오 2: 시장경제 원리 적용 모델 확대.					
재구조화	시나리오 3: 사회 센터로서의 학교					
	시나리오 4: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탈학교 지향	시나리오 5: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					
	시나리오 6: 교사의 탈출, 학교의 붕괴					

6-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미래의 교사상

※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미래 학교에 적합한 미래 교사의 모습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Knowledge)에 대한 2차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4.55	0.58					
2	미래 역량에 대한 질적(정성적) 평가와 협동학습이나 토의에 대한 수행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4.50	0.66					
3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4.45	0.66					
4	지식의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학생들과 함께 지식을 활용하고 탐구하며 비판 및 평가할 수 있는, 즉 지식의 2차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다.	4.41	0.58					
5	탐구활동학습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4.23	0.73					
5	인간 이해를 위한 인문학적 교양과 지식이 필요하다.	4.23	0.85					
7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4.09	0.73					
8	초중등 연계적인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4.00	0.80					
9	2개 이상의 교과를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융복합적이고 통섭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3.77	1.17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특별히 다른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2.36	1.07					

1-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Skill)에 대한 2차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학생, 학부모, 다른 교사와 소통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4.50	0.50					
2	학생의 학습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학습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4.41	0.58					
3	일방적 교수능력보다는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퍼실리테이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36	0.64					
4	학생의 학습과정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수행평가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4.18	0.65					
5	단순한 지식의 전수를 넘어서서 실생활에 필요한 '과정적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4.05	0.98					
6	교과간 융합과 통섭이 가능한 범교과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4.00	0.90					
7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감정 코칭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95	0.77					
8	스마트 기기 등 첨단기술을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3.77	0.90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특별히 다른 기술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2.23	1.13					

2-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미래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Attitude)에 대한 2차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정도에 ✓ 해 주십시오.

순위	내 용	2차결과		동의정도				
		M	SD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1	학생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41	0.49					
2	학생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한다.	4.36	0.77					
3	학생에게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습촉진자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4.27	0.75					
3	학생의 실수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수용적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4.27	0.69					
5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원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추어야 한다.	4.24	0.68					
1	교사 상호간 전문가로서 수평적인 관계의 형성과 타협의 태도가 필요하다.	4.41	0.65					
2	교사 상호간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동반자적 태도가 필요하다.	4.36	0.57					
2	교사 상호간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는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	4.36	0.64					
1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듣고 이해하는 수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4.18	0.72					
2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협력적 태도가 필요하다.	4.09	0.67					
3	학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00	0.85					
4	학부모의 전문성을 교육에 활용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	3.77	0.95					
	현재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와 특별히 다른 태도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2.23	1.04					

3-1. 이 문항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탁연구 CR 2013-43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의 시사점 탐색 연구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인 백 순 근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전 화 : (02) 3460-0363
팩 스 : (02) 3460-0117
홈페이지 : <http://www.edpolicy.net>
등 록 1973. 6. 13, 제16-35호
인쇄처 승림디앤씨
전화 : (02) 2271-2581~2
팩스 : (02) 2268-2927
ISBN 978-89-6113-979-3 93370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